타일
OR TILE
美 8 軍納品
장하는
메이커
무工業
23-7375 · 23-9860
facturing Ind., Co.
rn oon-Ku

건축사

9
KAA JOURNAL 1970

대 한 건 축 사 협 회 지

뛰어난 斷熱效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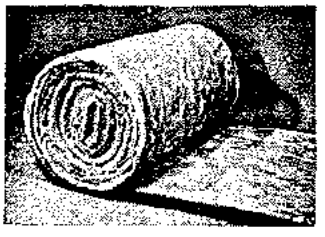
한일 화이바그라스

* 先進各国에서 화이바그라스는 斷熱材의 대명사로 되어있읍니다.

화이바그라스는 발명특허에 빛나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섬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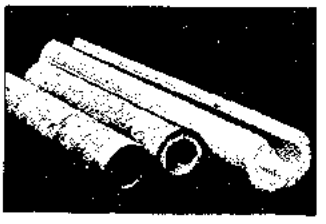
「뛰어난 保温, 保冷材」「가볍고 시공이 간단한」「타지않는 건축자재」로서 국내 최대의 납품실적을 자랑하는 **한일 화이바-그라스**

어느 斷熱材보다 우수한 성능으로 국제수준을 능가한 한일 화이바그라스는 그 「우수한 품질」「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에게 최대의 만족을 드릴것입니다.



인슈레이션 맛드

특성	용도
① 단열성이 우수하다.	① 건축물에
② 吸音, 防音	② 공장건설에
③ 불에타지 않는다.	③ 선박에
④ 가볍고 탄력성이크다.	④ 자동차,철도차량에
⑤ 시공이 간단하다.	⑤ 전기냉장고에



파이푸 카바-

설비용 pipe 의 保温, 保冷用으로 단열 효과가 우수하고 시공이 간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어느 保温材보다도 熱伝導率이 적어서 연료의 절약, 원가의 절감으로 매우 경제적이다.

한일유리섬유공업주식회사

HANIL FIBER GLASS INDUSTRY CO., LTD.

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동 2 가269－11, 중앙사서함95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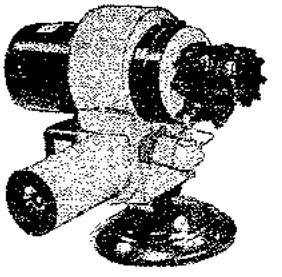
Tel : 53－5479, 53－2555, 23－4088, 23－40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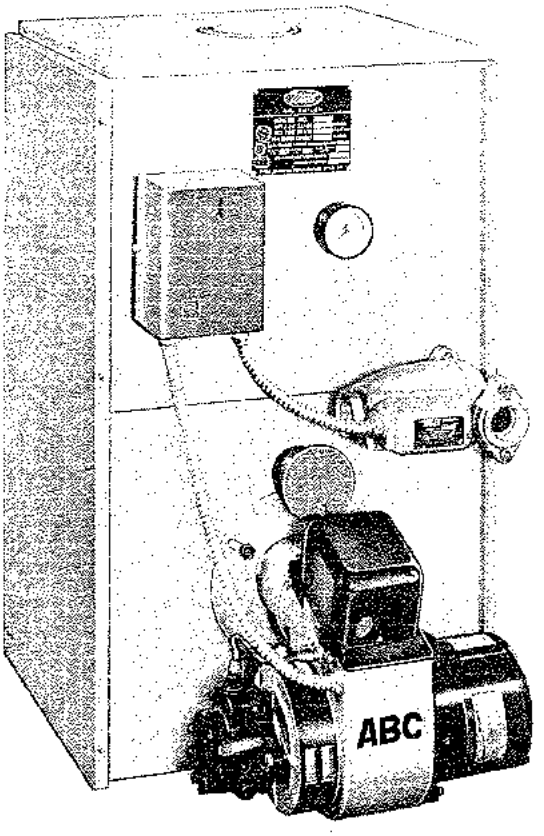
✳써보신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文化住宅·빌딩·工場의
熱管理는 어떠신지요?

美國 ABC 오일바-나

《完製輸入品》





●ABC바-나의 特徵●

① 完全自動임으로 便利하다.
② 完全燃燒로 燃料費를 節約
③ 五重安全裝置로 事故全無
④ 短時間에 設置·婦女子도 取扱할 수 있음.
⑤ 責任設置·애프터·써비스保障

●用 途●

① 暖房用 溫水보일러
② 各種스팀·보일러
③ 호텔·빌딩·沐浴湯用 보일러
④ 工業用보일러·工業爐·乾燥爐用

其他 取扱種目

Utica 유티카·보일러

暖房과 温水를 1台로 同時에
完全 解決한 美國 輸入完製品

● 各種自動펌프 ● 各種暖房器具
● 로타리 바-나 ● 各種自動裝置

美國의 有名한 오일바-나와 暖房器具
韓國總代理店

三成設備工業株式會社

서울·中区乙支路 2 街163의 5 (동양빌딩 601号)
TEL. ㉓ 9696·9697·96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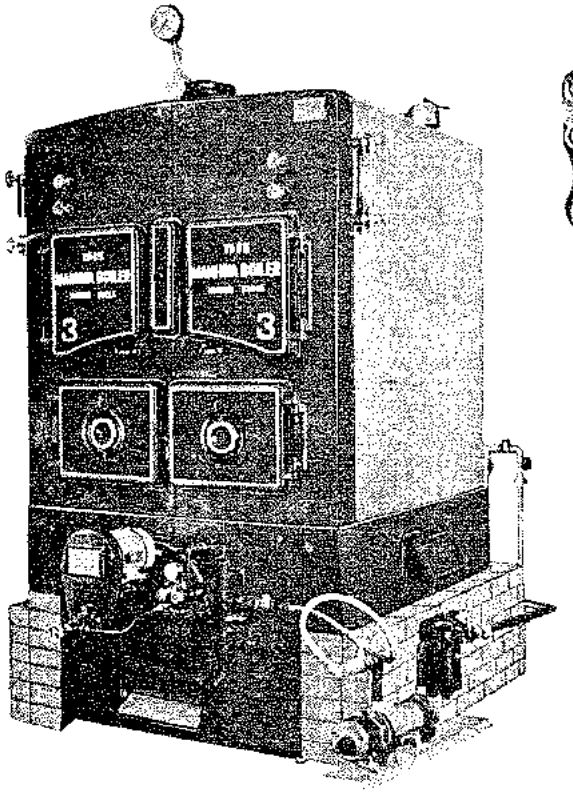
美國 ABC 오일바나

*상세한 카달록 및 문헌은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읍니다.

* 購入問議는 弊社 및 代理店에서

MANHW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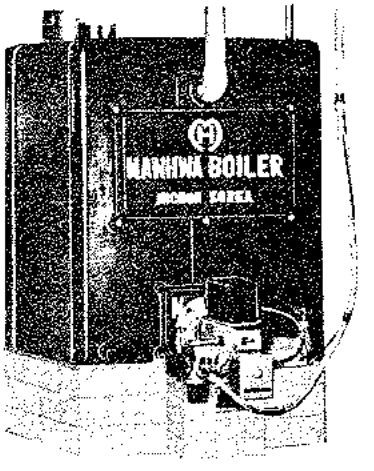
오일바-나 사용 보일러
OIL BURNING BOILER



실용신안 등록특허 제 3579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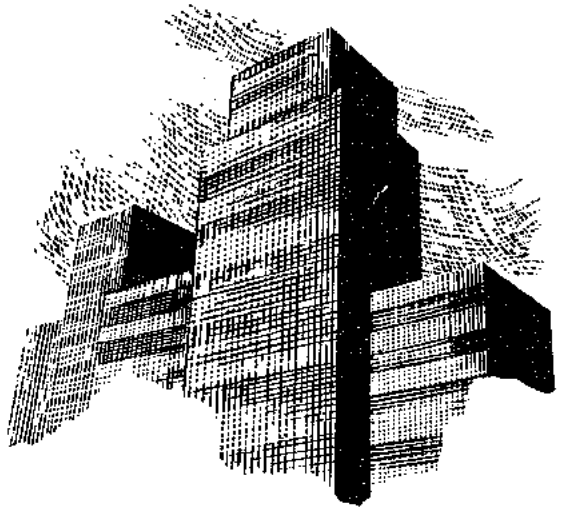
특상 우수상에 빛나는 만화보일러

가정용 온수보일러



만화주물공업주식회사

본　　사 : 인천시 남구 숭의동 349
인천 (2) 0930, 3491 (3) 1156, 1157
서울연락소 :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48의 3
(22) 3716 (24) 1316 (28) 7716



現代建築 內裝의 3大 課題—
방음·방습·보온을 완전 해결한

三榮하—드보—드

무늬보—드

立体的이어 아름답고 濕氣와 소음을 防止하며 쥐가 棲息치 못하는 가장 새로운 建築 內裝材.

프린트 보—드

하—드보—드 表面에 優雅하게 塗裝된 國內最初의 新製品으로 우수한 高級內裝材.

吸音板

木材 纖維로 製造된 國內唯一의 断熱吸音材로써 防音이 完全하며 절대휘거나 뒤틀리지 않는 天井用 內裝材.

三榮하—드보—드工業株式會社

■ 서울사무소 : ☎ 26—3201~5 ■ 서울總販 ☎ 52—3006~7
서울特別市中区乙支路 3 街296

KS

표시허가 제374호
5C-650방열기
표시허가 제420호
관이음쇠

KW

기 술 의 상 징
KANGWON BRAND

강원 라지에타 콘벡타 관이음쇠

- 5C-650 RADIATOR
  5C-500 RADIATOR
- WALL RADIATOR W-7B
  (5kg/cm² 水圧試驗合格品)
- CONVECTOR
- PIPE FITTINGS
  (10kg/cm² 水圧試驗合格品)

暖房·配管用生産品種

國內 最大規模의 量産体制로서
여러분께 奉仕하고 있읍니다.

[兼營業種]
江原製作所·江原炭鉱·三票煉炭
三 票 石 油·三票骨材·三江運輸

江原産業株式会社

本社 서울特別市鍾路区新門路二街6 營業部(直) 73-5514
TEL. 75-2381~5

KAA JOURNAL

건 축 사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ARCHITECTS

1970

9

분류번호	建築士誌
도서번호	통권 제25호
구입년월일	19 . .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지부

주택설계작품모집 6

심사위원 간담회 강 명구
엄 덕문
김 화춘
정 인국
김 중업
김 수근

농촌 공동체연구 10 김 석철

70년대의 작가⑨ 케반로쉬 12 편찬위원회

회원작품 30
가정법원청사 31 이 종담
S씨주택 36 부 대진
가톨릭회관 40 정 진경
L씨주택 42 공 일관
Q씨주택 45 윤 주현

특집 집합주택 48 편찬위원회
주거형식의 변화 49
도시중간계급의 가족 50
집합주거의 표현 51
벨링비주거단지 52 커더스미스
860레이크쇼 아파트먼트 57 미스,
100매모리알 아파트먼트 59 케네디
코란 가든 아파트 60 헬무드, 오바타, 카사바움
미대사관숙소 64 레이몬드, 라도
벨에어 가든 68 펜시·존스

속경제주택 72
워커하우스 72 폴·루돌프
건축가의 집 74 에드워드·스톤
브라운하우스 76 컴번

건축법규개론 78 박우하

협회기사·회원동정 81

편찬위원장 한창진
편찬 위원 정인국, 최창규, 라상진, 한정섭, 이해성, 유경철, 박고석, 이정덕, 강명구, 김석철

주택설계 작품 현상 모집

심사위원 간담회

1970년 9월 17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17시부터 19시까지 회장 사회하에 개최

심사위원 명단

참석위원

엄덕문 (한국 건축가 협회 회장)
김희춘 (서울공대 건축과 교수 건축학회부회장)
정인국 (홍익대학 건축과 교수)
김중업 (김중업 건축 연구소 소장)
김수근 (인간 환경 계획 연구소 대표)

불참위원

홍봉희 (한양공대 교수 건축학회 회장)
이해성 (한양공대 교수)

김 희춘

정 인국

김 중업

염 덕문

김 수근

강명구회장 만나기 힘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저의 사업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지껏 현상설계가 제대로 되어본적이 없었던 것은 대부분의 경우 주관하는 측이 현상설계의 과정을 잘 몰랐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모처럼 건축사 협회에서 하는 일이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위원 명단을 발표할 겸 여러분을 미리 모신것입니다. (원칙은 응모요강의 발표도 심사위원회와 추진위원회 합동으로 해야할 것이지만 그것은 시일도 촉박하고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있으므로) 응모 요강의 해석과 심사기준에 대한 원칙 등을 오늘 말씀해 주심으로써 보다 완전한 이상적 현상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나와있는 요강을 기준으로 해서 응모규정을 부연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발표된 기준을 보강하자는 것이 오늘 모임의 목적입니다. 응모자들로 하여금 보다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이고 또 응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과 발표된 규정의 애매한 점이 있다면 심사위원님들의 해석을 풀이해 주시도록 거탄없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업 지금 나와 있는 응모 규정만 갖고 볼 때는 여지껏 있었던 무의미했던 수많은 전철과 다를 바가 없읍니다. 내용과 조건이 모호한 규정을 갖고 좋은 작품을 바란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확대해석도 필요하겠지만 삶의 장소로서의 주거와 이것이 모여서 이루는 마을을 동시에 다루도록 하는 방향의 제시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덕문 지금 나와 있는 규정의 의미를 확대해석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지금 되있는 막연한 규정을 더 상세히 하는 것도 필요하겠읍니다. 막연히 5人가족이라는것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 가족의 구조라든가 가족의 생활양식이라든가 혹은 그 집이 들어서게 되는 지역의 성격등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적기준 자체도 문제입니다. 여러가지 기준이 나와있으나 그것은 외국의 최소치므로 기준하기는 곤란한 것이고 또 앞으로 크게 대두될 프리화브의 문제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등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중업 우리는 지금 완전한 해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윤곽만 제시되면 그 안에서 자기자신이 몇가지 가정을 전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현상모집의 취지는 도시주택과 농어촌 주택의 일반해를 요구한 것이므로 삶의 장소로서의 주거 그리고 이것이 모여 이루는 마을에 대한 비존이 분명하면 일단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그것의 표현은 결국 각자의 능력에 따른 것이므로 구태여 우리가 암시를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춘 우리는 이웃과 마을의 테두리 안에서 집을 짓습니다. 이것은 결국 주택이라는 문제가 주택자체만의 문제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생활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가족형태의 변화같은 것은 직접적으로 그러한 문제의 방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건축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의 도시, 오늘의 농어촌에 있어서의 주거의 문제를 어떠한 각도에서 보느냐 하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집과 이웃과 마을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 더 문제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결국 주택의 안과 밖에 존재하는 움직임의 원리가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인국 김교수님 의견에 저도 찬성입니다. 이번 현상모집의 주안은 단순한 주택의 설계보다는 도시생활과 농어촌 생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표현은 설계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겠지만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그 설계를 통해서 어떤 생활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특히 농어촌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이란 전혀 의미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주택은 그 자체로서 보다는 한 마을의 부분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도시주택의 경우는 단독주택이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농어촌 주택은 한 커뮤니티를 배경으로 한 계획의

일부분인 농어촌 주택이 아니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의 경우는 도시생활의 질서 그 자체에 표현할 수도 있지만 농촌주택의 경우는 그자체만으로는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수근 여러분 말씀대로 응모자의 창의를 막지 않는 범위안에서의 확대해석과 방향의 제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강조해두고 싶은 것은 심사의 과정과 기준을 미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각 심사위원들이 개성을 지닐 수 있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자칫 무성격해지고 평범해질 우려가 있는데 이것은 특히 현상설계를 무의미하게 하는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심사위원 모두가 한 작품씩은 입선시킬 수 있게 창작을 심사하는 심사다운 방식을 택할 것을 미리 밝힙시다.

강명구 김위원 말씀은 결국 낙선이 될 경우에는 만장일치가 안되면 낙선시킬 수 없다는 말씀인데 좋은 방식의 하나로 저도 생각됩니다.

엄덕문 채점방식 같은 것이 오히려 공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읍니다. 개인의 주관에 의한다는 것이 개인의 취향에 흐르게 되면 설부른 아류를 조장할 지도 모르고 출품자가 심사위원 구성에만 아부하는 경향도 있지않을가도 우려되는군요.

김중업 저는 건축은 전체로 보는 것인데 어떻게 점수를 매깁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뚜렷한 분계가 있는 것이므로 좋은 것을 뽑으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디어나 비존이 문제되겠지만 소화되지 않은 아이디어나 비존은 쓸모없는 것이므로 표현에 성공한 아이디어나 비존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보면 알지 점수로 매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명구 심사방식에 대해서는 심사대상이 기준이 되니까 수준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하니 응모된 작품들을 놓고 여러분들끼리 논의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단 그 심사방식과 기준을 심사후 우리 회지에 공개함으로서 응모자들에게 정상적인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자신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주택, 농어촌 주택에 관해서 그 의미와 기능에 대한 심사위원님들의 사고방향을 종합할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정인국 도시주택에 대해서 스밋손의 골든레인 계획같은 것이 좋은 암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거의 연장으로서의 마당, 그리고 사람들이 광범하게 이어져 있는 도시의 리빙같은 가로 또는 광장, 인간생활의 연대성의 하이어라키를 합리적인 지역구분의 연속체속에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도시주거의 새로운 형태를 응모자들이 추구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농민 주택의 경우 그 울타리 자체가 한 주거의 영역을 암시하고 있는데 그런것들이 어떤 그룹으로 디자인된 방법을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춘 정선생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도시주택에서 특히 생활환경이었던 종래의 길들은 자금 증가하는 모빌리티에 의해서 변화되고 있읍니다. 도시주택에서 저는 인간과 그 환경을 다시 일체화하려는 건축가적 의지가 분명히 보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 광장, 녹지 등 종래의 방법만 가지고 되기에는 이미 생활의 상황이 달라져 있으므로 변경될 상황속에서의 도시생활의 형태를 분명한 방식으로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주택은 가족만 가지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시생활의 새로운 형태 결국 이것이 문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중업 문제는 삶입니다. 삶 그것은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우선 생각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도시와 농어촌이라는 명제가 문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축복합체의 어떤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삶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도시와 농어촌이 일상생활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논의의 촛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엄덕문 나는 실제적인 것을 말하고 싶읍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주거단위의 스케일이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커뮤니티 전체의 계획을 요구할 것이냐 아니면 커뮤니티로 구성하는 요소중에 점차적인 확대에 의해서 커뮤니티가 되어가는 기본단위를 요구할 것이냐를 밝힐 필요가 있읍니다.

김수근 완성된 것으로서의 새로운 커뮤니티의 형태를 레이 아우트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와같은 계획은 가능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의 조건을 확대하고 가정하여 현실의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인 어떤 형식을 추구함으로서 인간환경에 대한 새로운 어프로치를 시도하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상형의 개념에 의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제시하는 시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활 양식과 같이 새로운 종류의 정서와 미학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직화된 공간을 만들라고 한정할 필요는 없으며 그것은 각자의 자유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명제는 거기에 길이 이어진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생활에 대한 것을 문제 삼으려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생활의 사이클 속에서 변화를 반영하게 되는 이웃과 마을과 커뮤니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문제는 지금까지 주어진 규정을 전제로 할 때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으나 몬트리올의 아비따시옹67 같은 어떤 비존의 제시에 비중을 현실에 근거로 둔 것에 웨이트를 두느냐 하는 것이겠읍니다. 즉 미래에 대한 제시, 앞을 내다본 센스를 평가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시점의 해결을 요구할 것이냐가 문제되겠읍니다. 내 사견으로는 전자에 웨이트를 두겠읍니다만

김중업 아비따시옹67은 비싼 실험입니다. 참으로 이상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현실에서 비약하면 모든 것이 모호해집니다. 지금 얘기는 소위 주거의 프로토 타입을 말하는 것인데 건축에서의 프로토타입은 결국 특수해를 통해서 제시되는 것이지 개념만 가지고는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김희춘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떤 프로젝트를 갖고 현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주택, 농어촌 주택이라는 복합명제를 갖고 현상을 하는 것이므로 일반해가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엄덕문 그런 것을 미리 규정하는 것은 힘들지 않겠어요. 선입견을 줄 우려도 있고.

김중업 모든것은 창의성의 기준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우리가 심사하는 것은 표현의 외지와 그 결과입니다. 따라서 모든 기준은 거기서 자연히 나오는 것이지 피상적인 규정은 필요없읍니다.

정인국 그러나 그 창의성이라는 것이 모호합니다. 창의성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 기준을 세우느냐 하는 것이 문제 쪽점입니다.

김희춘 문제를 좁히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김선생 말대로 현실을 전제로 하되 작품안 자체는 그룹으로서 집단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이상적이 됨으로 좋겠읍니다. 그 경우에 한 커뮤니티의 스케일에서 생각되는 주거의 문제 그리고 농어촌이나 도시의 생활양식에 대한 전제를 분명히 하고 그 전제를 배경으로 안을 만든것을 기준으로 하면 더욱 이상적인 것이 아닐가 합니다.

김중업 현상금의 액수가 너무 낮은 것같습니다. 현상금을 많이 올리므로서 보다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오지 않을가요… 상의 폭을 좁히고라도 상금을 올리는 방안은 없을까요.

일 동 찬의 표명있음.

강명구 심사세칙은 심사전에 다시 회의를 가지고 만들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협회 회원중에도 젊은 작가들이 이 현상에 참가할 의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러 심사위원님 말씀대로 상금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더 올리는 방법을 노력 강구해보도록 하고 전에 없이 심사위원님들의 심사각도와 방향을 미리 응모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함으로서 출품의욕과 출품방향이 굳건히 하 여진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일 동 그저 좋은 말씀입니다. 가급적이면 최소 30만원 선까지는 회장이 노력해 보시기바라며 좋은 작품이 많이 출품되도록 바랍니다.

강명구 오늘 긴급히 심사위원님들의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건축사 회지에 빨리 실릴것과 각회원, 또는 각 대학 건축과에 오늘의 회의 결과를 선전계시하여 보다 많은 작품응모를 위함과 건축사 협회사업의 P.R.과 좋은 안이 국민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키 위하여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추진위원과 더불어 만반의 뒤치다꺼리를 아끼지 않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체

공동체 (커뮤니티) 는 기초적인제도적 활동이 존재하는 일정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공동체는 사회를 이룩하는 모든 주요제도와 모든 지위및 관심을 포괄하는 지역적집단이다.

사람들이 함께 무리를 이루어 산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가까이 모여 산다는 것은 집단의 조직과 통합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 이 거주지내에 집단구조를 상징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지역적 배분의 유형이 생겨나고 발전한다. 이것이 공동체다.

농촌공동체에 대해서

농촌공동체

"모든 농가의 문은 길로 열려있고 이 길은 마을로 통한다"이 인용문은 농촌주택이 커뮤니티라고 불리우는 사회관계의 복합조직의 부분임을 극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이것은 또한 커뮤니티의 중심부와 주변농가와의 사이에 있는 밀접한 기능적 관계를 암시한다. 농촌공동체에 대한 한 고전의 정의는 이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농촌공동체는 분산된 소유지에 따라 거주하는 어느 한 지역이나 공동활동의 중심지가 되고있는 어느 한 촌락에서 사람들과 그 제도간에 유지되고 있는 결사체의 형식이다."

농촌의 이웃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여러가족들로 구성된다. 이웃 그 자체만으로는 이들 인구가 완전한 제도적 활동을 담당하기에는 수효가 적으므로 공동체가 아니다. 이웃과 농촌 공동체와의 중간적인 지역단위는 마을인데 이것은 대체로 250명 이하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몇개의 제도적시설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족들의 취합이다. 마을은 대부분이 큰 공동체의 일부이다. 그러나 한 마을이 제도적 시설을 비교적 완전히갖추고 있으면 공동체의 중심부로 간주된다.

농촌의 생활양식

지방적 지역적차이는 있지만 도시와 구별되는 농촌생활의 일반적인 특징은 "원초적집단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과 농촌사람들에 대한 원초적 집단의 통제다. 가족은 크고 가족들은 매일 서로 만난다. 이웃은 친밀하고 그들은 오랜세월을 두고 유대가 겹쳐진다. 사람들의 생활은 토지와 이웃사람들과의 생활과 서로 얽혀있다. 그들의 접촉은 친밀하고 지속적이다.

농촌사람들은 도시인보다 훨씬 동질적이고 서로 비슷하다. 농촌공동체에서는 수입이나 계급 및 종족간 혹은 이데오르기 등 도시의 특징인 계급의 차이가 없다.

농촌 생활은 가족을 경제적생산단위로 이루어지는 원초적 집단와 본질에서 비롯한다.

농촌제도의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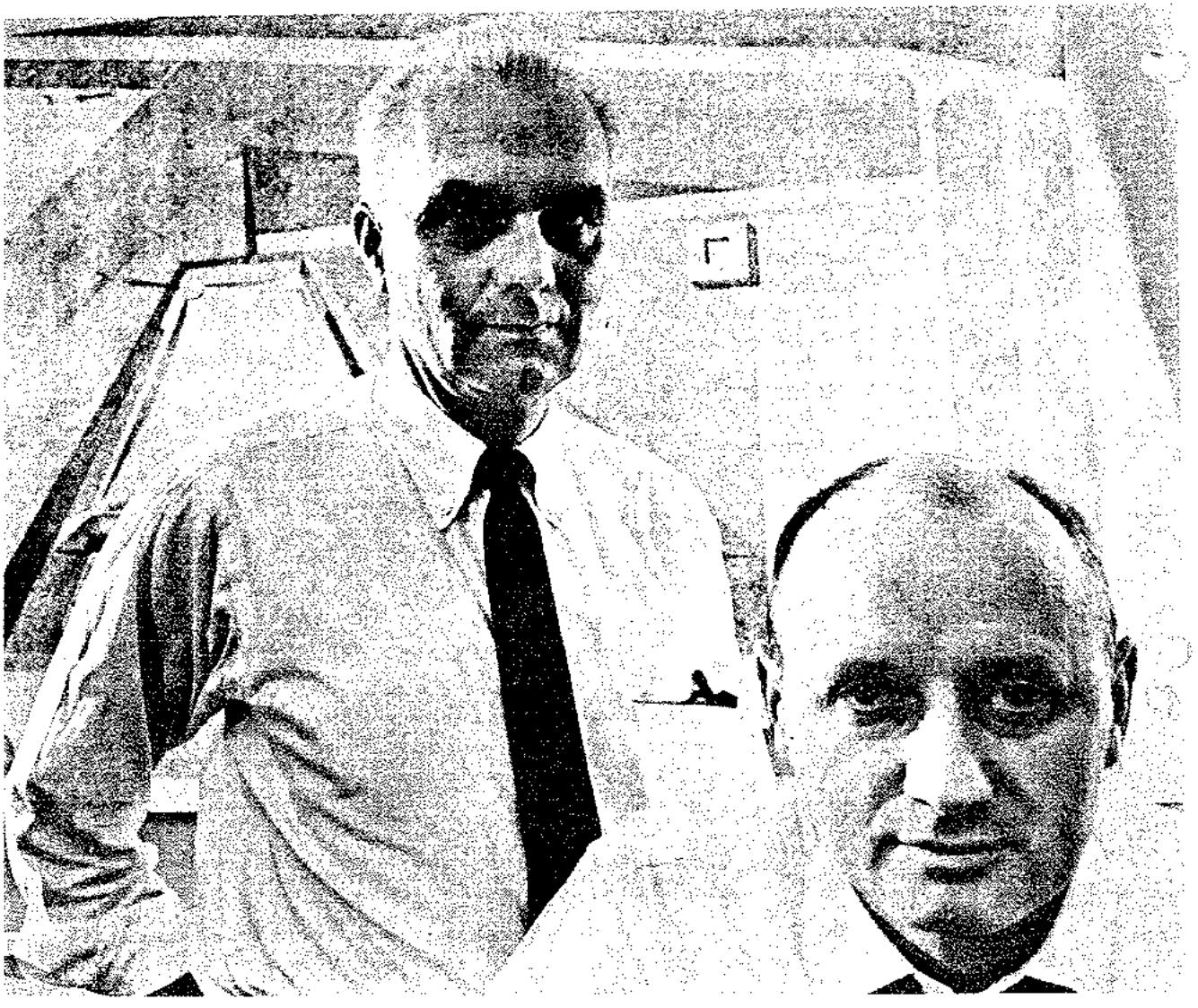
농촌제도의 조직은 여러가지 점에서 도시와 다르다. 농가의 특징은 경제적 생산단위로서 서로를 결속시키는 응집력이 강한 그 자체가 한 기능적 단위인데서 대부분 비롯한다.

도시문화의 농촌문화로의 전파와 더불어 농촌문화와 도시문화간의 극단한 차이는 소멸되어가고 있다. 매스컴은 특히 전통적인 지방언어를 파괴하고 있다. 농촌의 전화기와 가정용구의 대중화는 농촌지역에서의 생산의 기계화와 더불어 이 경향에 박차를 가한다. 이러한 경향의 전체적인 결과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농촌과 도시의 생활양식간의 차이를 점차 감소시킬 것이다.

7 scales for planing activities and concerns at each scale

INDIVIDUAL	ideas thought rest relaxation reding viewing wrighting creating things
HOME 4people 50ft	conversation family dining entertaining play apt. house design landscaping
STREET 100people 500ft	access parking utilities services trees coffee clubs childrens play friends
NEIGHBORHOOD 4000people 1/2mile	walks elementary schools organizations churches bass clubs gasoline convenience shopping parks
AREA 100, 000people 3mile	high schools community colledge hospitals workplaces shopping restaurants street systems ward polities
CITY 3, 000, 000 25mile	workplaces clubs universities theater museum parks central business distiut courts police welfare utilities industry city govemment

70년대의 작가
⑨
케빈 로쉬



현대건축의 움직임은 크게 세 흐름을 형성해왔다. 끌뷔제와 미스 그리고 라이트로 대표되는 영웅주의의 시대와 다음은 그들 영웅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좀더 세련시키고 부연시킨 소위 형식 주의자들의 시대 그리고 전후 변경된 상황을 전제로 각자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 제3세대가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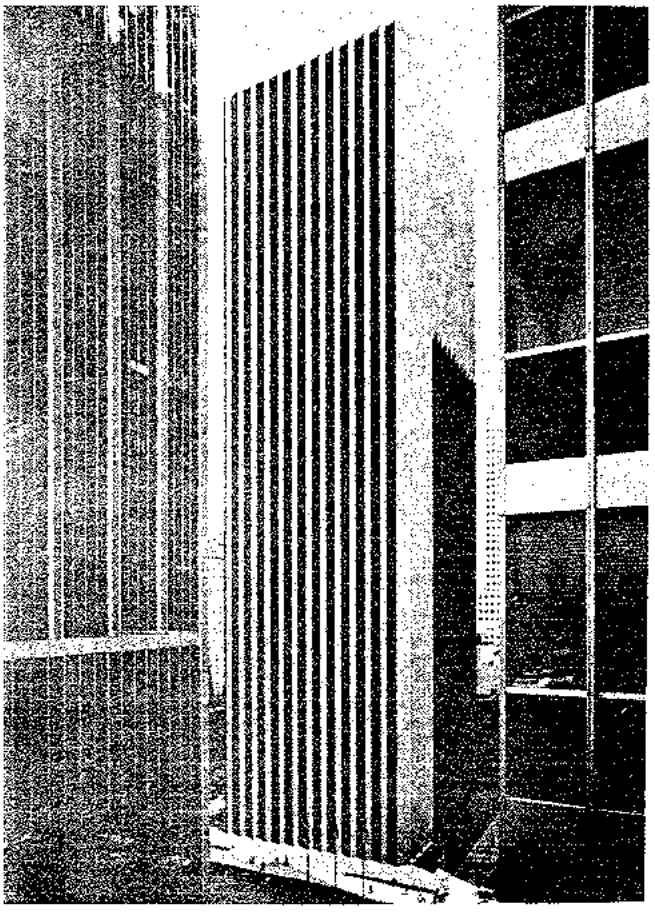
제2세대는 쁠 루돌프, 제임스 스털링, 케빈 로쉬 등이 아예 속한다. 그들은 전시대의 영웅들이 아룩한 추상적인 형태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그 자세와 형식을 재고하면서 인위적인 세계속에 인간을 정착시켜 이상적인 형식과 사회의 이미지를 세우려고 한다. 그들은 문제의 해결을 무시하면서까지 순수하고 완벽한 형식을 추구하며 기능의 문제와 형식의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한다. 그들은 상황의 디테일과 건축의 정서적 개연성을 무시하면서까지 모든 종류의 명제에 대한 prototype을 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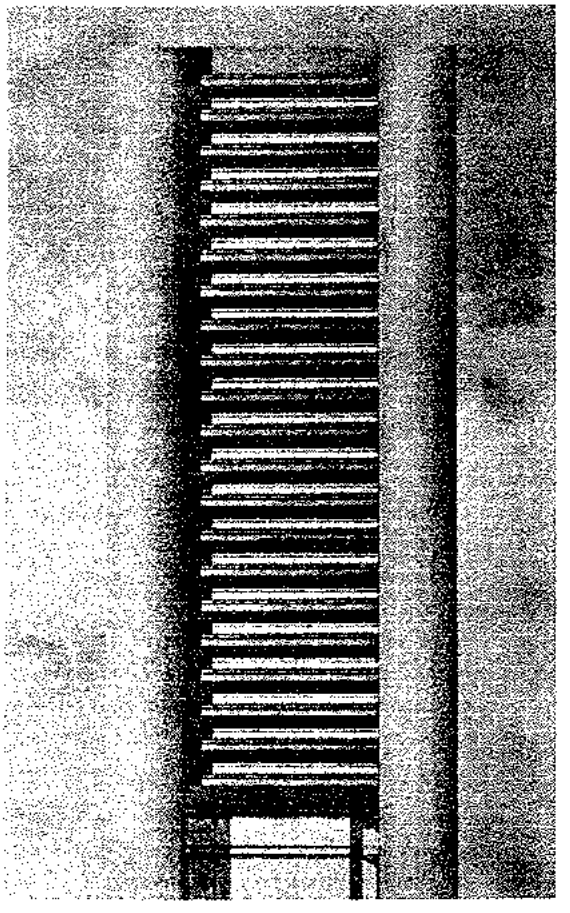
케빈 로쉬는 제2세대중에 그 성격이 가장 분명한 작가다. 오래동안 이로 샤리넨 사무소의 chief designer였던 로쉬는 샤리넨의 충실한 협력자였고 정신적인 후랜드였다. 그러나 1961년 샤리넨의 유작을 모두 마치고 독립한 이후 로쉬는 확실히 독자적인 자신의 영역을 보이기 시작했다.

케빈 로쉬는 모든 건축적 외연을 포괄하는 환원된 감각을 표현하는 완강한 기하학의 작가다.

그 건축의 방법은 샤리넨으로 부터 배울 수 있었던 것에 근거하고 있으나 그의 건축은 다른 것이다. 그 건축의 방법이란 모든 건축적 상황을 그 자체에서 풀어나가는 거의 절충의 여지가 없는 완고한 것이다. 그러한 방법은 샤리넨에게 "양식의 내적 부조화"라는 비평을 야기했으나 로쉬에게 그것은 창조의 신비를 여는 열쇠다. 지금 우리는 로쉬의 작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종류의 방법론에서 이끌어진 신선한 형태와 새로운 방향을 본다. 물론 그의 방법은 독특한 것도 새로운 것도 아니다. 오히려 평범하기조차 한 것이다. "우리는 먼저 건물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리고 부지의 성격, 그 환경을 생각한다. 다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한다. 그리고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케빈 로쉬—

그러나 케빈 로쉬의 손에 의해서 이러한 방법은 오늘 세워지는 집들 가운데 가장 괄목할 가치를 가진 것들을 만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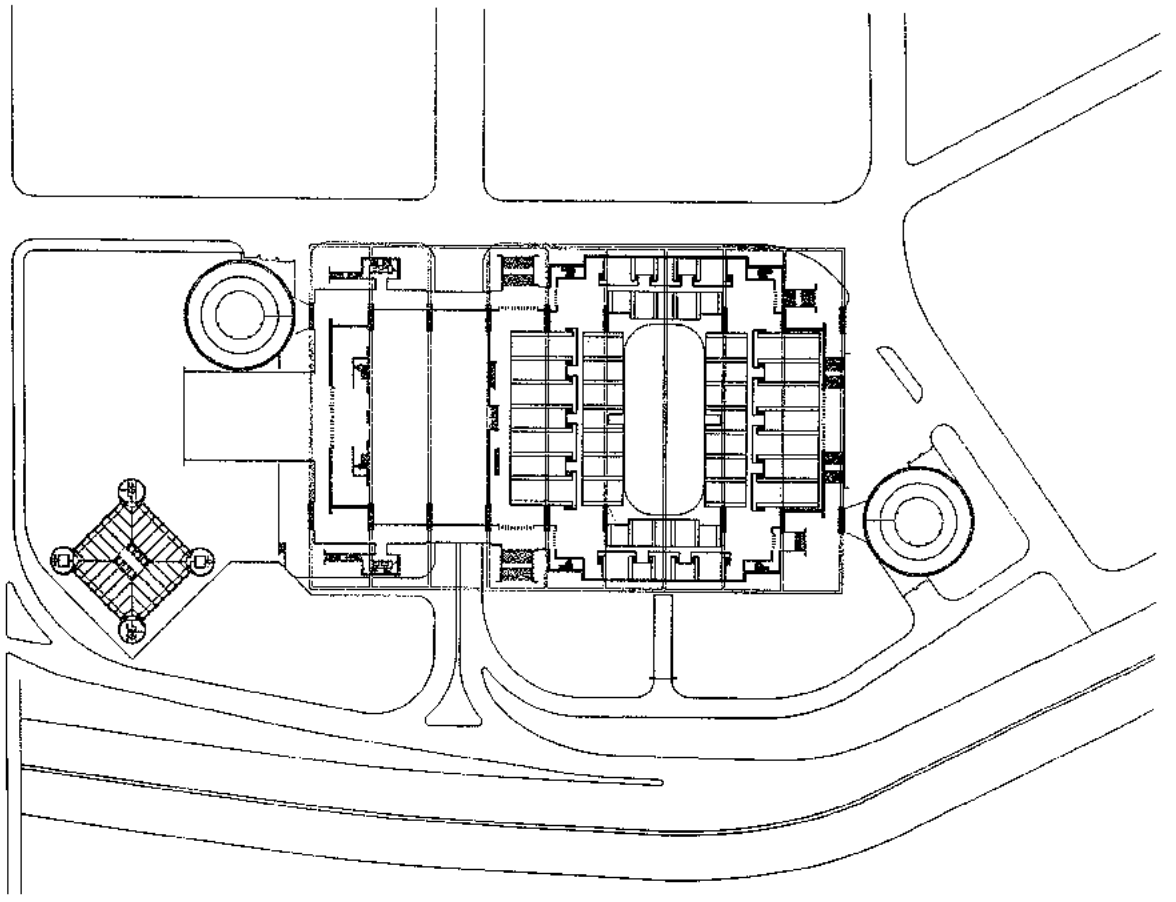
로쉬의 작품들은 샤리넨의 표현적 방법에서의 이미지의 추구와는 전혀 다른 추상적인 기하학적 순수를 보여준다. 샤리넨의 건축에 대한 방법과 로쉬의 방법과의 차이는 샤리넨의 최후작품이며 현대건축의 가장 위대한 유산의 하나인 C.B.S. 와 로쉬가 최근 완성한 Knight of Columbus사이에 분명히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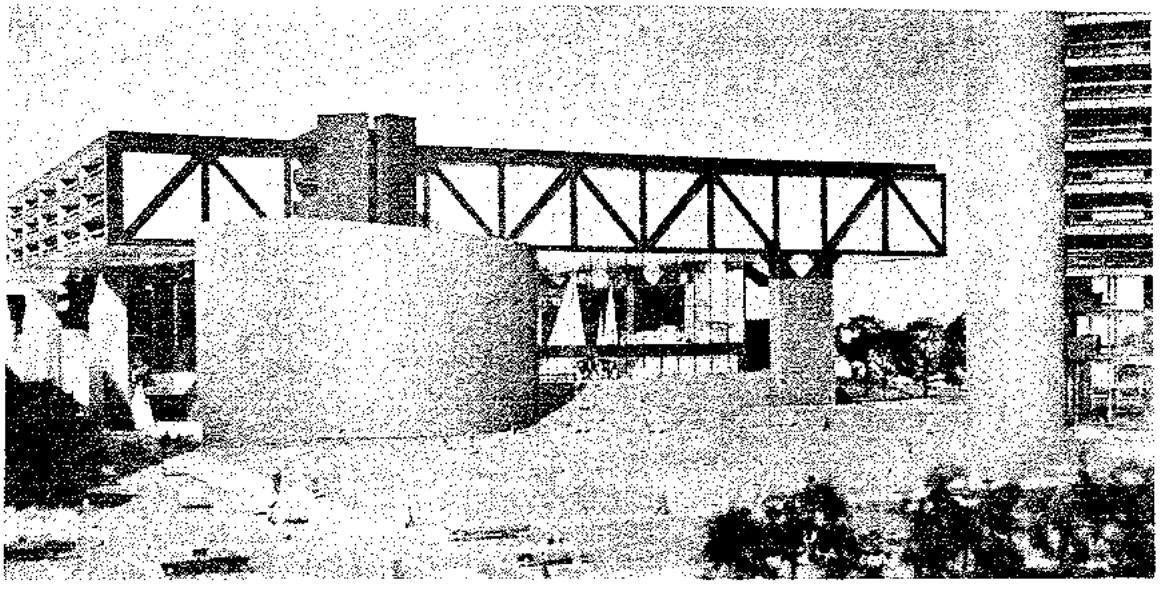
C. B. S.는 완벽히 조직적인 강인한 이미지의 연속과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다. 검은 바위탑같은 타워의 거침없는 치솟음은 촘촘한 기둥의 강한 리듬의 반복이 중첩되면서 끊임없는 영원한 변화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화강암이 붙여진 사각의 기둥들이 미끌어지고 겹치면서 치닫는 벳스의 열리고 닫히는 모든 시각에서의 끊임없는 상호관통이 빛는 탁하고 세련된 강인함은 감동적이다. 그러나 많은 기능적 표현이 이 형태의 시스템에 의해서 희생되어 있다. 어프로치는 교각의 중첩에 밀쳐져있고 일상적 형태감은 사방에서 툭툭 잘라져 있다. 샤리넨의 이 디자인은 그 원초적 감각에 있어서 미스의 시그람을 능가하나 지나친 강경으로 해서 타워는 그 블럭의 낮은 부분을 형성하는 낮은 건물들이 있는 기단과 전후좌우의 옵립한 다른 건물들과 서로 위화되어 만하탄의 전통적인 갸로의 건물들이 이루는 위계를 부정하는 쓸모없는 오픈스페이스를 만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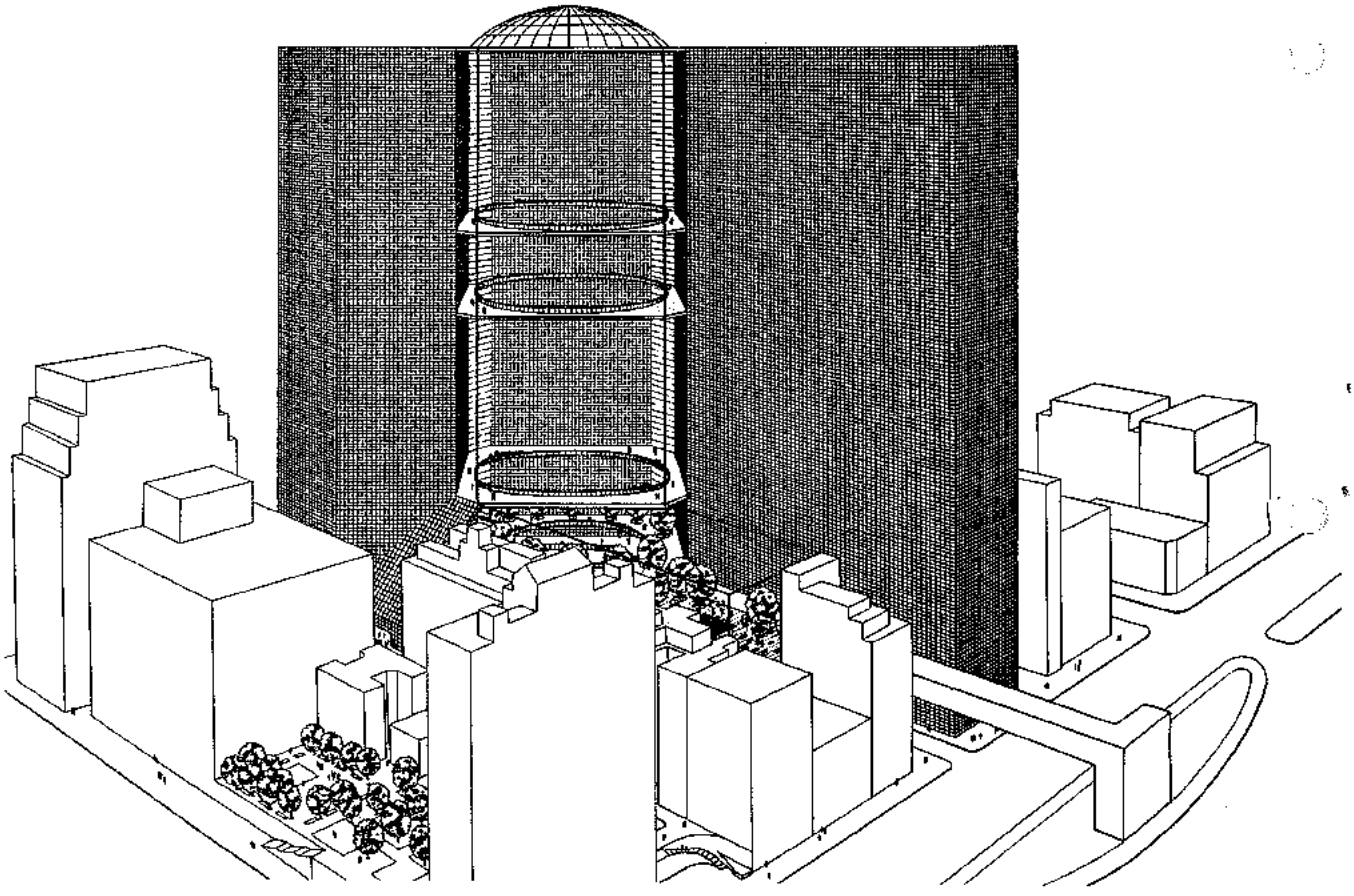
26층의 컬럼버스타워는 C. B. S. 보다 10층이 낮으나 중세 전장터의 포탑같은 네 코너타워와 그 타워를 연결하는 24m에 달하는 장대한 거더의 뻣침으로해서 어프로치에서부터 거대한 건물의 스케일이 갖는 늠렬한 힘과 분명한 형비를 표현하고 있다. 코너의 엘리베이터 만이 타워의 명백한 이미지를 절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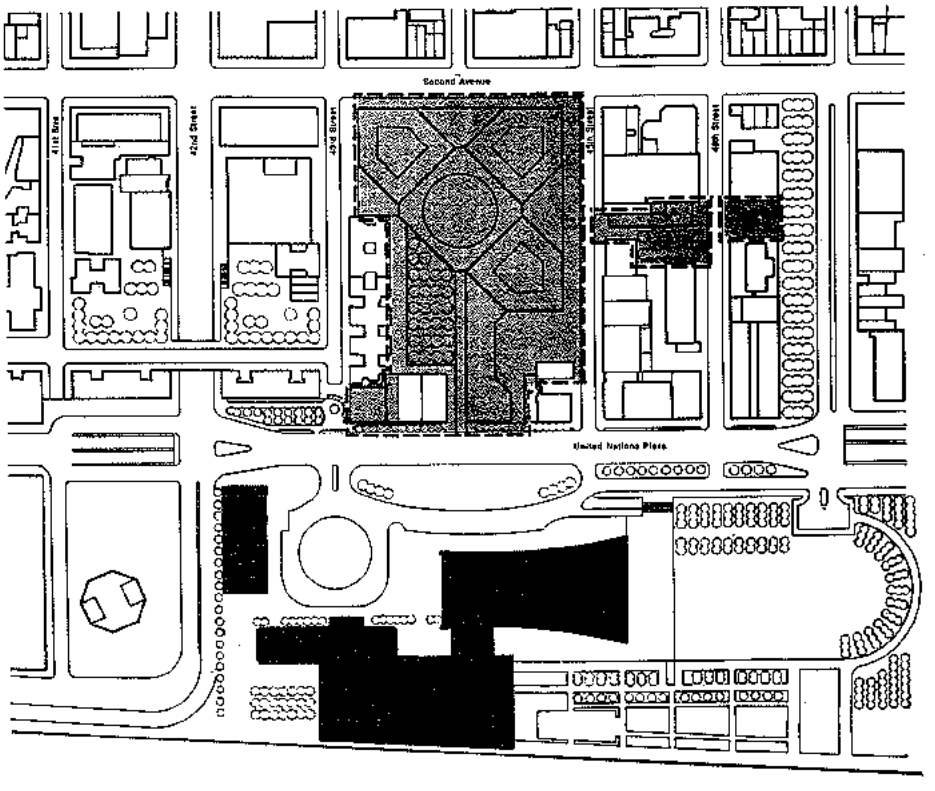
컬럼버스타워는 C. B. S.가 실패한 몇 잇슈를 성공시키고 있다.

: 어프로치와 입구의 집합적인 조우; 거대한 구조의 스케일과 작은 스케일의 디테일 사이의 밀착된 친화; 부지와 어프로치들에 이례적으로 잘 작용된 순수한 타워의 프로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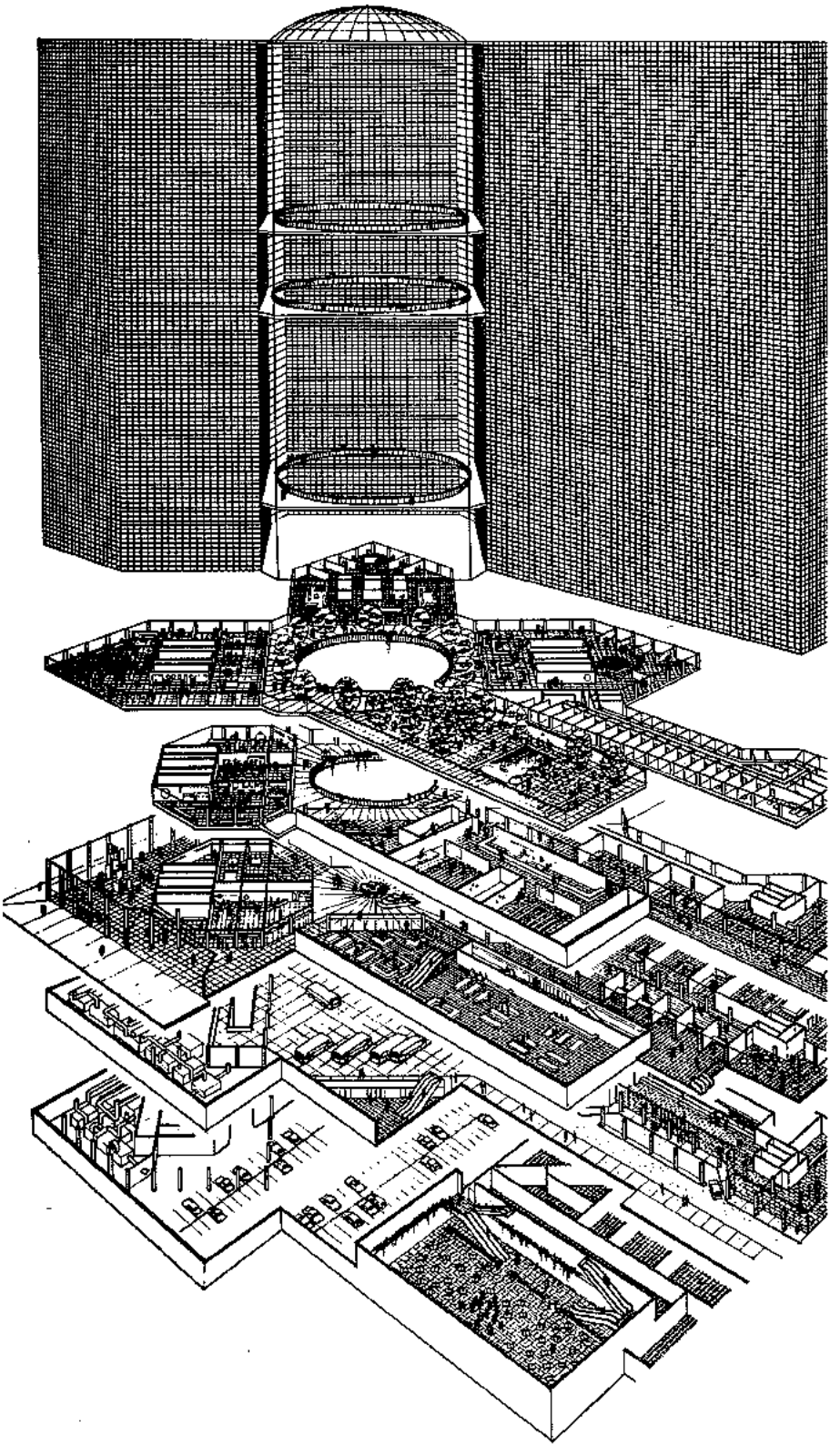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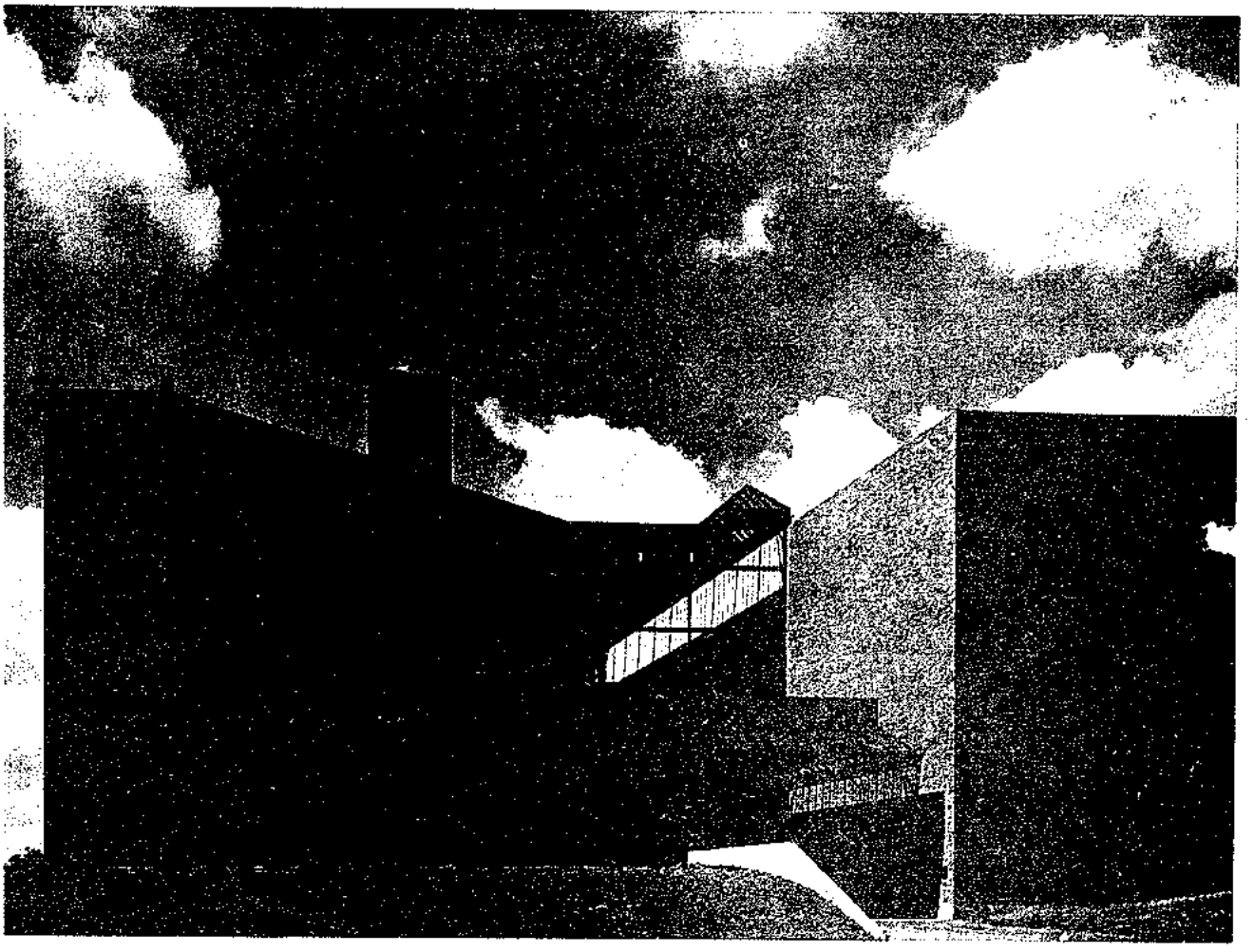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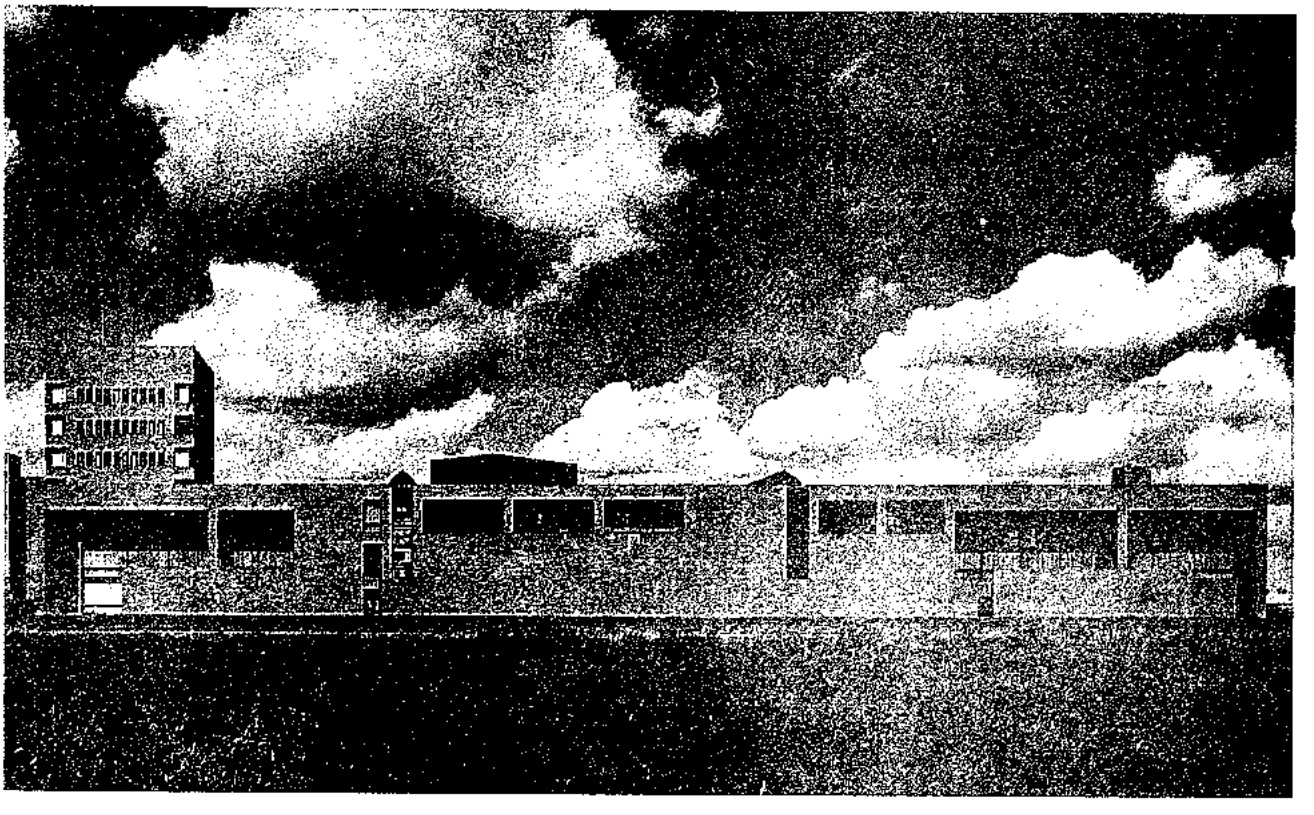

Second Avenue
41st Ave
42nd Street
43rd Street
44th Street
45th Street
United Nations Plaz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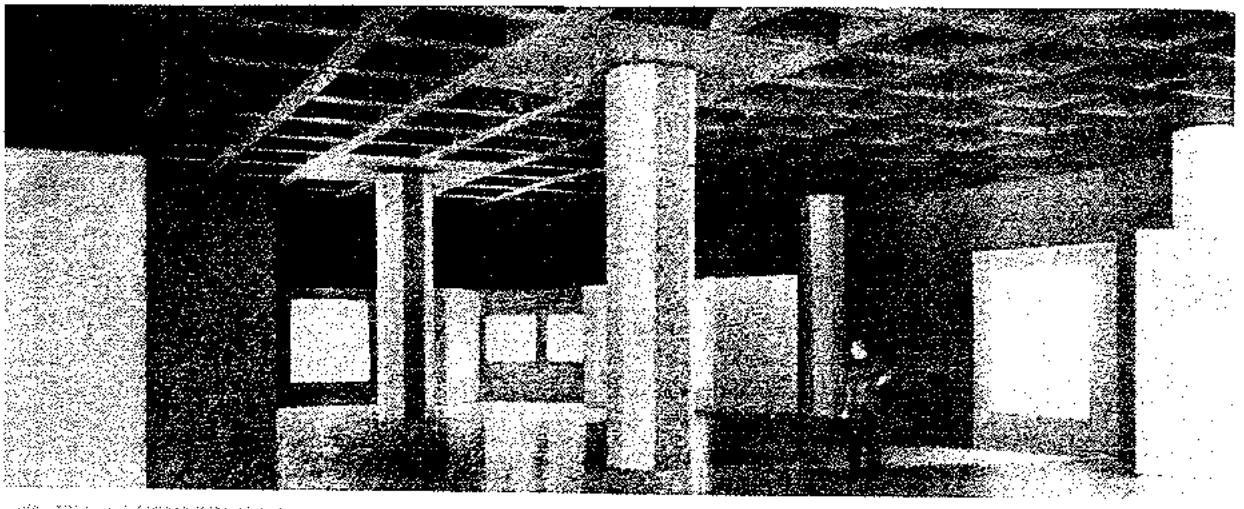
케빈로쉬의 건축은 확실히 새롭고 탁월하다. 그러나 그의 건축은 선명한 만큼 단순하며 그만큼 또 설명적이다. 컬럼버스타워는 C.B.S 보다 여러 많은 장점을 갖고 있으나 건축으로서는 미급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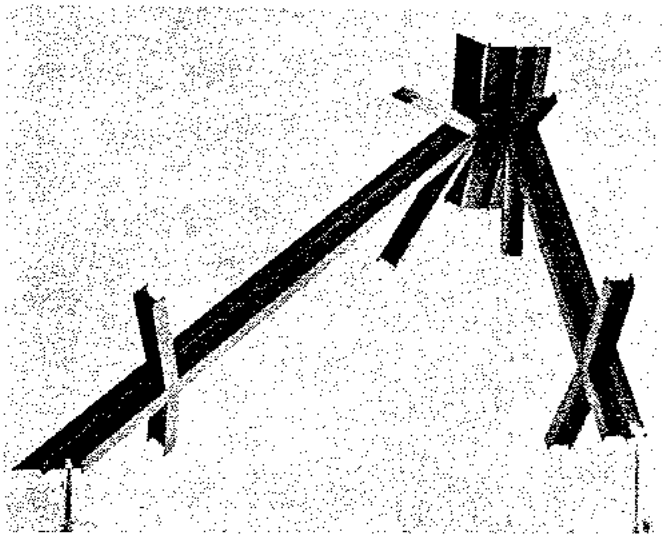
그 장점역시 설명적인 것이지 바로 그 자리의 필요와 요구에 타당한, 나아가 미래의 변화와 변경된 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 그는 오늘의 상황에 벽을 밴체 근원적인 해결—영원한 인간사회의 prototype을 모색하려고 한다. 그는 인간이 만든 질서와 자연의 어쩔수 없는 이원성 사이의 절연에서 비약을 시도한다. 그것은 로버트 벤추리의 야유처럼 "시지프스의 만용"일지도 모른다. 오히려 그의 독창성은 자기의 생각을 극단적으로 추진시키는데 있다. 그러나 역시 건축은 작가의 의지보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의 건축은 절연이고 현격이다. 그의 건축을 일관하는 내적천화력과 외부로부터의 성채화는 이미 도시가 그본질이 되어있는 현대건축의 새로운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일종의 발명에 속하는 것이다. 건축은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며 이미 있는 상황의 의지를 고유명사적인 상황—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창조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로쉬는 자신의 문법에 집착해 있고 대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건축은 인간과 자연 이 경우 인간은 명제를 뜻하며 자연은 부지라고 표현되어도 좋은 일종의 한계상황을 뜻한다) 사이에 새로운 장을 창조하는 것이다. 로쉬는 명제에 대해서만 너무 생각한다. 부지에 대한 그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언어적인 해석은 그의 건축이 갖는 한계를 말하는 것이다. 건축적 명제는 부지의 의미와 결국 한 사건으로 이르켜진다. 건축의 조직적 기준은 명제와 모든 기준의 전제인 부지를 대상화하는데서 성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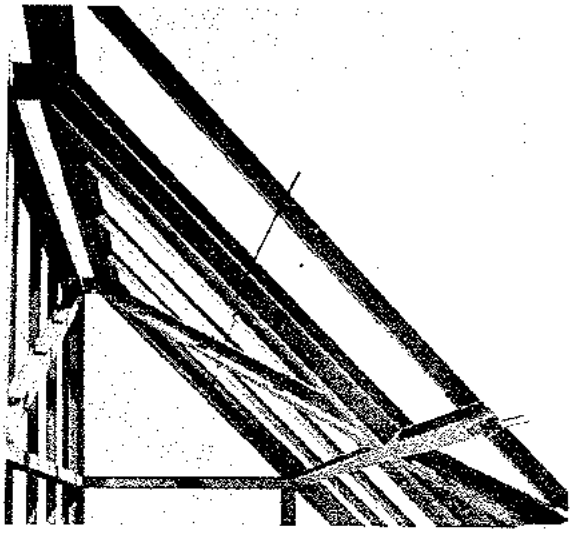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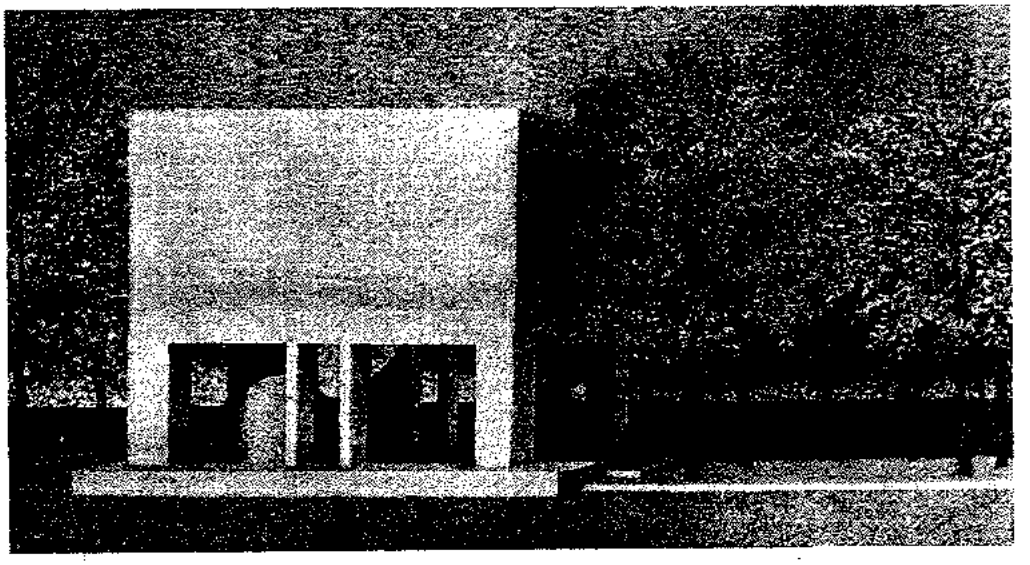


그러한 건축의 조직적 기준은 가치의 내재적인 폭인 테크니크를 통하여 한 시각적 현실속에 감각을 대상화하는데 근거한다. 그 감각소재는 항상 연쇄적으로 연결되어있으나 부분들은 동선과 일상에 의해서 감각군의 대상으로 결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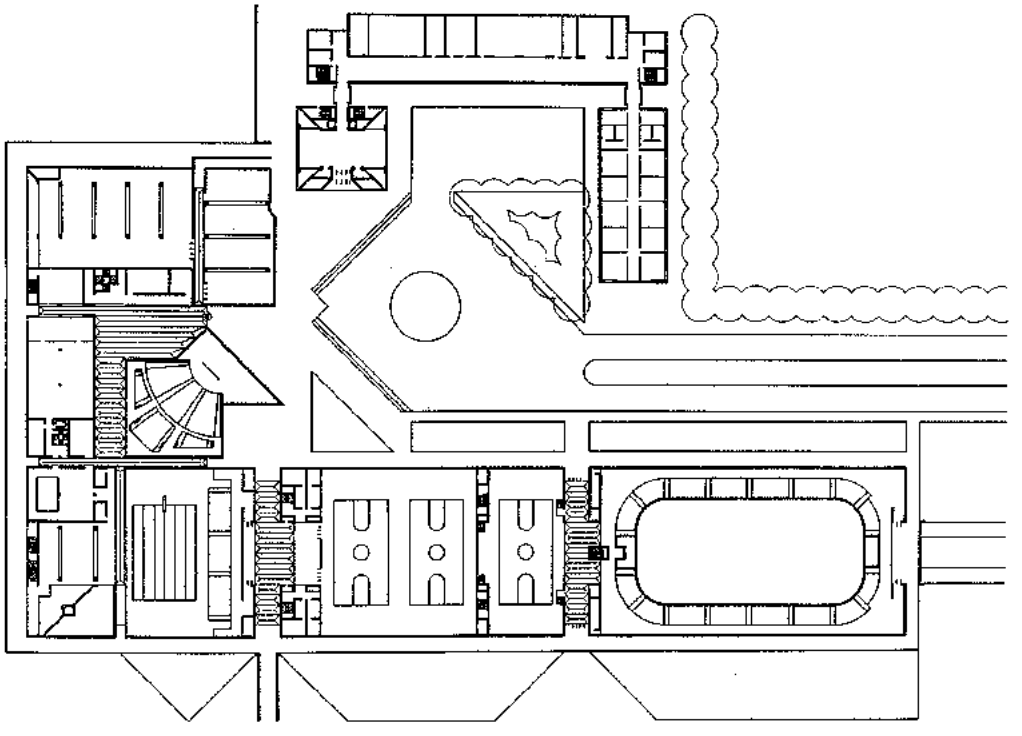
케빈로쉬는 창조적 이미지보다오히려 미리 지배된 관념의 이미지를 추구한다. 로쉬의 건축에서 높이 평가되어야할 점은 그 속에 경험의 한 과정이나 경과라는 감각의 동선이 반복적 일상속에 고유의 조직으로 내재되어 그 자체로 완성된 한 세계를 이루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거기서의 흐름과 연속에는 전체—내외로서 파악된 표상적 시각과 관련된 고정된 형식으로서의 복합적인 질서가 결핍되어 있다. 이것은 그의 연륜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나 아이러니칼하게 항상 미완의 대기였던 그의 정신적 스승인 샤리넨의 반복이기도 하다.

최근 케빈 로쉬는 자가가 갖고 있는 이상으로 말해지고 있다. 모두가 그의 건축에 대해서 얘기한다 정도의 차는 있어도 모두 그를 감탄한다. 로쉬는 물론 뛰어난 작가며 독자적인 세계를 이루고 있는 건축가다. 그러나 그는 많은 의미에서 완성된 작가는 아니다. 아직 그는 건축의 모든 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으며(작가의 의지와 그려낸 것 만이 건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건축은 그것을 포함한 다른 모든것과의 수많은 관련속에 이르려진다. L—C의 경우 그는 의지밖에서 더 많이 의도한다) 단지 어느 플롯트만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일본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감동이 아닌 감탄밖에 얻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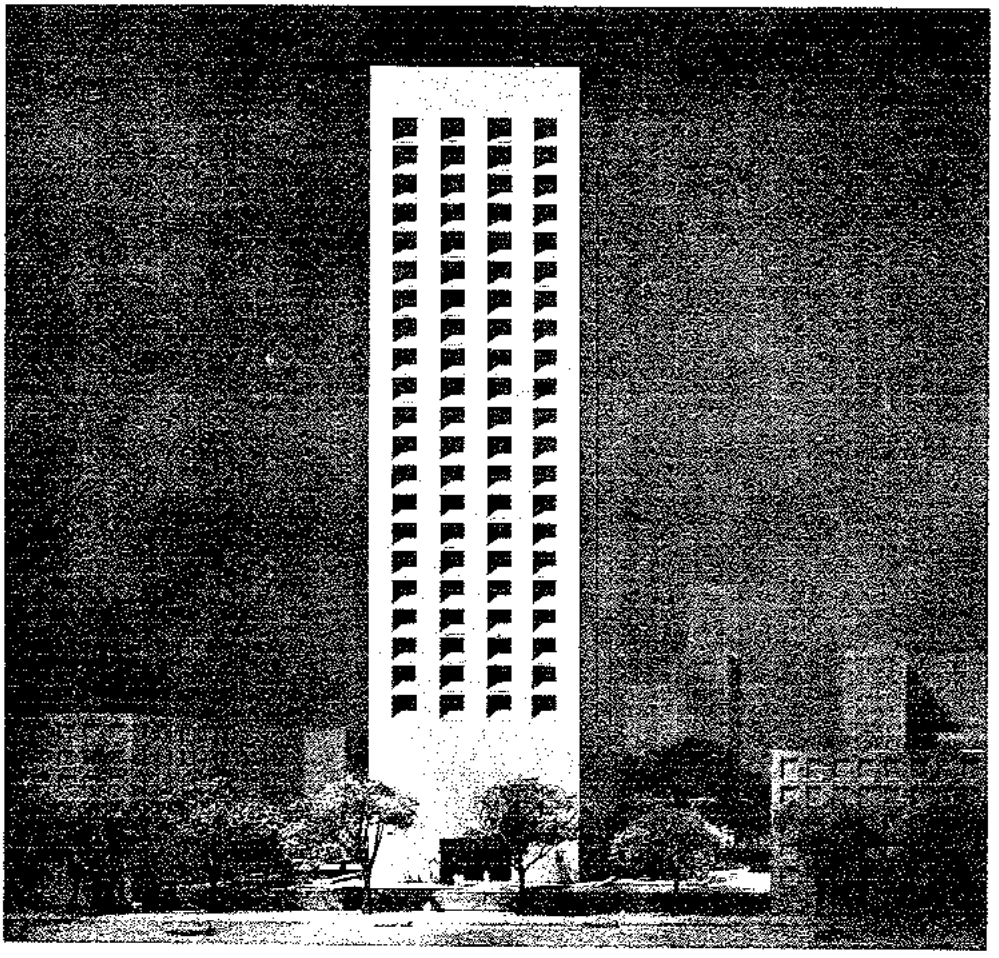
건축은 사건으로 구성되는 것 이 아니라 사건의 기호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기본주제는 여러 부차적인 주제와 표현 그리고 그 수많은 가타등등에 의해서 의미가 아르켜진다. 케빈 로쉬의 건축은 단일 주제만이 선명하게 부각되고 이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종속되어있어 그의 건축은 의도된 실체의 이미지만을 야기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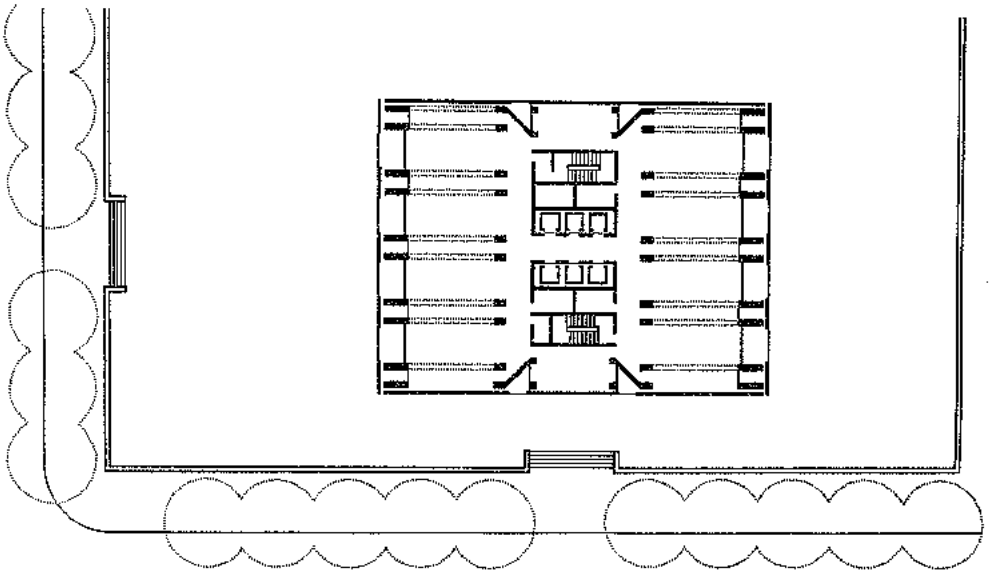


로쉬의 건축가로서의 뛰어난 자질, 그의 비례에 대한 확실한 감각, 18세기 후반의 프랑스의 이상주의적인 신고전파와의 친근성은 넓은 목장에 세운 작은 오린저리에서 가장 잘 나타나 있다. 로쉬의 디자인은 이런 종류의 가든 스트럭쳐에 잘 따라다니는 감상적인 생각이 전혀없다. 그것은 떠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창과 스크린이 장치된 이중벽으로 된 강하게 비례된 조적조의 입방체다. 스케일과 연결된 엄격한 비례속에는 자연에 없던 한 질서의 당당한 모습이 가득 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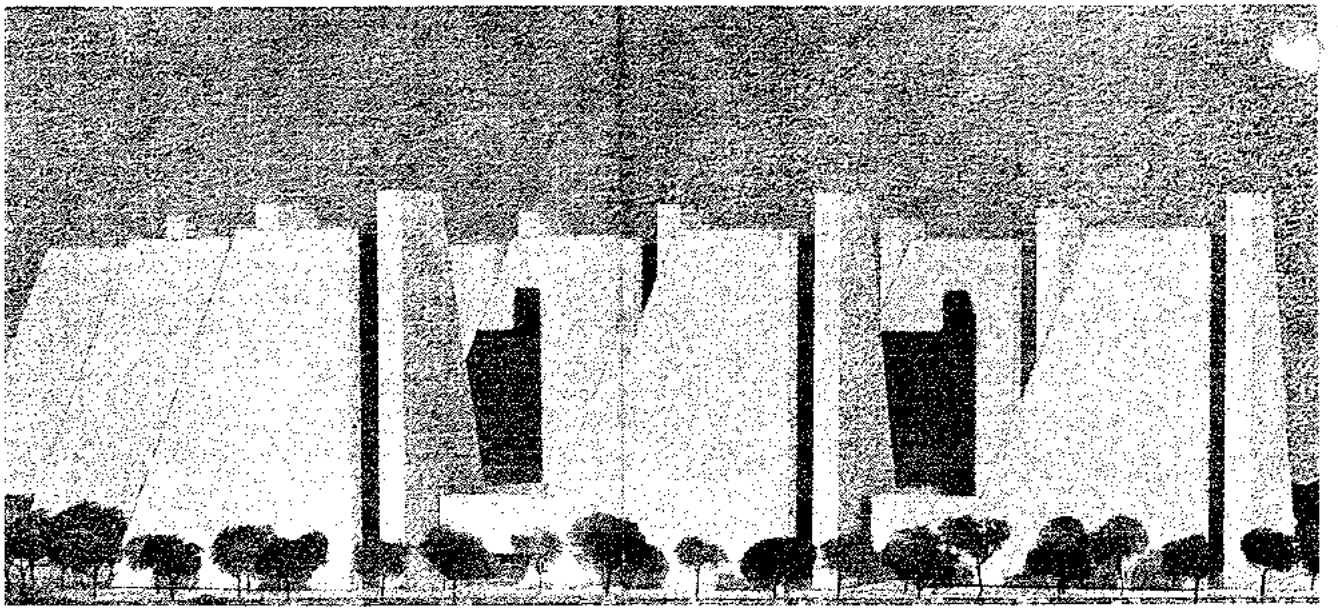
이 계획 안을 보면 로쉬의 재능이 갖는 다양한 폭을 느낀다. 두가지 형식의 내부공간—사무실 부분과 주차장 부분—과 마당이 엇갈리면서 이루는 전체로서의 형태 그리고 그것이 기존의 시가지와 연결되는 도시적 표현(의미에서 형태가 이르켜지는—건축적 표현은 오히려 형태에서 의미가 이르켜진다)은 도시에서의 건축이 갖는 질서의 위계를 세련된 기법으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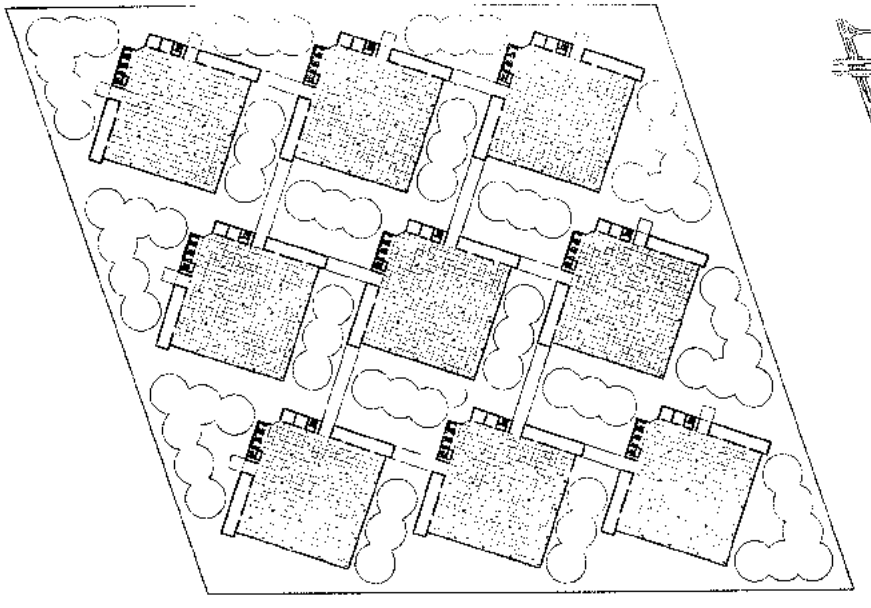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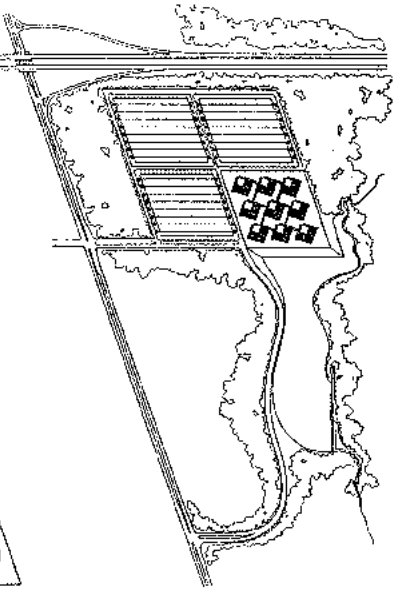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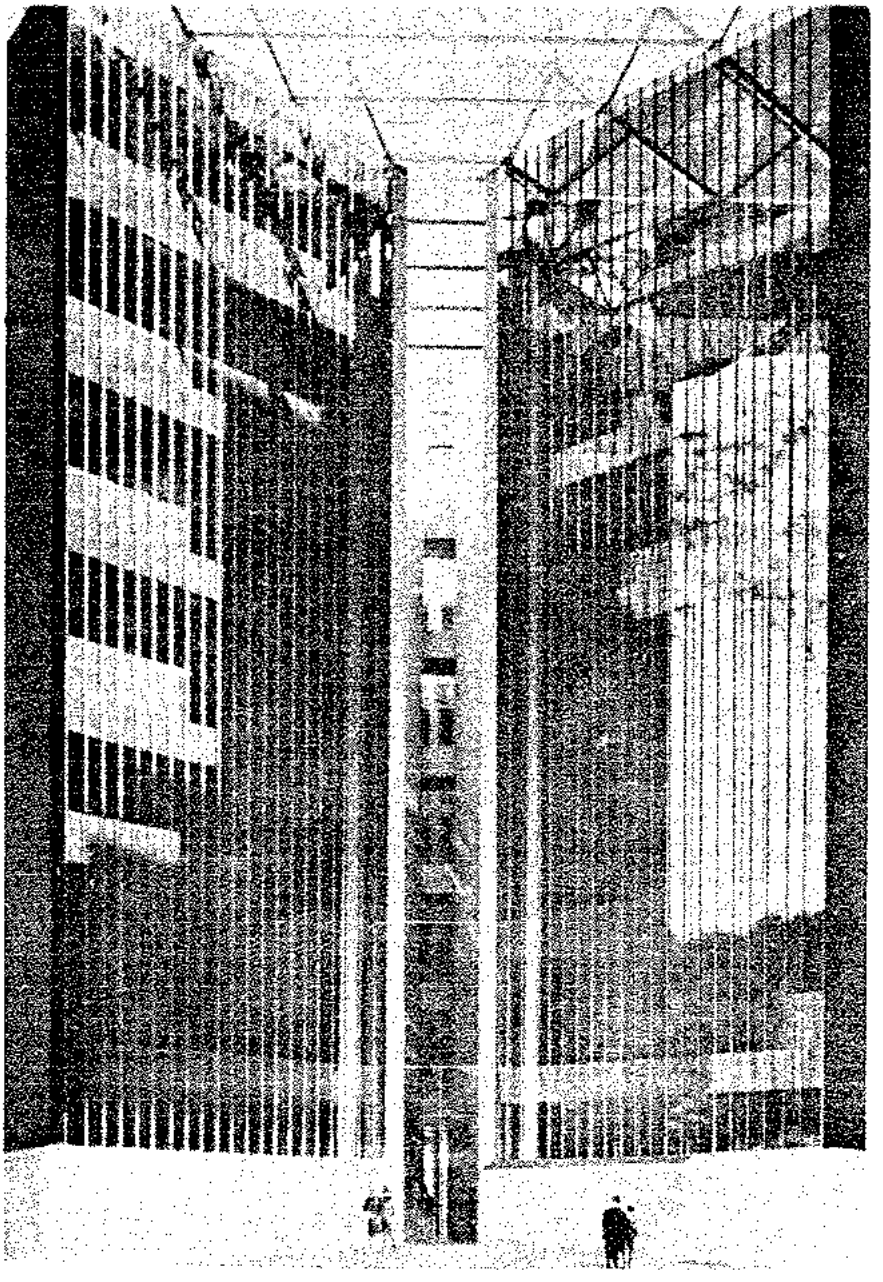
여기서는 고가한 설비시스템이 구조형식과 기능형식을 결정했다. 서비스 코어 양측에 대칭으로 바깥거둥과 안거둥에 의한 단위 공간 구조가 성립한다. 이 단위 공간구조와 코어사이에 설비닥트가 장치된다.

인디아나폴리스의 주간 고속도로변의 대학생명보험회사는 그의 가장 추상적인 개념인 동일 건물의 복합체로서 이루어진다. 스피드와 스케일을 배경으로 끊임없는 변화의 패턴속에 원시적 생명감과 커머셜리즘을 정착시키려는 그의 의지는 우선 분명히 성공하고 있다. 이 독특하고 조각적인 계획은 단순한 공정의 요구에서 출발했다. 회사측은 11만 aq ft단위의 성장이 필요했다. 아래가 40m 각 위가 20m 각인 차차 위가 체감되는 세 타워가 첫 단계에 이루어질 것이다. 기본 단위의 형식은 수직동선을 줄이기 위에서 40%가 아래 세 층에 있다. L자형 코어는 콩크리트며 사무공간의 경사진 벽은 거울이다. 실질감과 내부기능을 가려버리는 표면형태(이 경우는 이말이 실감난다)는 따라서 맷스의 시각적 볼륨이 박제되어있다. 이것은 확실히 아직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불안한 상업적 이미지다. 거대한 중성적 존재, 힘에 가득찬 얼어붙은 고성—이 건물은 플로드 니콜라 르두의 어떤 잊혀진 비죤을 상기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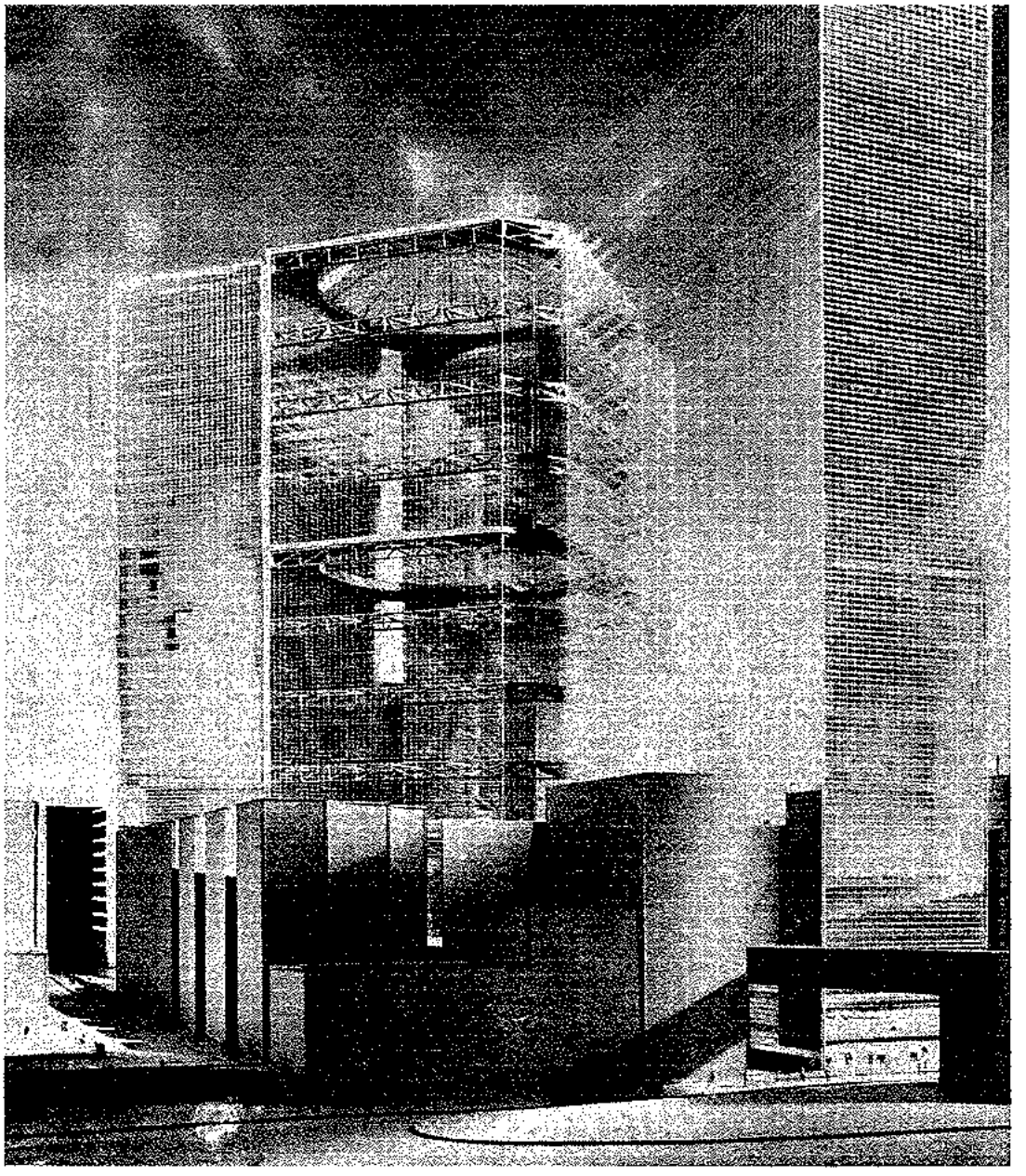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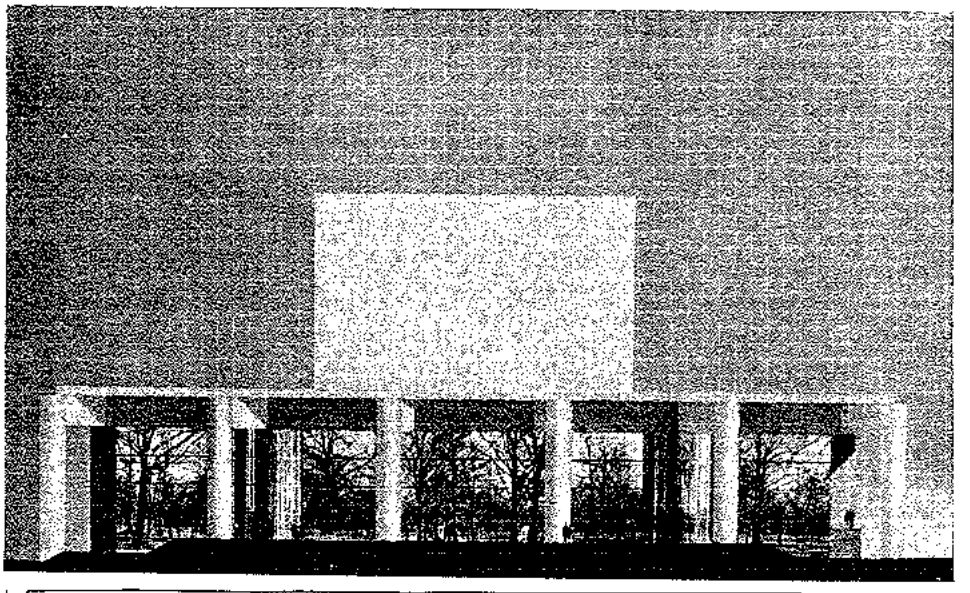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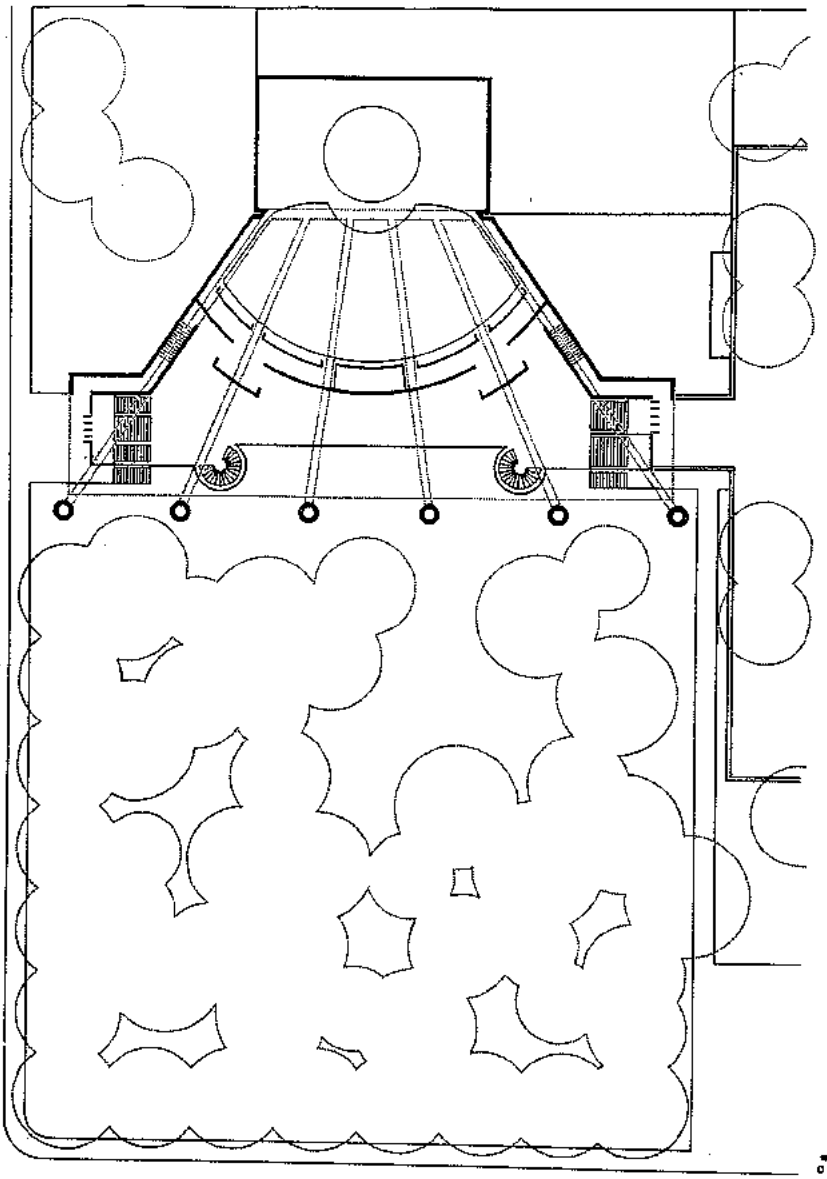
예각의 부지가 갖는 기하학과 그것이 요구하는 원형공간의 발견에서 모든 것이 연유 했다. 말굽형 평면이 갖는 불굴의 규칙성은 비록 그것이 원의 기하학의 거대한 중심공간에 닿는 집약적이며 극적인 입구를 만들기는 하나 융통적이며 덜 순수한 기하학에 대한 태도가 아마도 포기한 뒷 벽의 불규칙하고 특징없는 처짐으로 이어진다.

흰 원형의 반사유리벽과 7층 높이의 천개가 장대한 사각의 유리벽사이에 치켜지는 어프로치의 형비감은 대각으로 부닥치는 접경면의 반발적인 디멘션과 강하게 연속한다. 중정의 세 엘리베이터와 외벽끝까지 밀쳐진 중정의 대비가 인상적이고 세 엘리베이터가 천개를 받치듯 하늘을 치솟는 이미지는 안축 복도의 겹침과 내부공간의 강인한 윤곽에 큰 선을 긋고 있다. 중정 좌우로 사무공간이 겹쳐지면서 정면에서 대각으로 제껴지고 그 면이 예각에서 끝처버리면서 원형의 형태가 이어서 접속하는 전체구성의 전개는 다양한 플롯트를 암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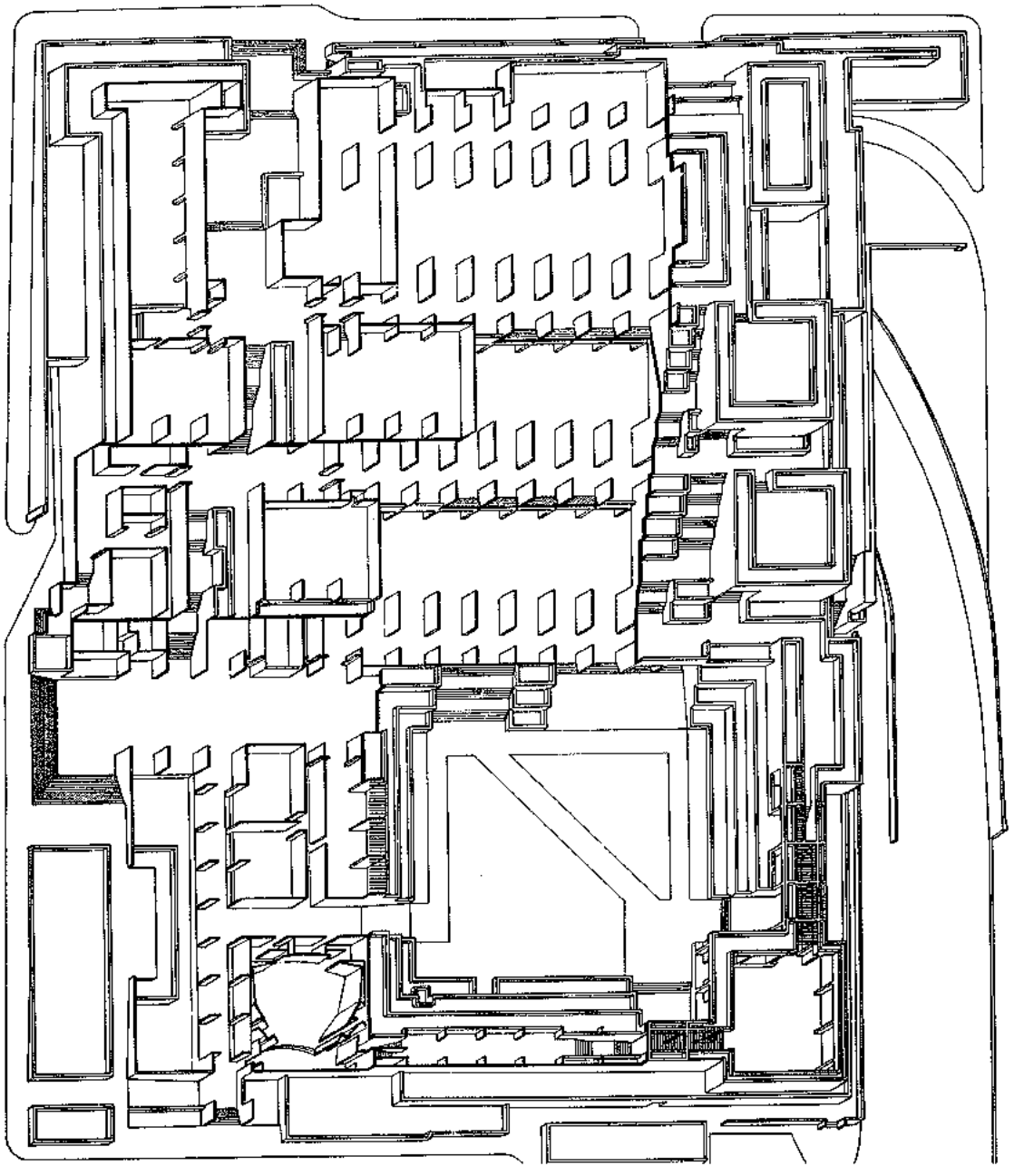
이 건물은 미시간대학의 마지막 남은 공원의 끄트머리에 세워진다. 대학의 요구는 좁으로 뒤덮힌 캠퍼스를 더이상 확대시키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로쉬는 이것을 정면으로 표현했다. 전면을 열주와 유리면으로 막을 쳐서 1450명을 수용하는 극장의 맷스를 없애버렸다. 태양아래서 반사되는 유리면은 수목들을 그 두배의 깊이로 덜라 열것이며 밤에는 야외극장같은 효과를 이르킬 것이다. 이 수법은 미스가 초기에 제속해온 코트하우스의 공간개념을 차용한 것이다. 미스의 코트하우스는 중정 뒷측의 벽들이 서로 상관되어 바닥과 천정을 공간의 요소에서 제거시켜 담들아 주거공간을 유팍 지우게 되는 일종의 보편공간을 이루는 것이었으며 이것들은 바닥과 천정이 시선의 상하에서 맞은켠 벽과 연결되는 단층에서 가능했던 방법이다. 그 후의 미스의 작품에서 보편공간의 방법은 디멘션이 달라지면서 다른 방법으로 성립되며 그 성격도 훤씬 다양한 것이 되어있다. 레퍼토리극장에서 로쉬가 택한 방법은 다섯층 규모의 단층적 처리다. 이것은 결국 어느 시각에서만의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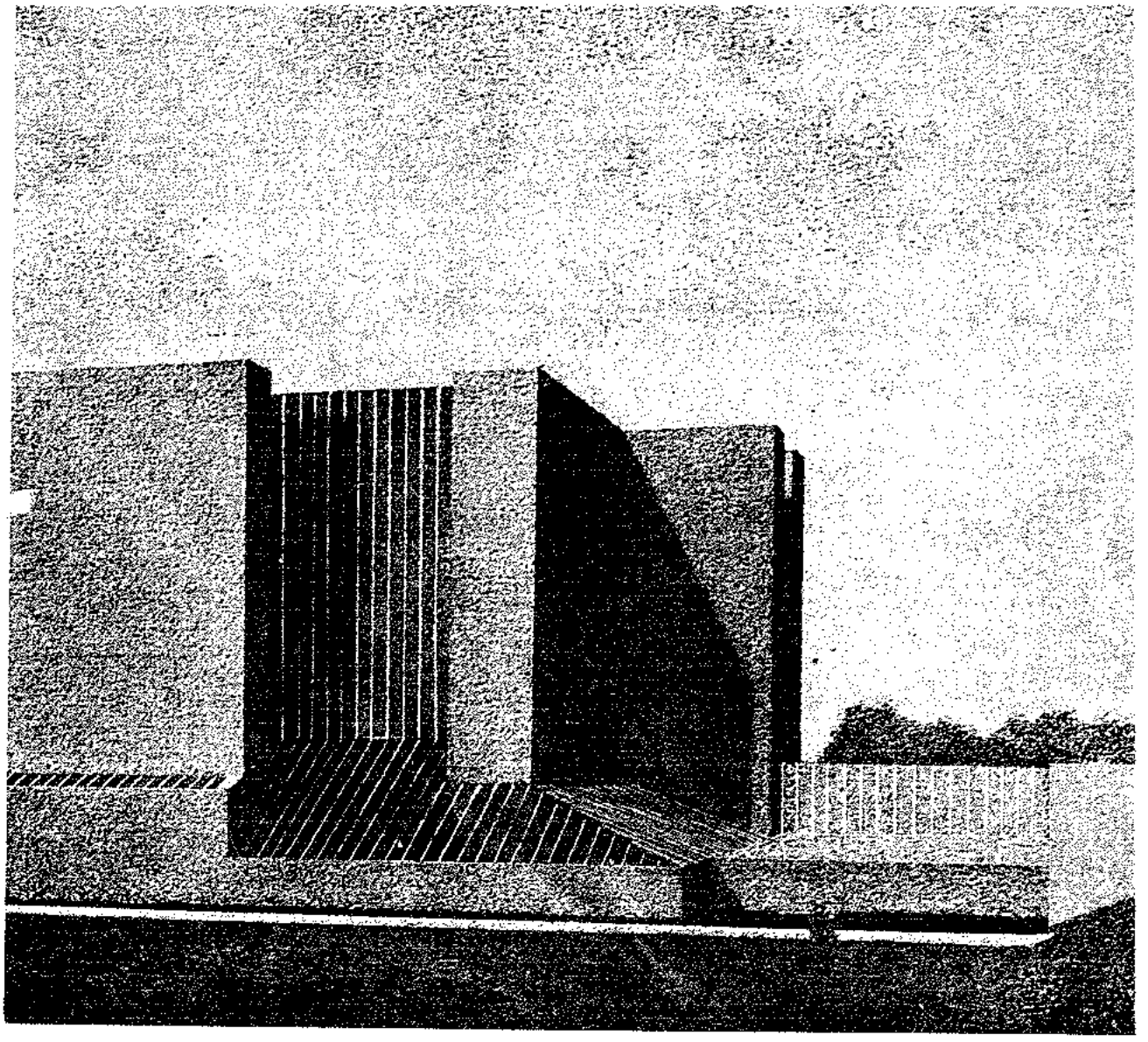




0 10 20 30 40 50

오우클랜드 박물관은 도시의 중심지역가의 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네 블럭이 세 박물관을 적응시키기 위해서 점쳐지고 있다. 로쉬의 설계는 '건물 아닌것'이다. 길에서면 수목으로 덮힌, 간혹 곳곳에 열려진 입구 이외는 아무것도 없는 비교적 낮은 콩크리트 판벽의 장대한 폄쳐짐만이 점쳐 보인다. 안에서 그 벽들은 공공공원이며 전정이고 그리고 박물관에 이르는 축인 단이진 정원의 랜스케이프로 이어진다. 박물관으로서의 성공은 아직 판단하기 어려우나 어반디자인으로서 그것은 대단히 야심적인 시도다. 비록 오우클랜드의 무비한 랜스케이프사이에 '건물 없는 것'을 만든 것에는 문제가 있을 지 모르나 (오우클랜드시는 필립존슨식의 사원을 요구했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도시계획의 연장으로서의 건축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 것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 디자인은 뛰어난 것이며 그 결과는 대단히 필요한 건축적 장소를 갖여야하는 종류의 건물들의 prototype 으로서 —그 자신을 익명속에 감추고 도시의 부분이 되어있는—가치를 가진 것이다.





오피스 빌딩이 큰 규모가 되면 한 커뮤니티 도시의 와중에 자리잡은 성인만의 그리고 일의 마을을 형성한다. 에트나 컴퓨터센타는 한 마을이 되어가고 있는 오피스 조직의 변화를 형상화한 것이다. 아랫 부분은 364ft×307ft다. 3,000명이 여기서 일한다. 제껴진 천창이 달린 아래 세층에 컴퓨터(명제를 표현하는 기능을 독특한 구성속에 두었다)와 부대시설이 있다. 상부의 네 층은 마당과 모서리의 거대한 반사유리면에 비쳐지는 거대한 개방된 사무실이다.

그래서 이 건물은 얼핏 보기에는 어둡고 탁한 성채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나 실지로는 밝고 환희에 찬 맷스와 내부 공간을 갖고 있다. 건물의 코어는 외벽에 장치되어 있다. 에트나 컴퓨터센터는 고층건물의 인간화를 건축적 표현으로 실현시켰던 라이트와 라킨빌딩의 방법을 더욱 구체적이며 설명적인 방법으로 다시 시도한 것이다. 라킨빌딩의 경우 거대한 건물의 중심공간은 각 층의 사무공간과 한 유기적 구성을 이루고 있는데 비해 에트나 컴퓨터센터에서는 건물의 중심공간이 외벽의 두께에 부닥치고 그 언저리에서 사무공간이 부속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극적인 공간의 변이와 전조에 동선의 플롯트가 형상화된 라킨빌딩에 비해 에트나컴퓨터센타는 지나치게 직설적이고 일회적이다.

70년대의 건축

후미히꼬 마끼

후미히꼬 마끼는 일본의 제 3세대인 소위 word-maker generation의 중심적인 인물이다. 동경대학을 졸업한 후 크랜브룩아카데미에서 공부하고 한때 와싱턴대학 건축과 조교수를 지냈으며 SOM과 셀프의 사무실에서 일하기도 했다. 일본에 돌아와서 한동안은 겐조 당게와 일했다. 1960년 메타볼리즘이 창설될 때는 오타까와 함께 유명한 group-form의 개념과 형식을 추구했으며 나고야대학의 도요다강당을 시작으로 개인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금까지의 작품활동 중 괄목할 만한 것은 기능공간의 유동적인 시스템과 프레임워크를 추구한 릿쇼대학이다.

설치보다는 말이 더 그럴듯한 word-maker generation 답게 이론체계는 정연하나 작품들은 아직은 선명적이다. 이 글은 신건축 금년 1월호 특집에 실렸던 글을 번역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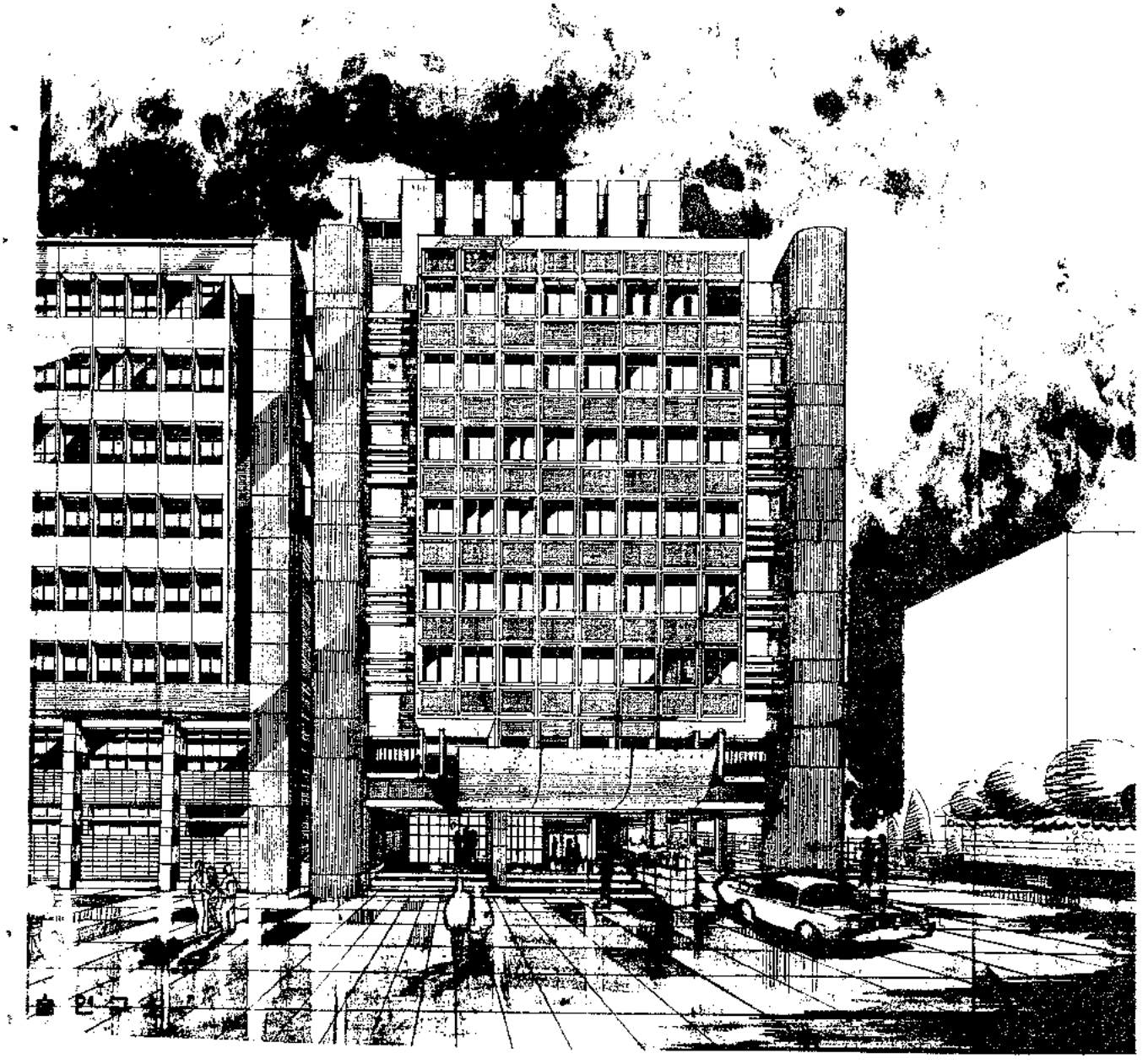
60년대는 긴것 같으면서 짧은 10년이었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 일본의 건축가들은 세계 디자인 회의의 준비에 바빴는데, 그런것도 어느덧 어제의 일과 같이 생각된다. 루쓸루, 칸, 스밋손 부처, 아스킨, 아마사끼 등의 건축가들이 일당에 모이고 또 개별로 활발한 의견의 교류가 있었다. 당시의 주역은 현재 아직 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 10년의 세월은 주역의 의미를 많이 변하게 했다. 현대의 건축가들은 벌써 그들의 일작일작에 주춤하지 않게 되었다. 라이트, 미-스, 그로피우스, 그리고 꼴르뷔제와 근대 건축의 위대한 선구자들이 무대에서 한 사람씩 떠나감과 같이, 우리들은 지금 큰 공백을 경험하려고 하고 있다. 우상으로서의 건축가가 점하고 있던 무게를 부정하려고 하면 할수록 동시에 새로운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 공백을 메꿀 충동이 생긴다. 현대의 건축의 특질은 목적의 다층화, 다양화 같이 그의 존재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건축가 한스·홀라인은 《건축이란 현대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미디아이고 따라서 모든 것은 건축이고 또한 모든 사람은 건축가이다》라고 선언했다(1968년 BAU지) 일견, 최대의 자유를 획득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현대 건축은, 실은 이 자유 때문에 건축가의 의식구조 안에 큰 불안정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마치 수년에 던져진 돌의 파문과 같이 차차 그 넓이는 소멸해 가는 과정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영역의 무한의 확대가 허락되면 허락될수록, 일방에 있어서 영역의 설정이 진실로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건축가가 어느 건축을 디자인으로 해서 "오퍼레이트"해 가는데 있어서, 이론적으로 일치하는 때의 설정이 문제다. 말하자면 현대에 있어서는, 폐절의 건축도, 영원한 건축도 같이 가능성으로서 허락되고있다. 그러나, 만일폐절의 건축의 논리가 조립 된다고 하면, 논리의 설

정과 오퍼레이션이 허락되는 영역이 대체 무엇인가가 문제이다. 영역의 결정은 사고의 토양이다. 그러나 동시에 영역을 주체적으로 선택해 얻는 건축가의 가능성은 더욱 더욱 적어지고 있는 것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다. 결국 영역의 설정의 방기상에서의 자유의 획득 밖에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대부분은 이미 어떤 종류의 건축에 있어서의 생각하는 것이 온갖 목적에 대해서 가능하고, 뜻이 있다는 가설을 믿지 않게 됐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mega structure는, 60년대의 건축가들에게 있어서 popula한 테—마 였었다. 도시의 고밀도화, 기술의 진보는 일견 이러한 테—마에 충분한 객관성 타협성을 주고 있는듯이 보였다. 그러나 문제는 how big에 있는 것이고 그것 자체, 영역을 명확히 하고 비로서 존재 이유가 분명하게 되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하면 고밀도화된 도시에 있어서 행동적인 사람이 요구하는 공간은 구태여 고도로 체라럭키—화한 것이라고 할수 없다. 도리어 꺼꾸로, 간단한 콜택숀을 가진 보다 유연하고 루—즈한 결합에 의해서 성립하는 공간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영역이 넓어질수록, 논리적으로는 다수의지의 참가와 서로 부딪히는 것이 가속도적으로 증대하고, 유효한 방법은 반대로 건축적인 것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참가, 확률, invisbility, 폐절이 비 건축적인 인자로서 등장한다. 알랙산더는 이 비 건축적인 것을 공간에 관련시키려고 하고 아—키그람은 그곳을 빠져 나간 극한을 깊이 보려고 한다. 확대한 영역에 있어서 건축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소위 건축"에서 멀어졌다. 그러나 현대는 동시에 영역의 한정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백또드를 안으로 돌리는 것으로 해서, 우리들은 새로운 관계를 환경과 형태와 공간과 재료 안에서 찾아보기 시작하려고 한다. 루—어와 벤츄—리는 일견 eclectic라고도 생각되는 형태적인 모순을 그대로 밖에 노출하는 것으로 해서 반대로 그러한 어루로—치가 성립하는 영역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하고 있다. 홀라인의 로망도, 스탈—링의 詩도, 지극히 엄격한 부분의 집적 위에 만들어져 간다. 홀라인의 말하는 누구나가 건축가적인 가능성은 반대로 더욱 엄하게 건축가로서 있을 수 있는 자격을 현실의 행위 속에서 정해 버리려고 하는것이다 이것은 지극히 어려운 자격 시험을 만들어 두고, 입문 후에는 엄격한 선정을 하는 방법에 비교할 수가 있겠다. 최대의 자유와 최대의 구속은 언제나 표리에 존재하는 것이다. 적어도 외면적으로는 자유스러운 발상과 의도의 단계에서 건축의 가능성은 무수히 있는 것이 암시돼 있다. 따라서 적은 운동은 무한히 전개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기왕의 주역이 연출한 운동과는 내용적으로 자극히 다른 것이 되는게 틀림없다. 도리혀 그것은 주역이 존재하지 않는 무대라고 해도 좋을지 모른다. 자유이고 동시에 엄격한 의식의 세계가 어떠한 얼매인 10년간을 맞들어 가는가는 도저히 알수 없다. 무수한 실이 몇개 인가의 명확한 끈에 의해서 묶이는가, 또는 무수한 실 그대로 군생해 가는가, 아마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적어도 출발점에 있어서 지극히 자유인 것은 우리들을 optimist로 해서, 일방 영역의 설정에 있어서, 실현의 과정에 있어서 극복하고, 내포해 가지 않으면 안될 문제의 다난함, 방법의 엄밀함에 관한 한 pessimisstic한 미래인 것이 아닐까.

회원작품

가정법원청사

이 종금



위치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소문동 소재 법원 구내

건물의 규모

지하층		944.60M²
1	층	741. 50
2	〃	801. 50
3	〃	84.1 50
4	〃	849. 50
5 ~ 8층		3,417. 20
pent	층	340. 10
장차 계획		
9 ~ 10층		1,708. 60
합	계	9,644.50 M²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 — 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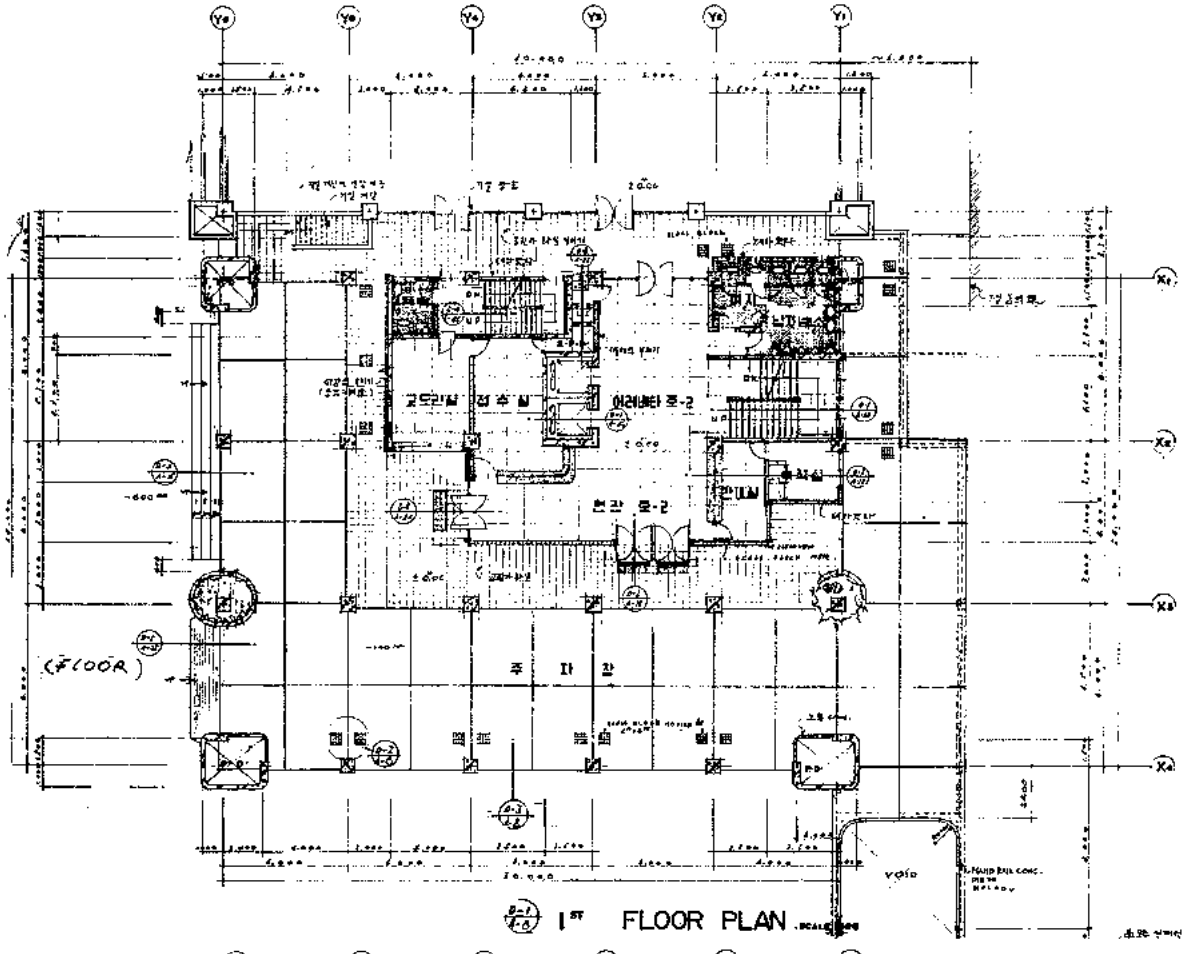
설계 : 이 종금

협조 : 이 철호, 양 재국, 임 빈, 차 정식, 권 익대, 김 웅남, 이 윤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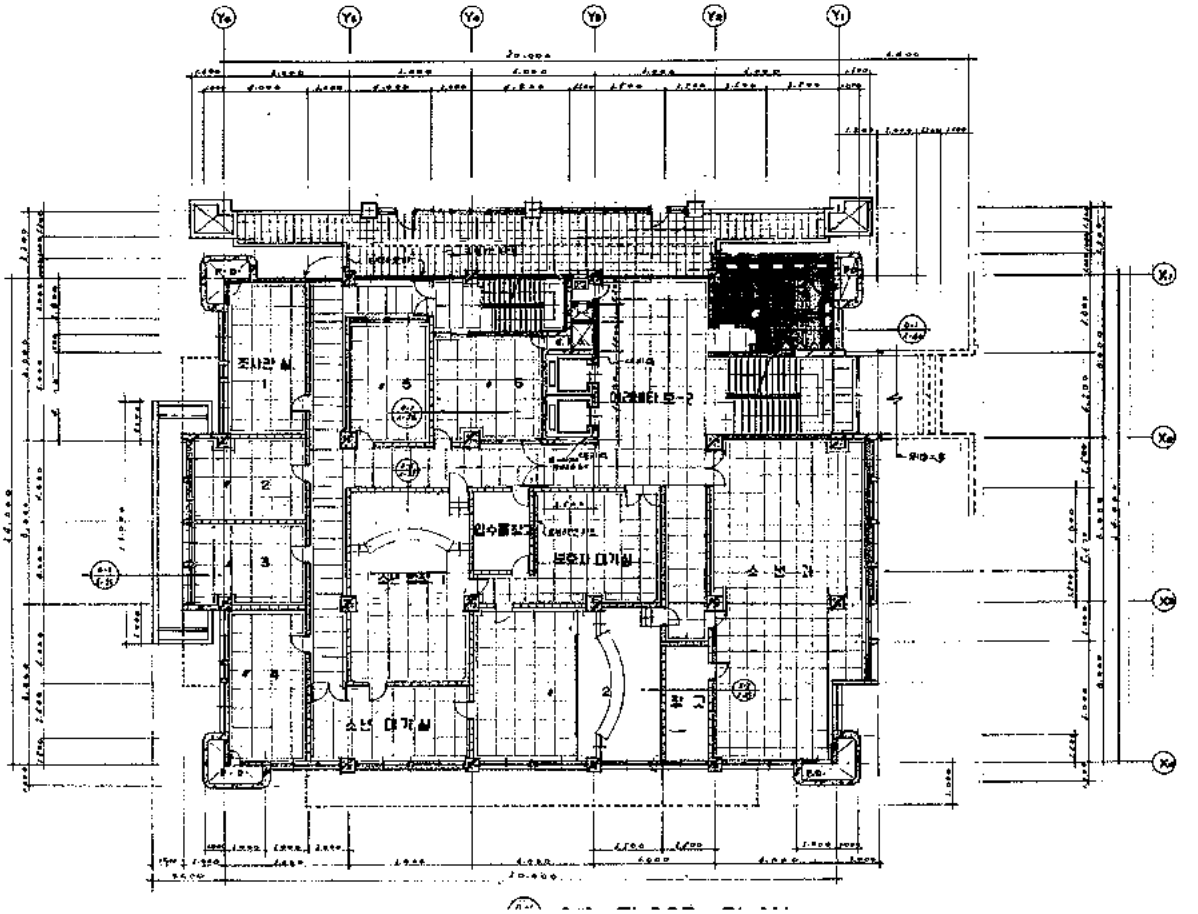
구조 : 정 재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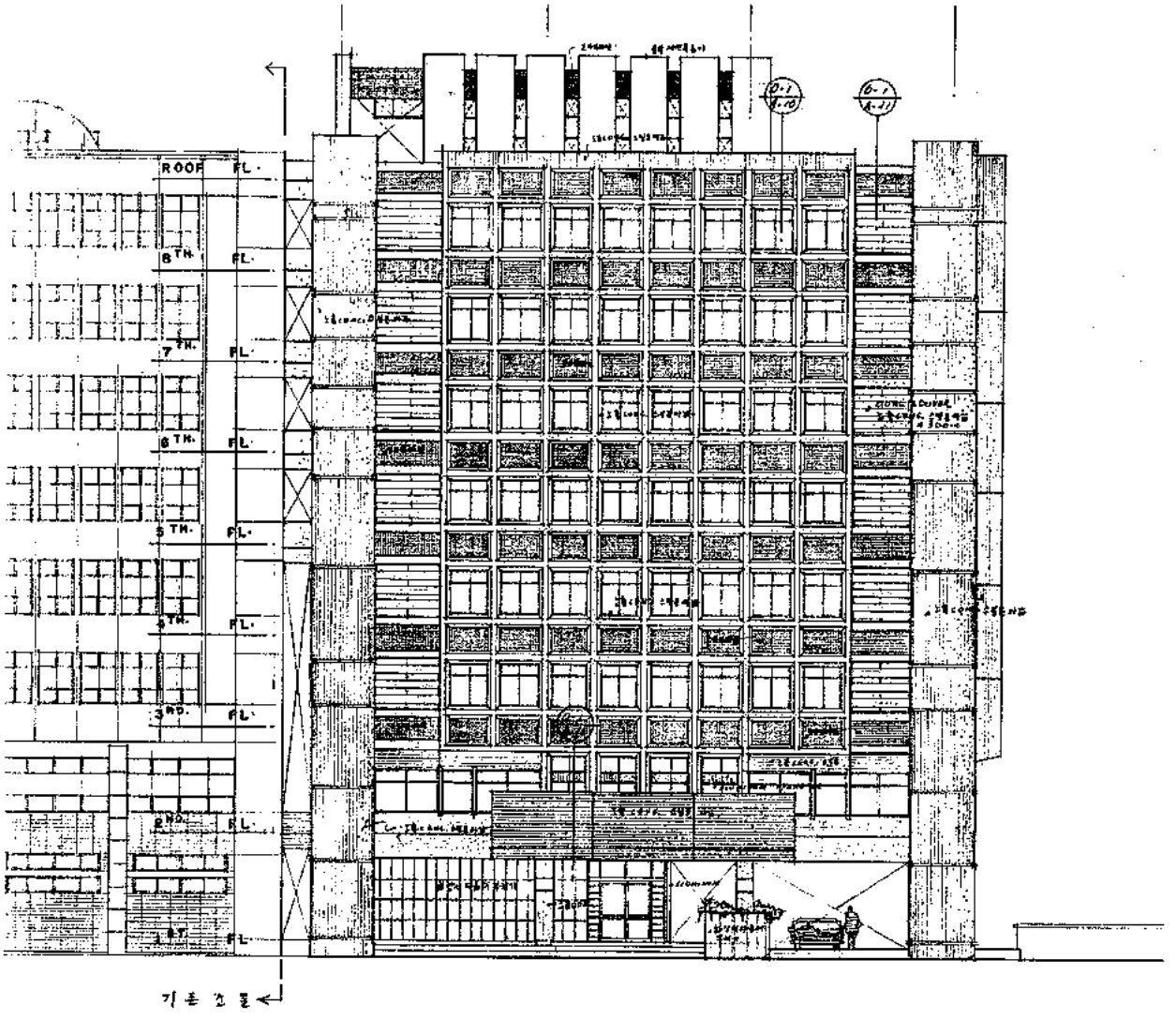
위생난방 : 이 섭고

전기 : 조 봉현



1ST FLOOR PLAN





가정법원은 가정의 번뇌를 풀어주고 소년소녀의 과오를 바로잡아주는 특수법원인 고로 법원 건물이 흔히 갖고 있는 위엄있는 외관보다는 친근감을 주고 명랑하며 생기있고 무엇인가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본 청사는 현 법원 건물과 바로 이웃하여(약 3m 간격을 두고) 건립되며 특히 5층 이상은 민사 형사법원에서 사용하는 등 좀 형으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의 기능처리 뿐만 아니라 특히 외관에 있어, 옆 건물의 그것을 무시할 수 없어서 고심을 많이 겪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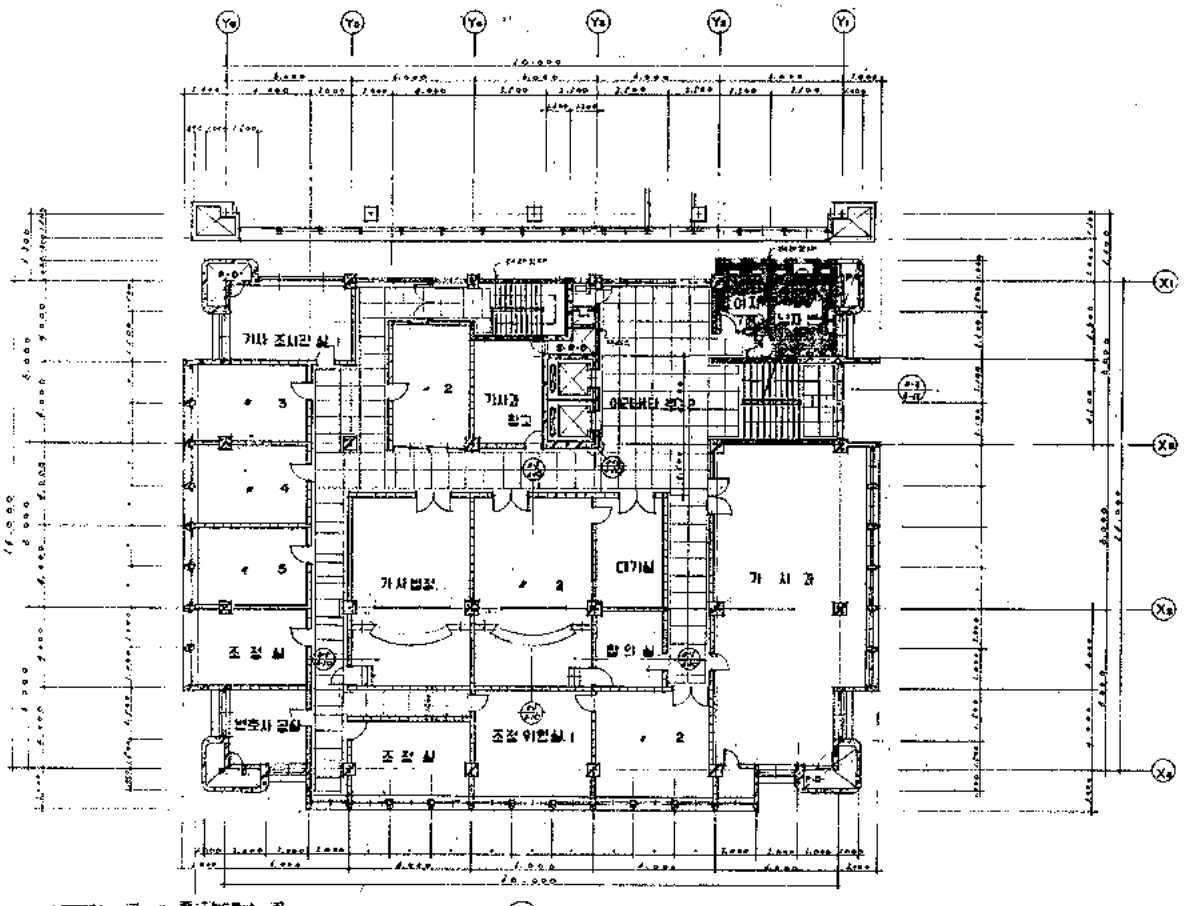
무엇인가 비례가 맞지 않고 축을 잃은듯한 구 건물의 pattern에 어떻게 하면 새로운 질서를 불러 일으키주면서 두개의 건물이 섞더 바약된 하나의 건물로 완전히 융합이 되도록하느냐 하는 것이 연구 과제였다. 구 건물의 pattern을 되풀이 할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첫째 1층이 차도로서 약3 이상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 놓고 나면 기형이 되고 만다. 만약에 강차 2개층이 더 증축되어 건물의 높이가 달라지면 더욱 심각해진다.

둘째 가정법원이 갖는 성격이 조금만이라도(여기서 조금이라고 하는 이유는 규모나 내용으로 보아 구 건물이 주체요 본 건물은 종체이기 때문임) 노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건축이란 그 건물의 용도를 주제로 한 조형예술 작품' 이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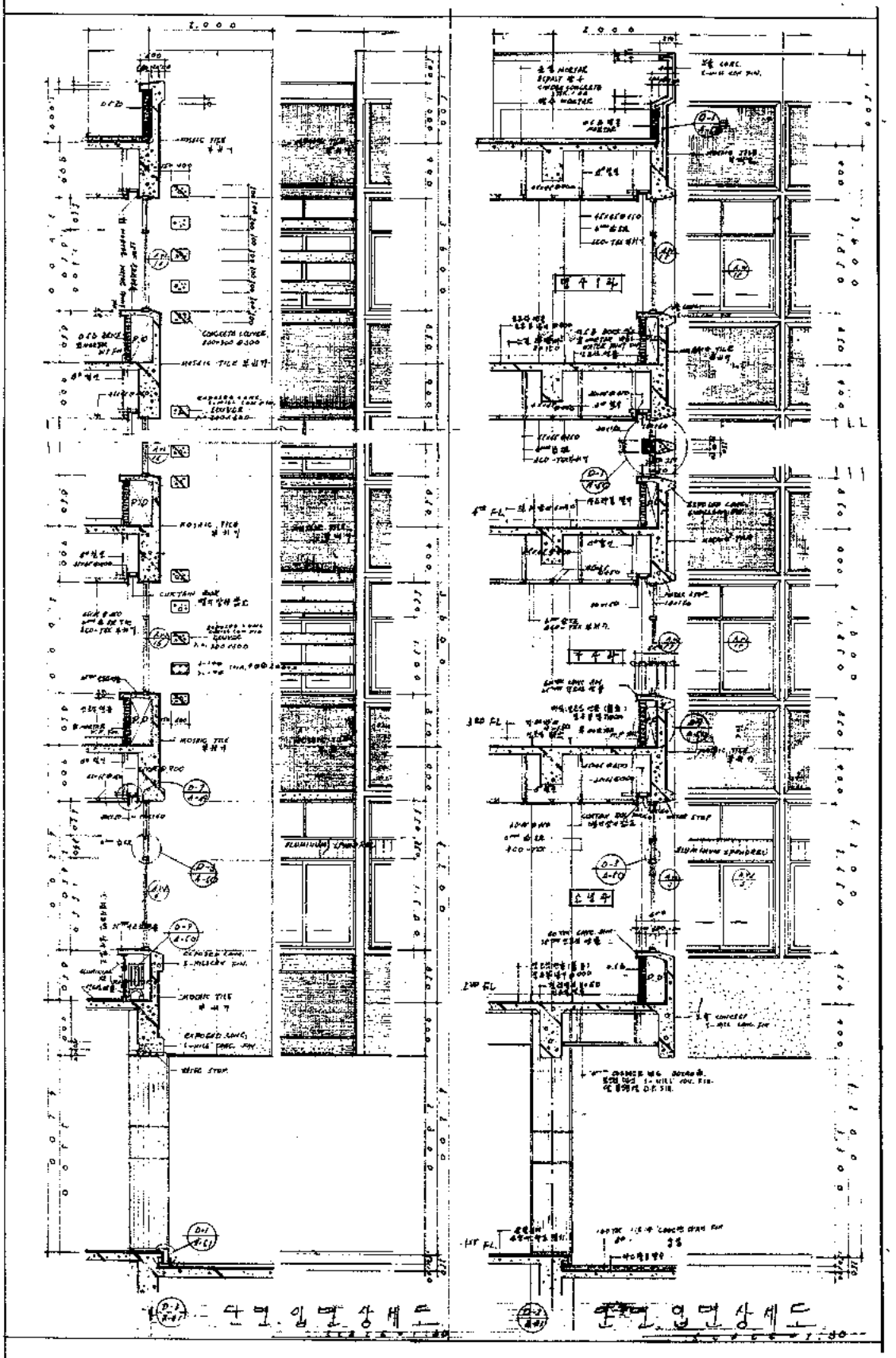
우리가 Study한 과정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구 건물은 1차방정식으로 풀어서 신축건물을 2차방정식으로 정리한 더, 이때 공통인수를 찾는다.공통인수(共通因數)는 点, 線, 面, 形体를 이다.

이들 공통인수를 다시 微分하여 신축건물에다 積分으로 전개한다. 이때 얻은 답이 커질수록 극적인 조화를 이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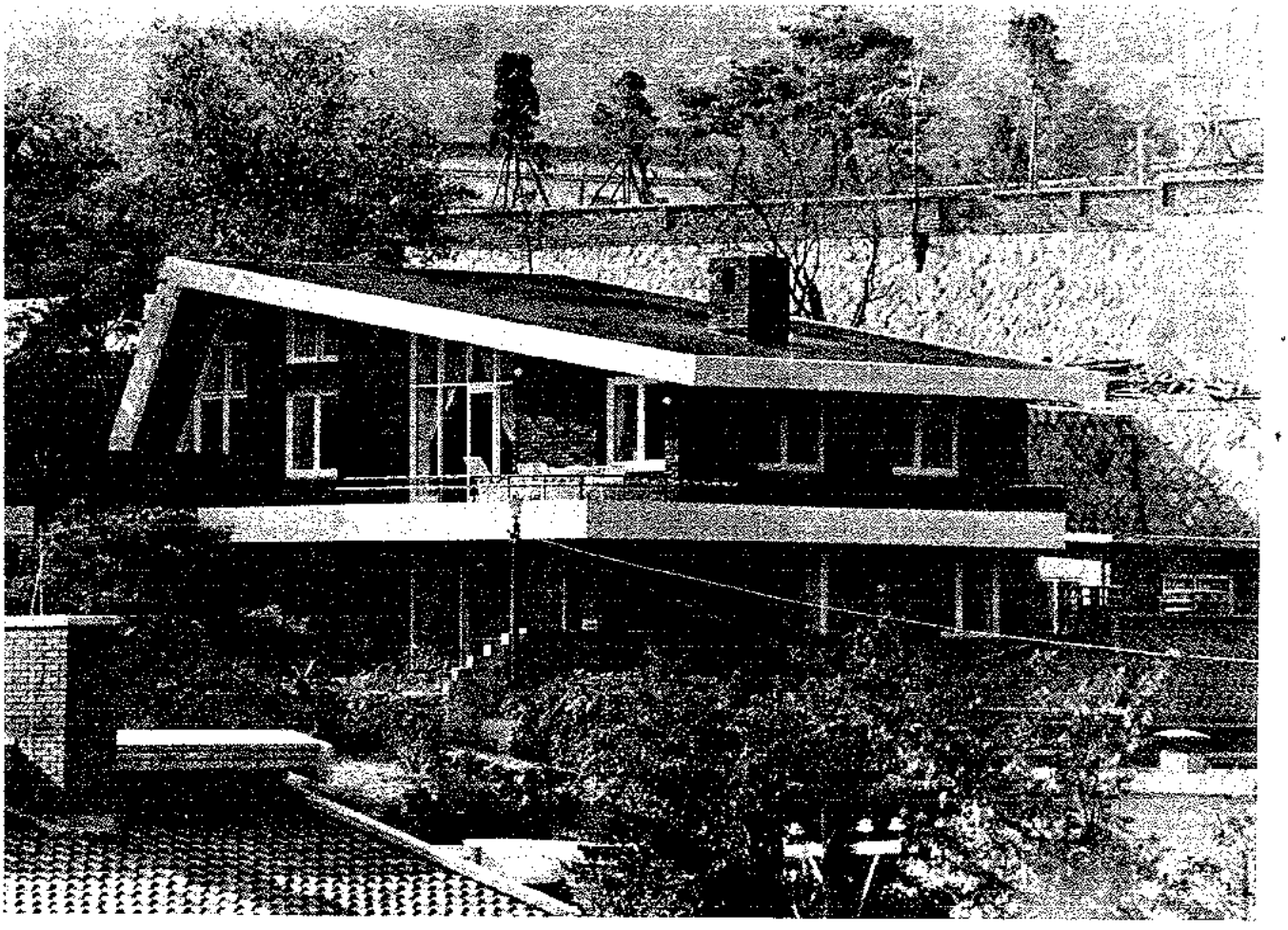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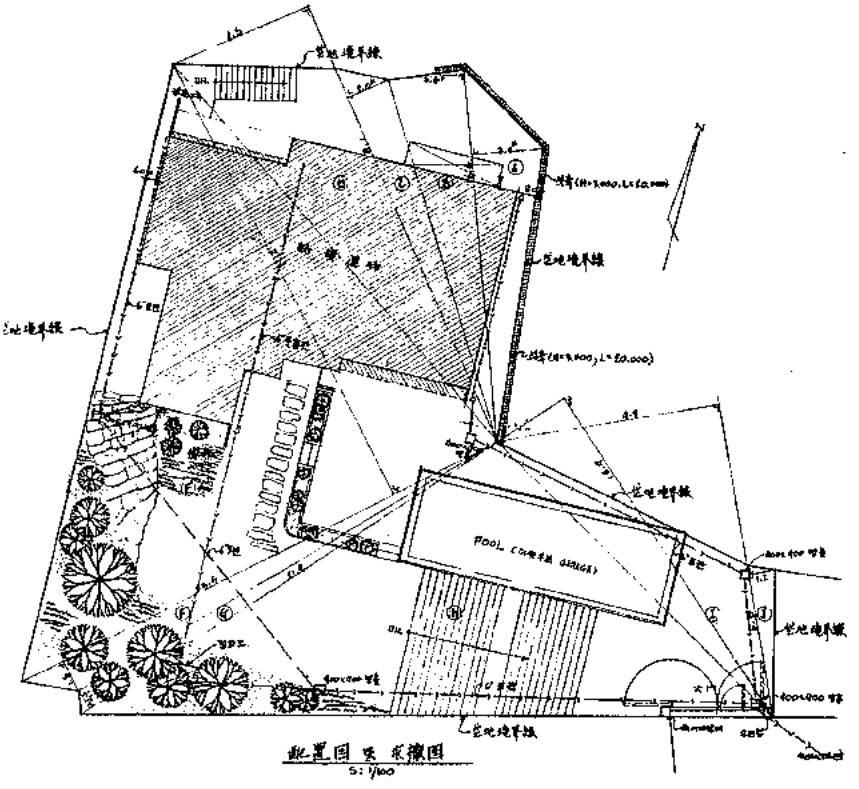
3RD FLOOR PLAN



S씨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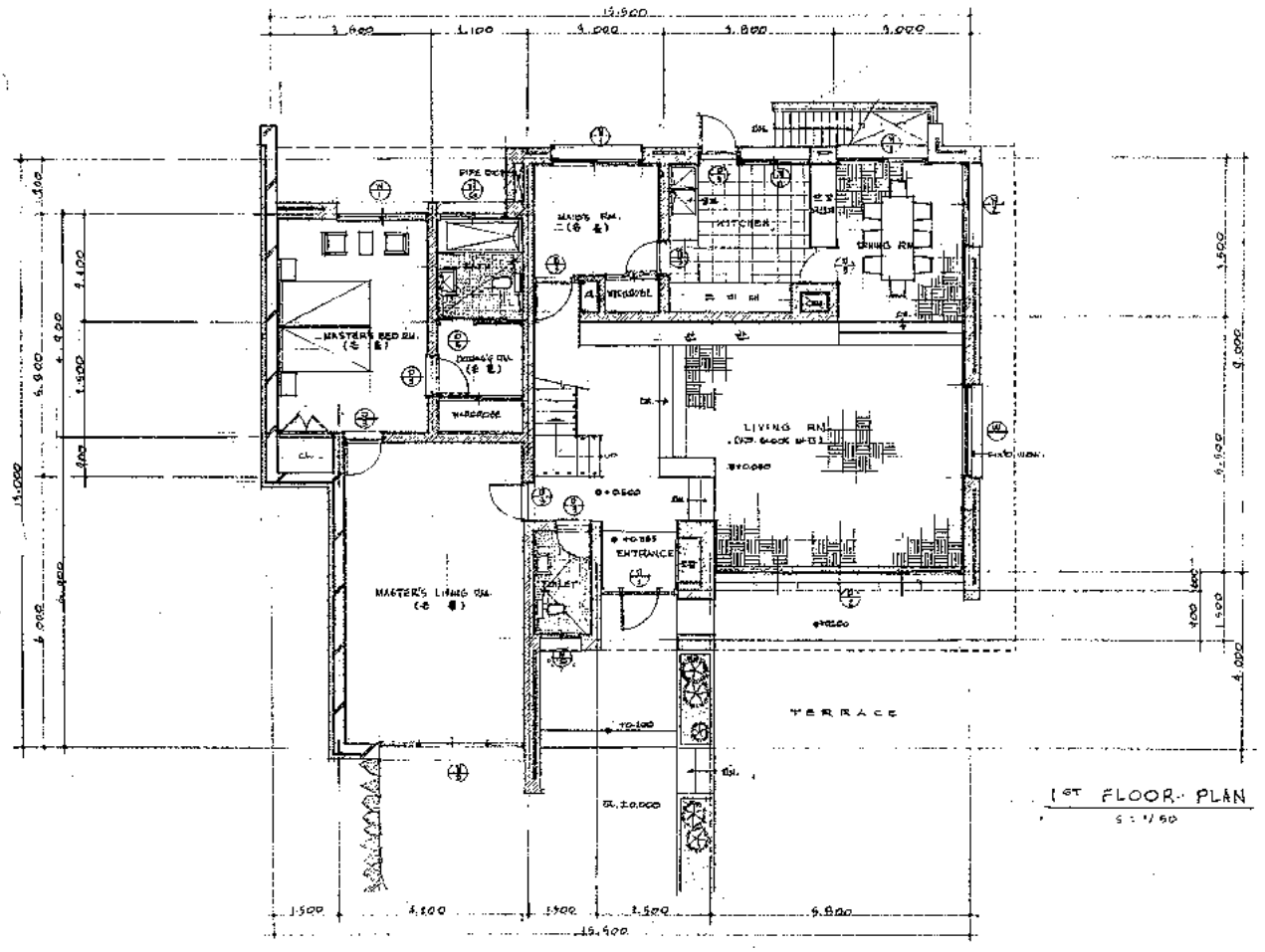
부 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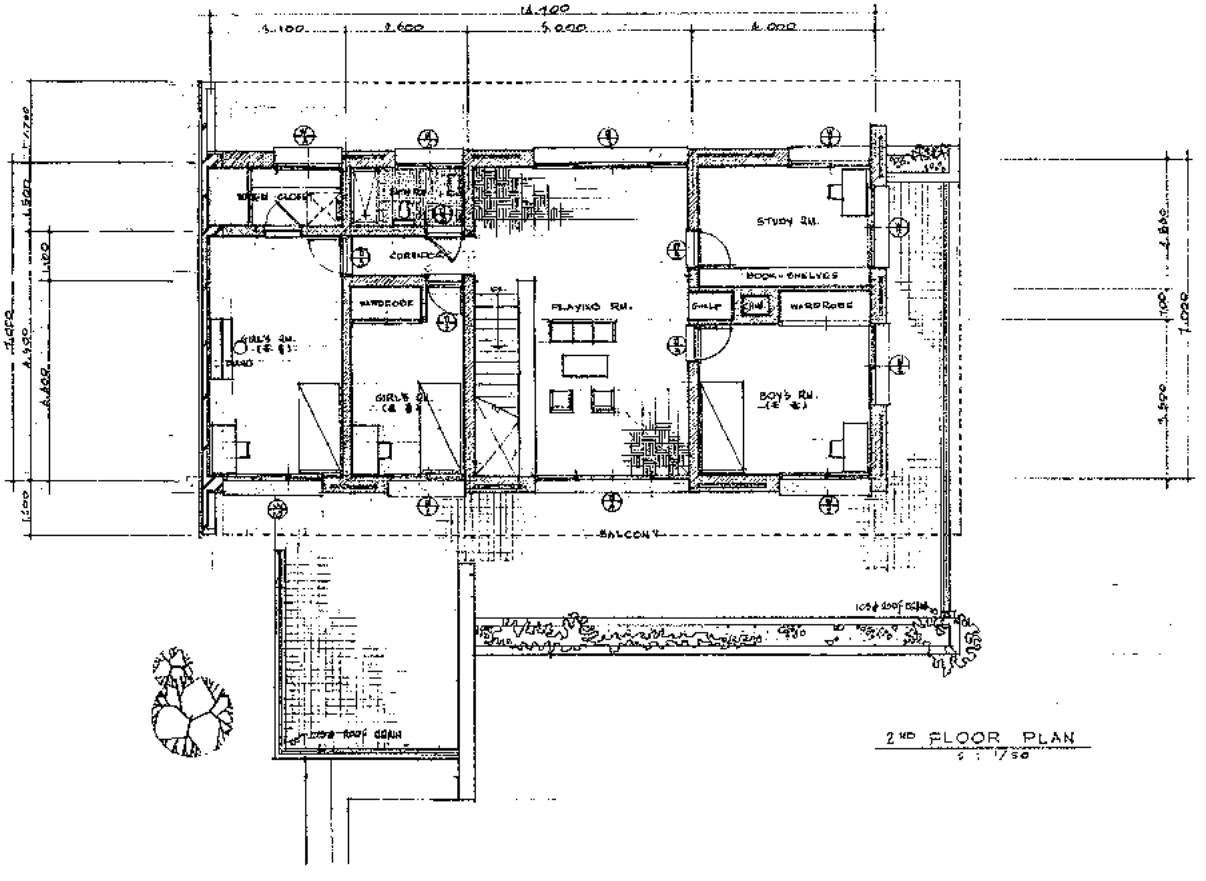


S씨 주택
진아건축 연구소
부 대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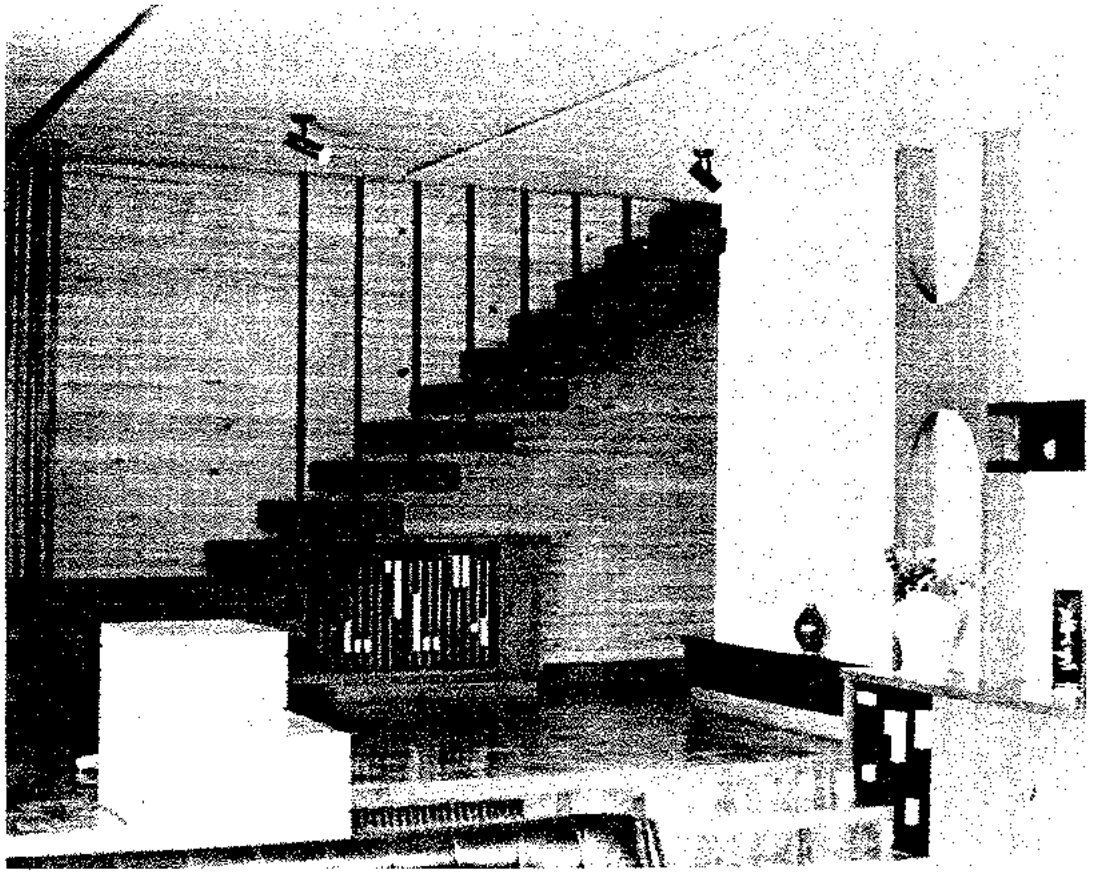
위 치 : 서울 · 성북구성북동
대지면적 : 633M² 2층 : 10 (192坪)
면 적 : 1층 154M² 2층 : 102M²
지하실 34M² 계 290M² (88坪)
건폐율 : 24. 4%
구 조 : 벽돌조 콩크리트스라브 위에
천연 스레트 지붕.
설 계 : 진아건축연구소



1ST FLOOR PLAN
S :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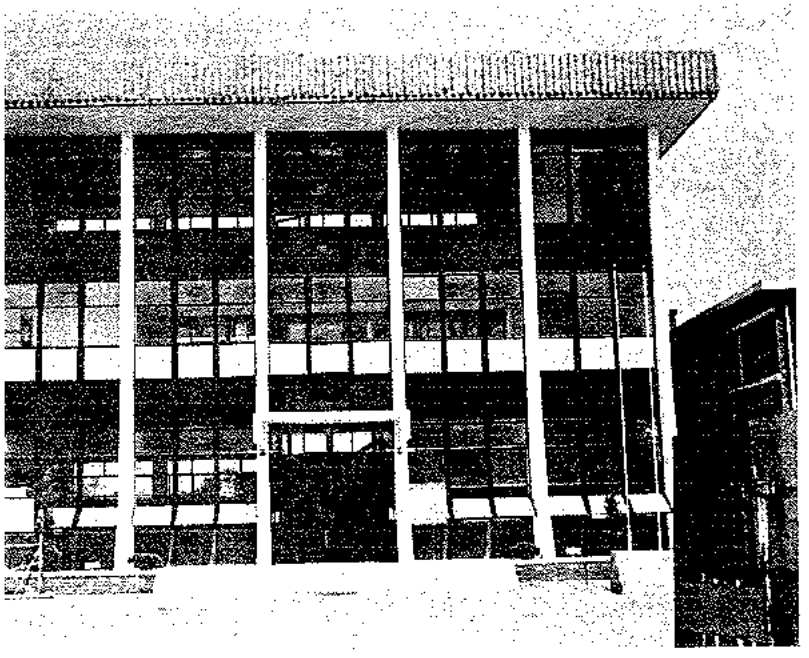


2ND FLOOR PLAN
S : 1/50



대한결핵협회 충남지부청사

정 진 경



Project : 결핵예방사업을 하는 곳이며, 관리사무와 시험시설과 회합장소를 갖일 건물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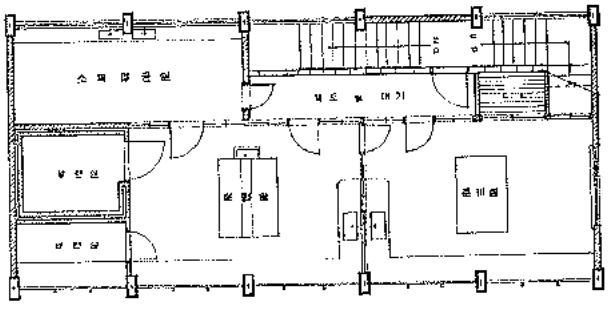
Site : 대전공설운동장입구 동측에 폭 30m 정도의 대로를 앞에 둔 남향의 확 트인 지형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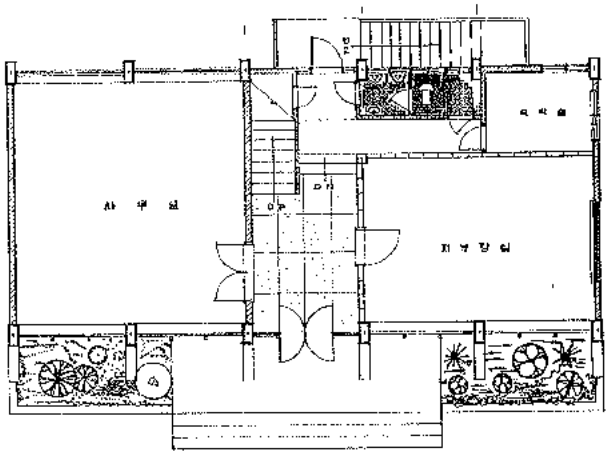
Program : 대지가 구형이므로 建物前에 여유있는 정원공간이 생기며 또 전면이 확 터였기 때문에 건물과 이 전면공간과 포용 융합시켜 우아한 현대감각의 건물을 세워 지방건축문화향상에 일조가 되였으면 하는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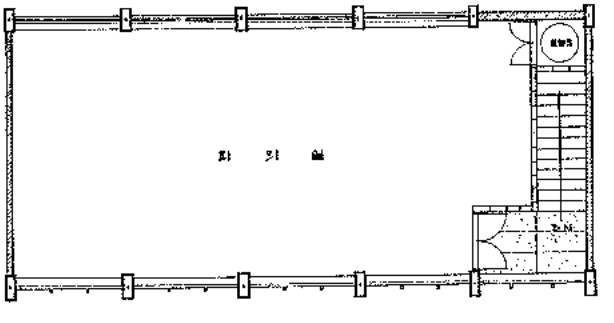
Design Solution : 평면상으로는 1층에 사무관리부를, 2층에 시험실을 3층에 회의장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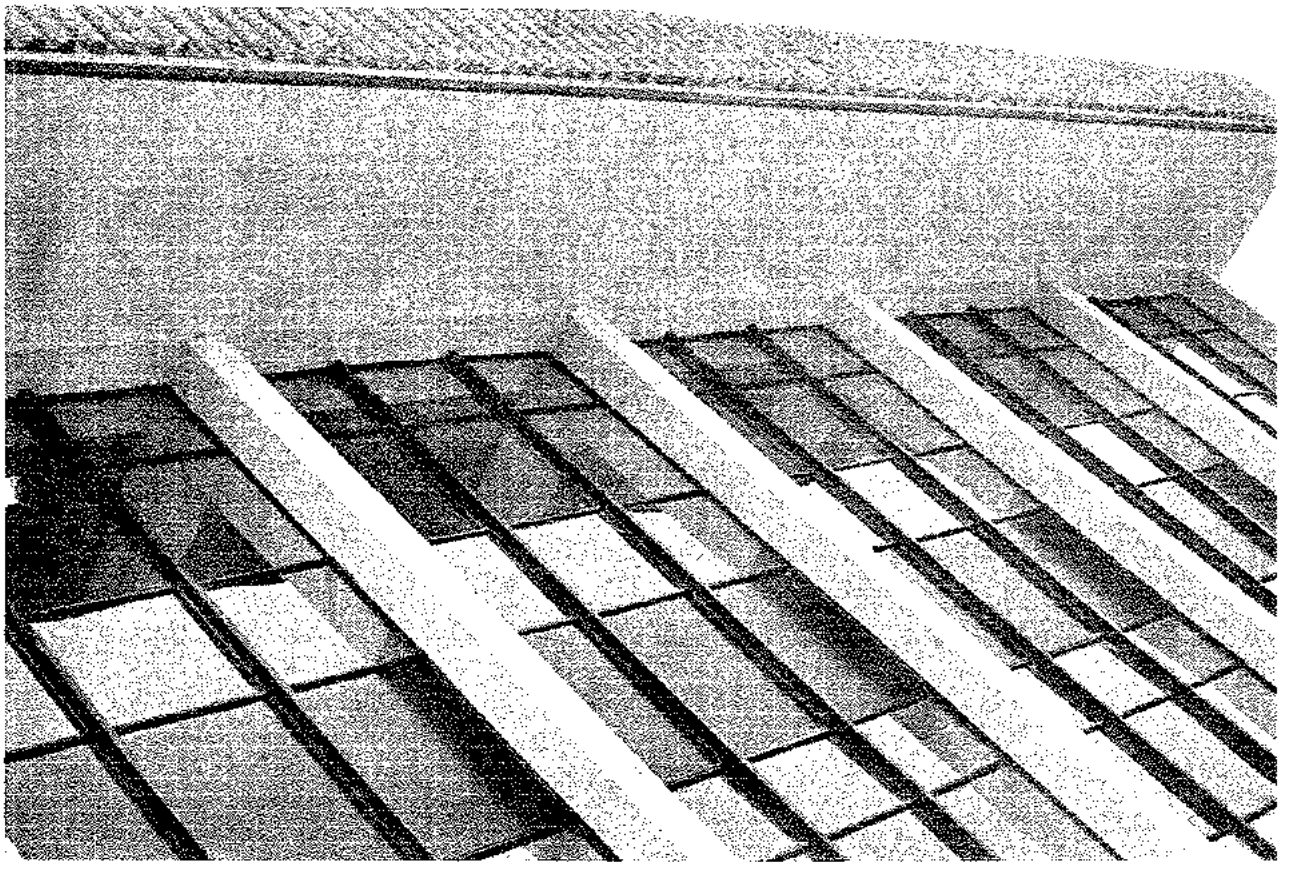
건물형태상으로는 건물과 전면공간과를 융합시키기 위해 처마와 주하부를 부드러운 곡선을 이어서 주십에서 1.8m 돌출시켰으며, 처마는 밑에서 앙시하였을 적에 살풍이 나지 아니하게 다이야몬드형으로 요철을 붙였으며, 또 역학상으로, Slab로서 1.8m 돌출시키는데 효과적이였다. 주하부의 곡선들출은 건물에 안정감과 부드러운감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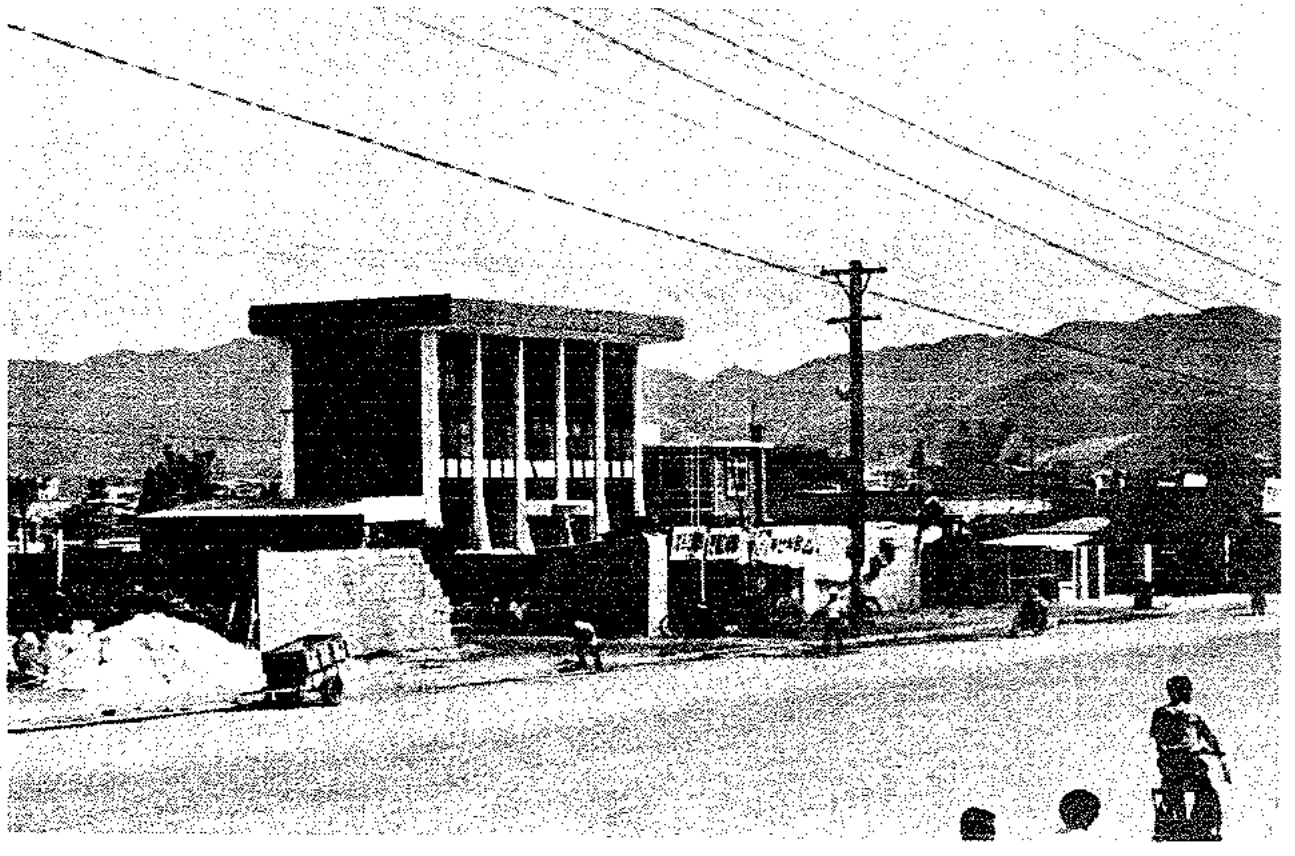
전반적 Facade는 연한 황색색의 수직주, 흑갈색의 수직마리온에 전면유리이며, 2·3층 허리부에는 청갈색의 색유리를, 1층 허리부는 청색보-다 타일 세로부치기를 하였고, 전면에는 적벽돌 화단을 만들어 조화키였다. Parapet는 풍우에 변색치 않은 자연색 콩크리-드 세로홈입 chopping을 하였다. 측벽은 적벽돌 쌓기이며, 전체적으로 우아한 건물이 아닌가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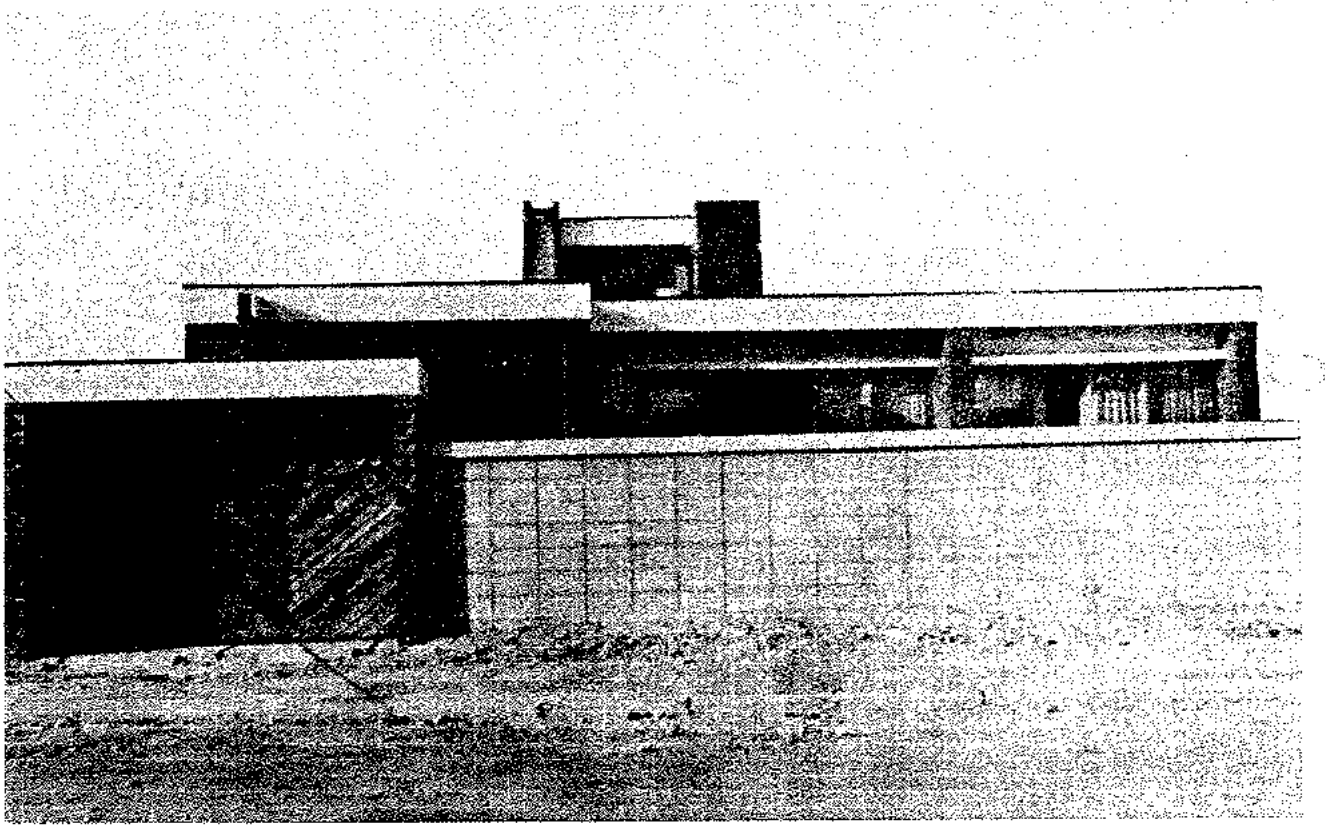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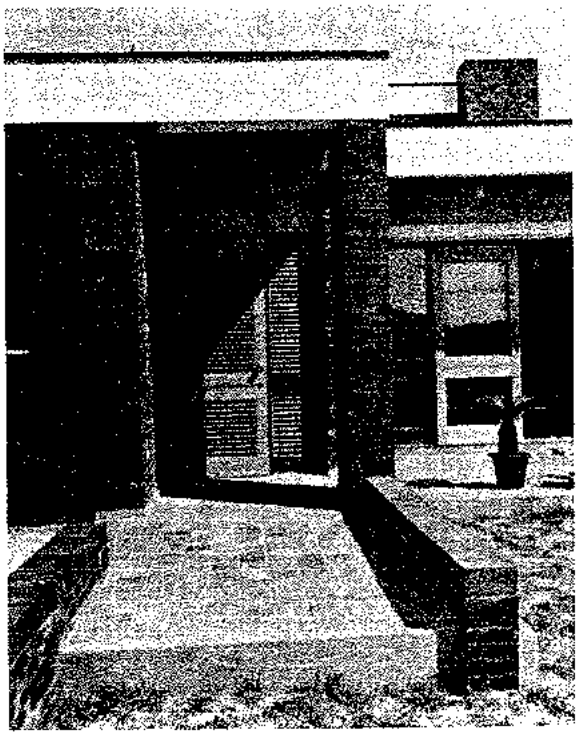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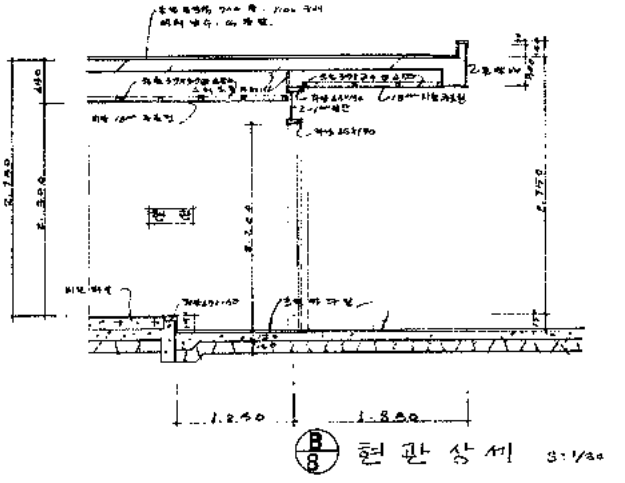


L씨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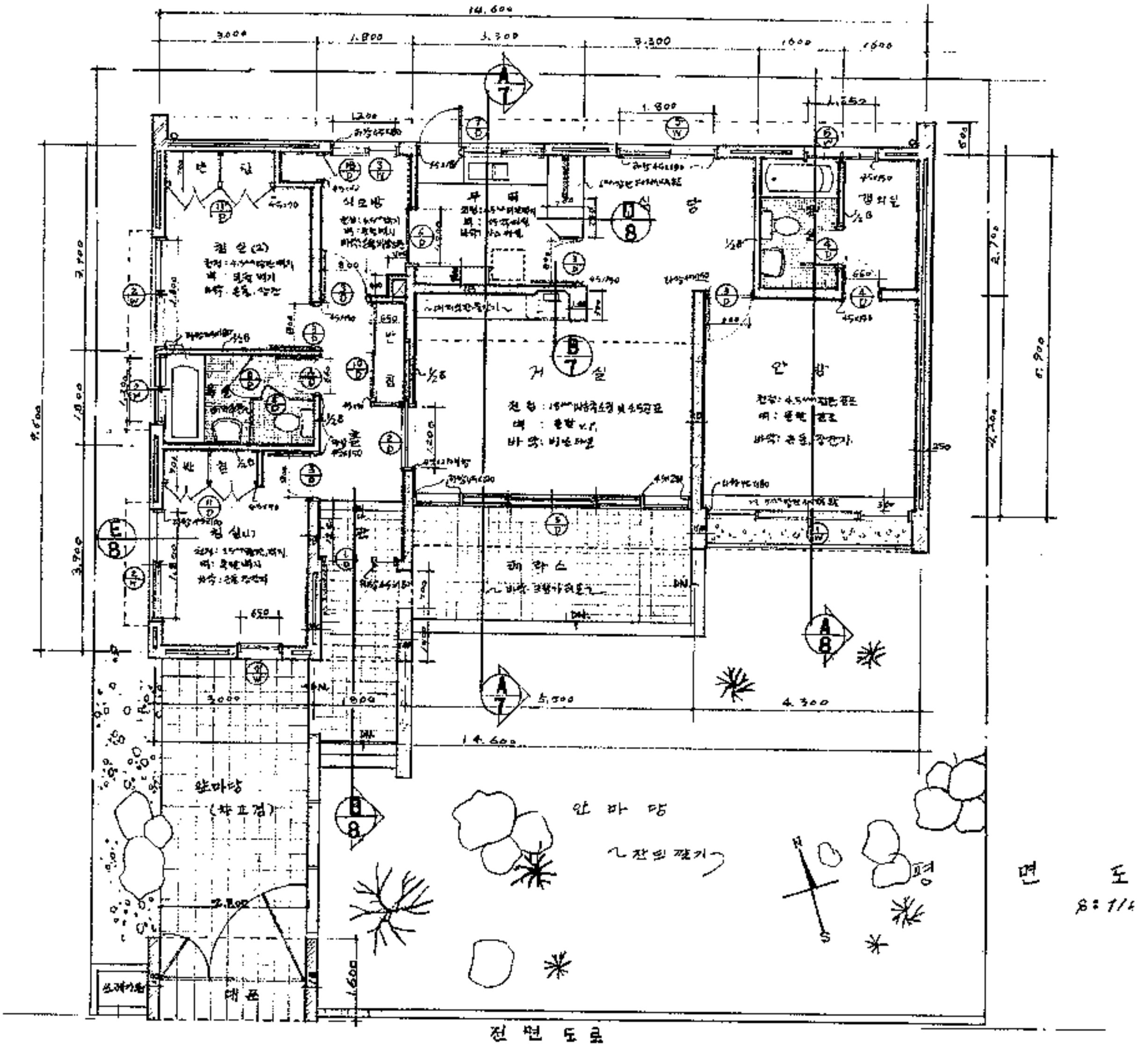
공 일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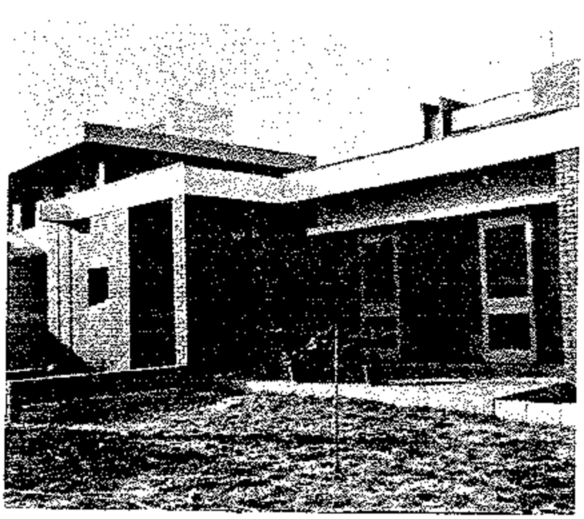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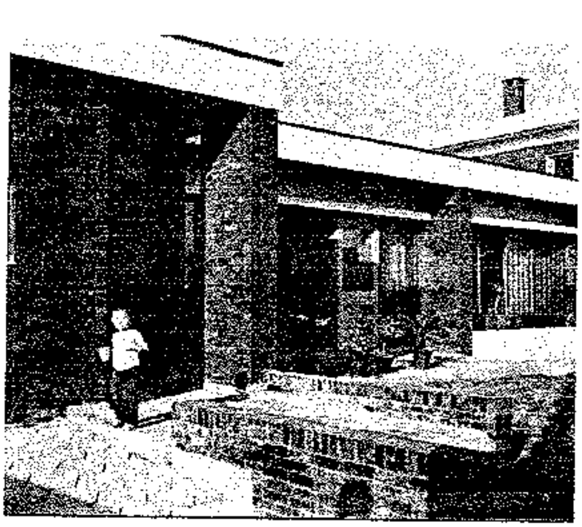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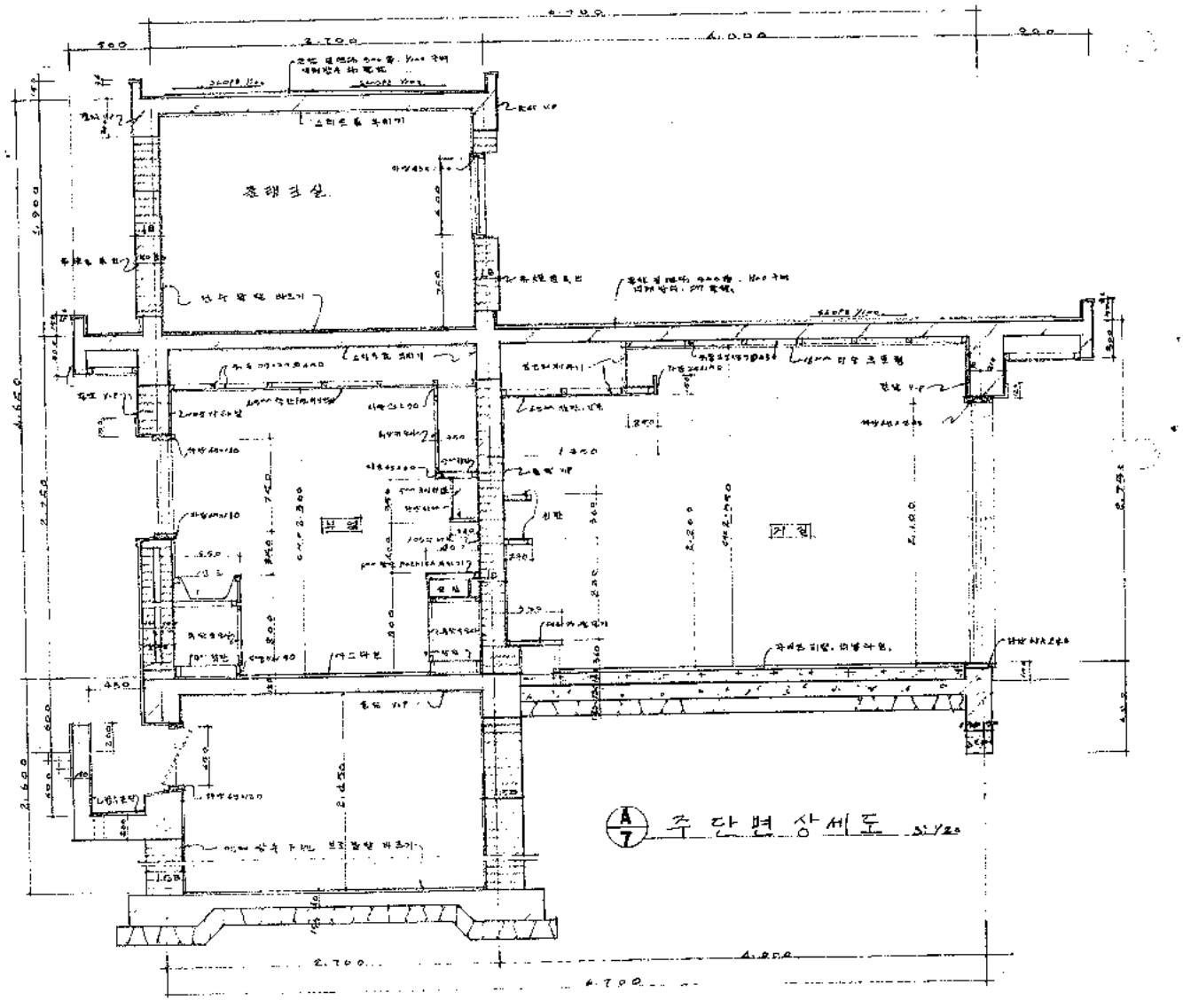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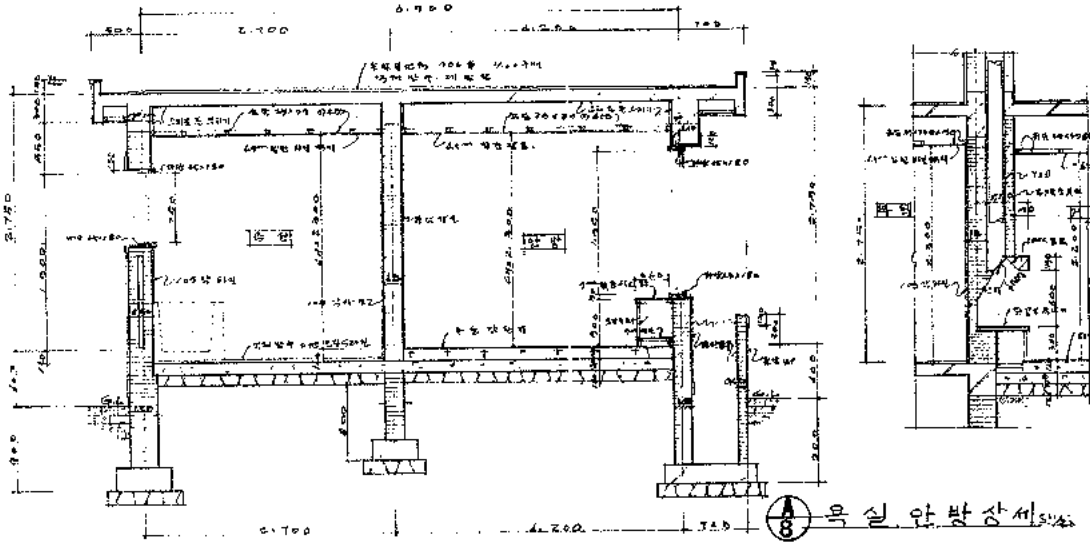
B/8 현관 상세 S:1/30


14,600
거실
안방
식당
부엌
침실(2)
침실(1)
테라스
안마당
앞마당
(창고겸)
대문
전면도로
평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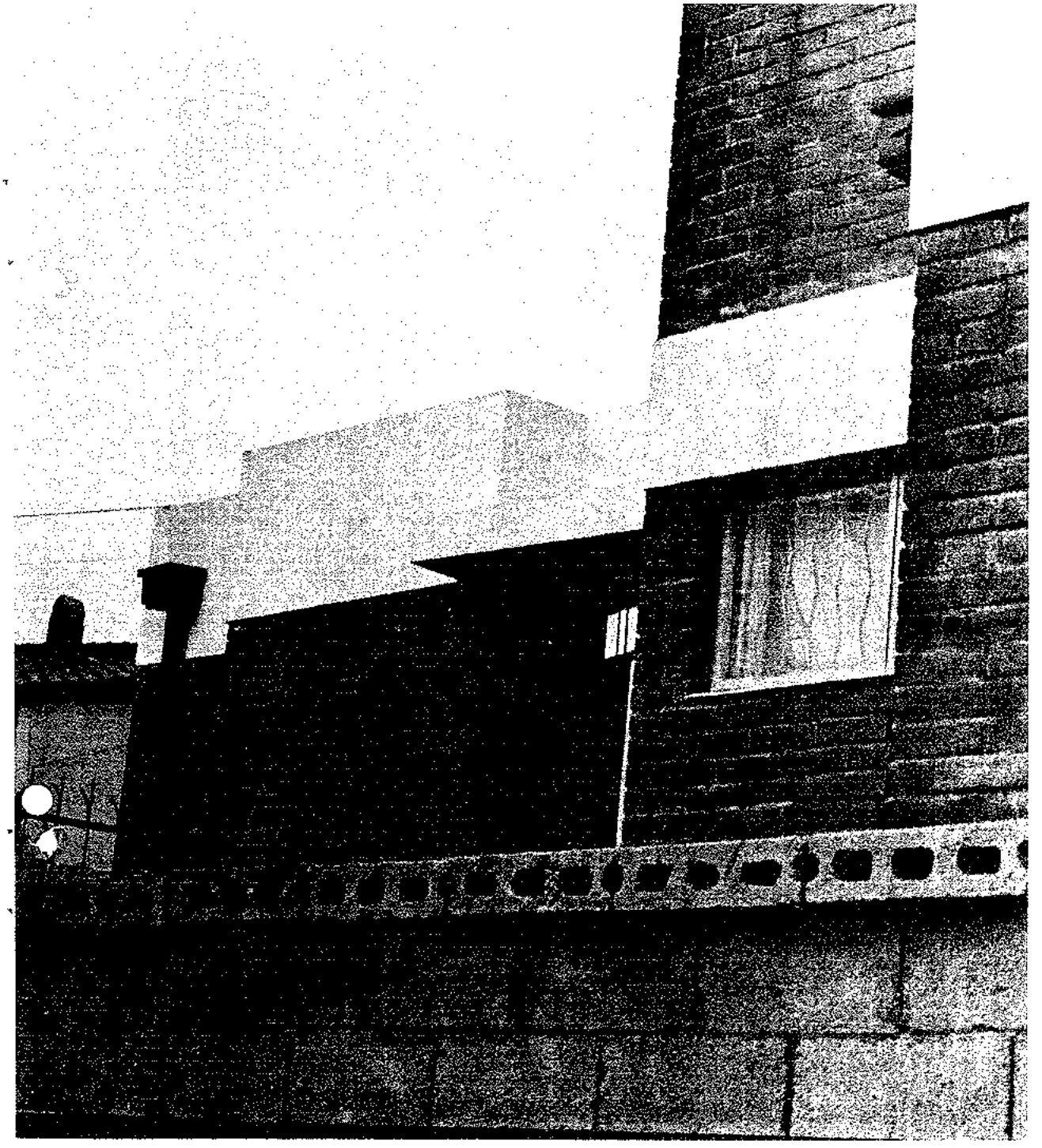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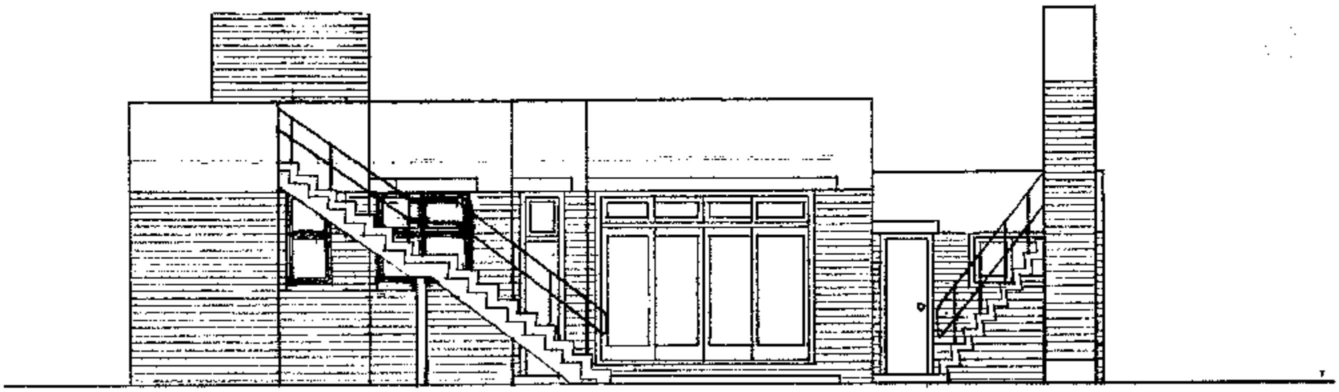

A/7 주단변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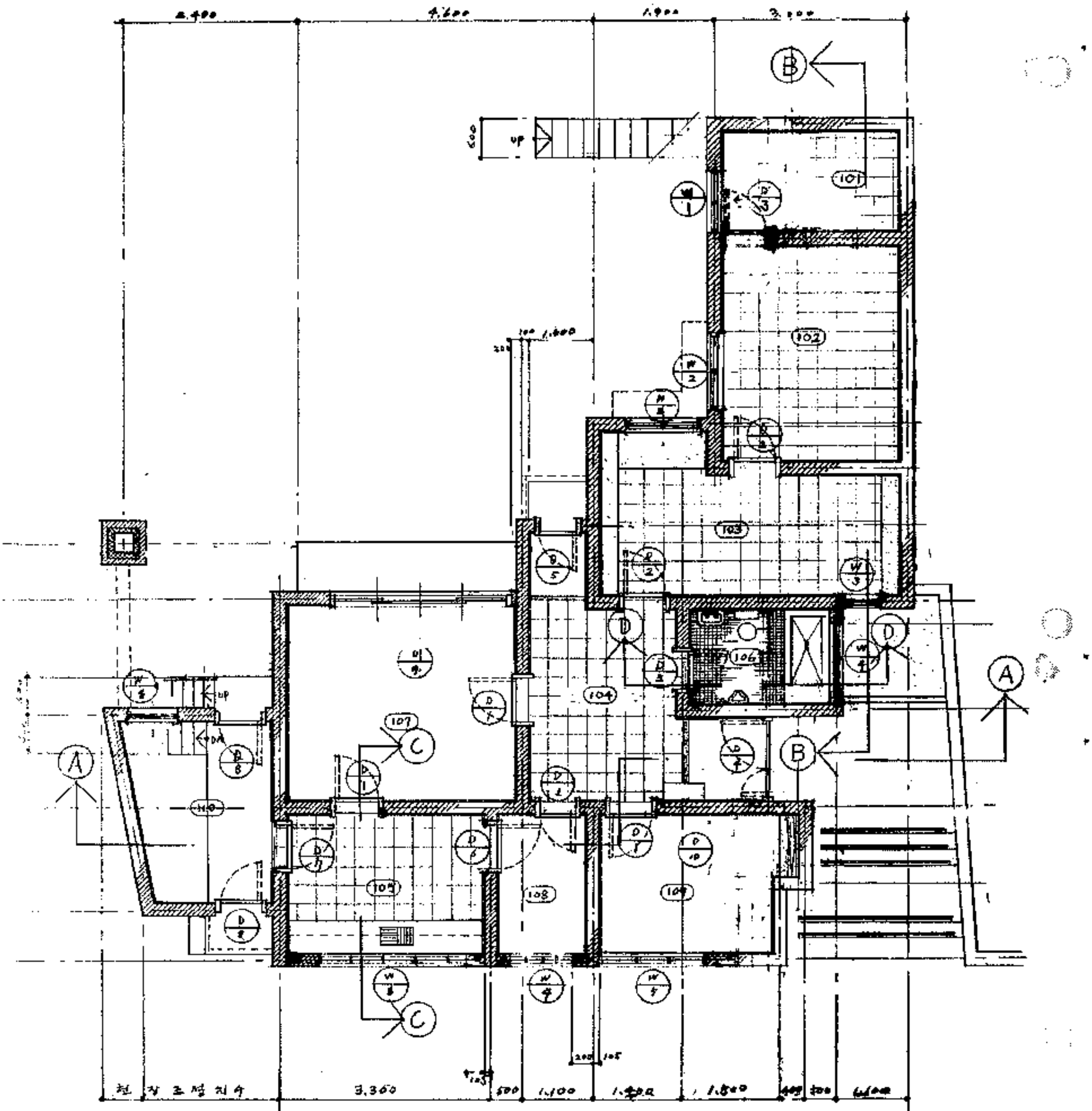

A/8 욕실 안방 상세

Q씨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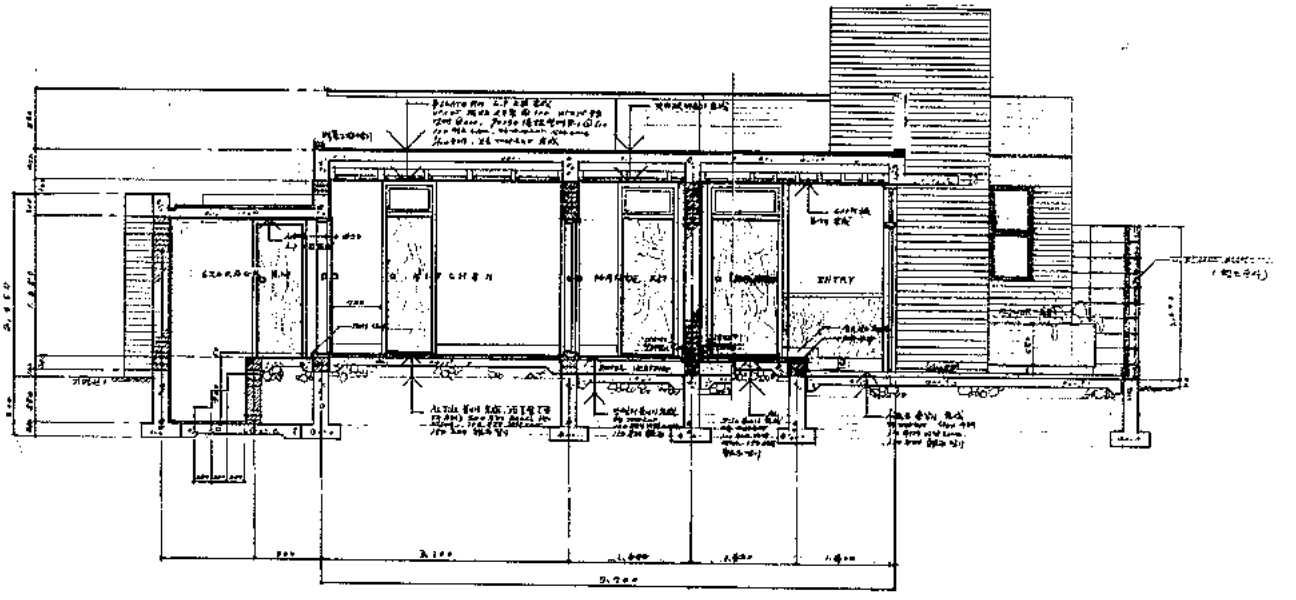
윤 추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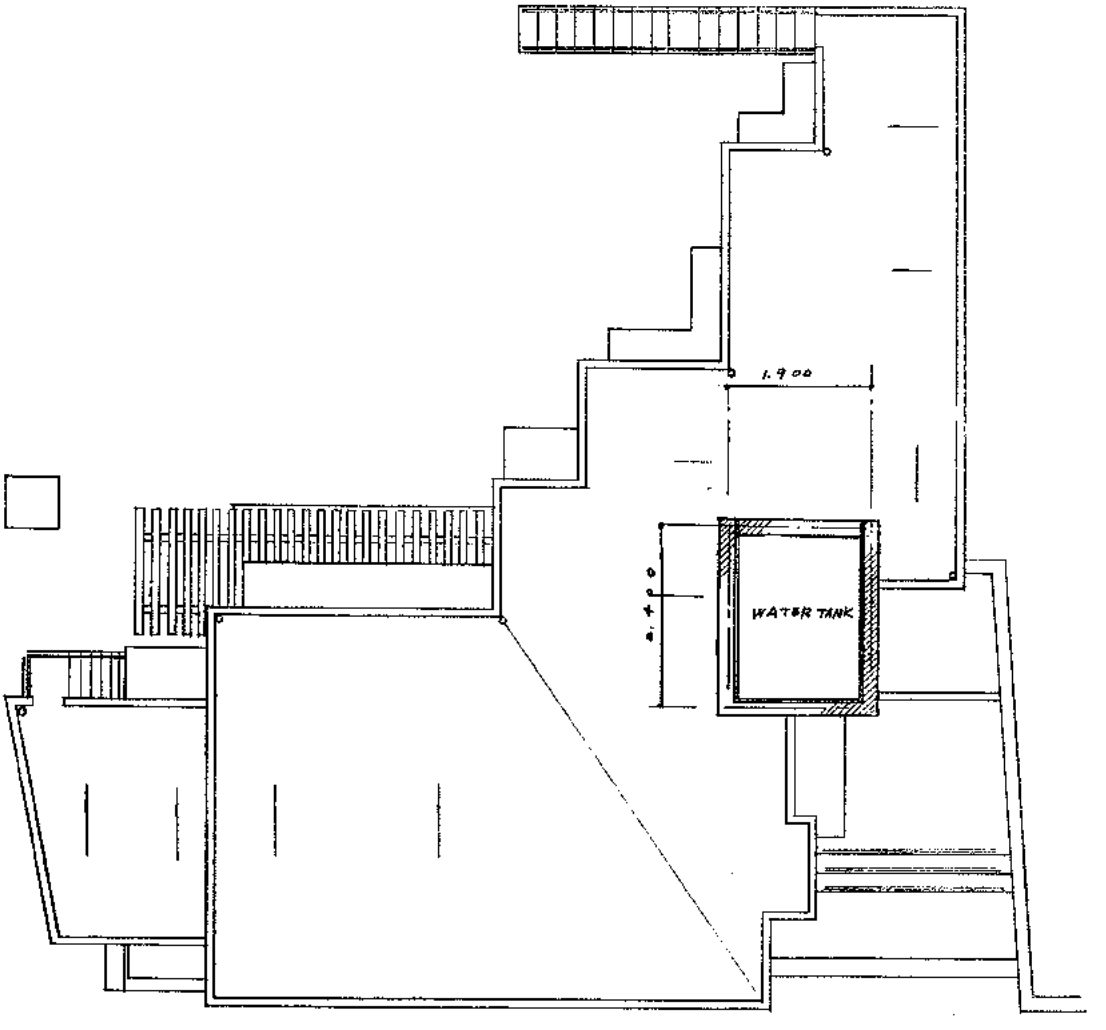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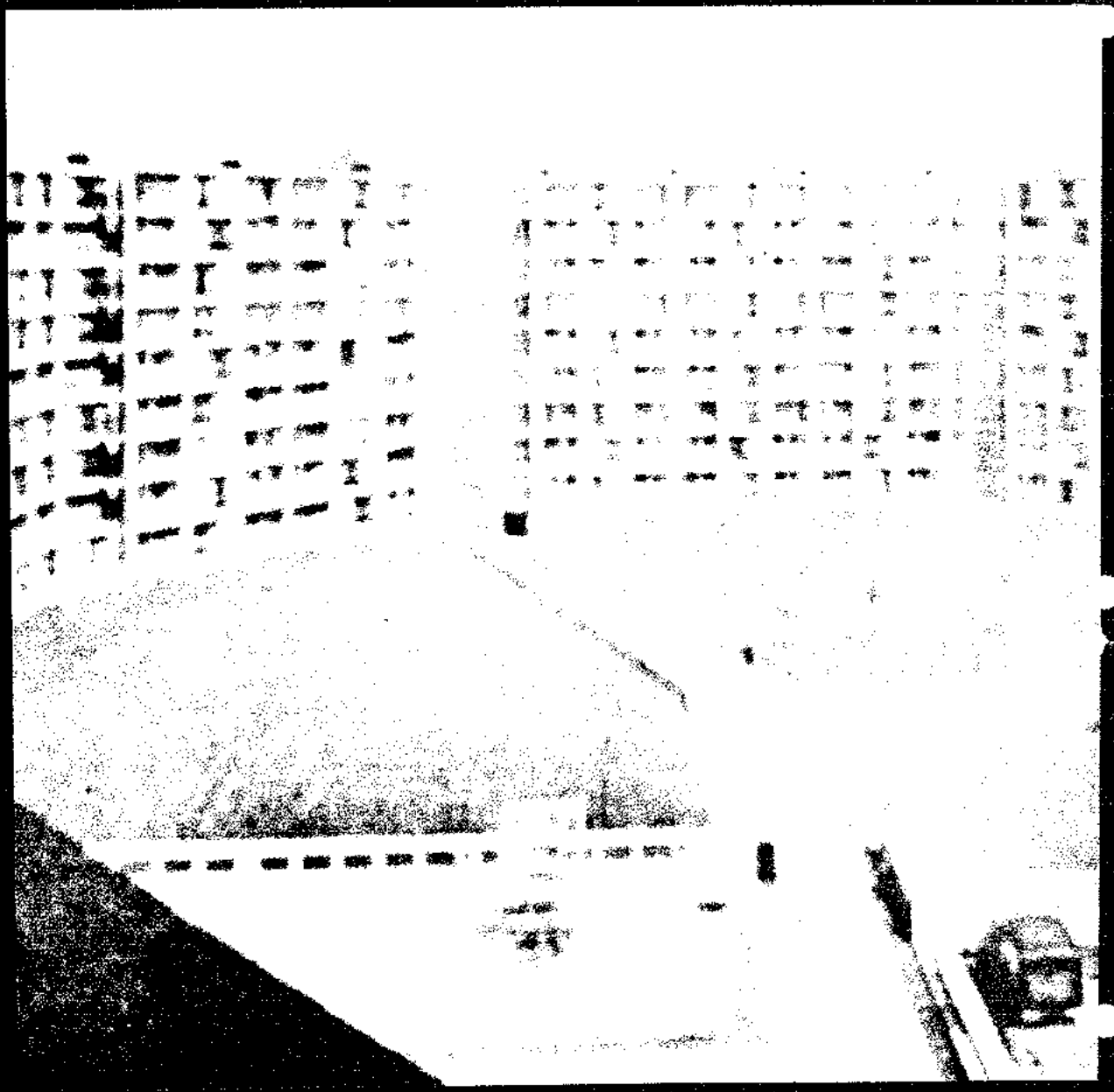


101
102
103
104
106
107
108
109
110
UP
3,360
9,800


KITCHEN
ENTRY


1,900
WATER TANK

특집 집합주택



주거형식의 변화

근래에 와 우리 주위의 주거형식은 단독주택으로부터 집합주택으로 차차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주거형식의 변화는 단독주거형식을 생활 양식으로 했던 과거 도시의 기본조직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부동산업자나 이와 다를 바 없는 당국의 하수인 노릇을 하기에 급급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 주위에 새로이 나타난 이런 현상에 어떤 방향과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건축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닥친 이 생활구조와 생활양식의 변화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우리 주위의 소위 아파트들은 그 경제적인 계층의 차이는 있으나 한결같이 수직으로 주거공간을 배부한 이외는 아무것도 없다. 집합주택은 하나의 마을이다. 그것은 도시생활의 보편적인 단위인 주거단위로 구성된 한 이웃이며 마을이다. 그 주거단위는 침실-거실-서비스로 이루어진 폐쇄된 space volume이다. 그 space volume의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는 영역을 서로 지켜나가는 일이다. 그럴때 가족은 그 space volume 을 배경으로 이웃으로 마을로 이어진다.

집합주거형식의 도입은 이러한 가족권의 확보를 전제하기는 하나 무분별한 아파트에 심하게 나타나는 동일한 조직체안에 사는 문화간의 이해부족으로 야기되는 긴장은 스트레스가 많은 도시생활에 의해서 더욱 가중된다. 생소하고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한 환경속에서 갖히는 것에 의해서 그들은 과밀상태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생활의 영역에 필요한 공간, 생활공간과 인간과의 사이를 바르게 이해하고 만들어진 공간에서 우리는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 홀교수의 말처럼, 인간은 달걀과 같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궤짝속에 담아두기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인간의 감각적 공간적 필요조건을 이해해야 한다. 집합주거형식의 보편화는 불가피했던것이지 우리가 원해서 된 일은 아니다. 그 불가피했던 사실은 우리는 원할 만한 것 살 만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마치 달걀을 상자속에 넣듯이 인간을 집합주택속에 쓸어넣어봤다. 그 한심한 시민 아파트를 만든 당국의 의도는 보기 싫은 것을 벽으로 가리려는 것이었다. 우리가 그것으로 이미 치른 엄청난 대가 이외도 앞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아무런 대책없이 그들은 도시사회 구조를 파괴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주거형식의 변화를 이해하고 나아가 생활의 영역에 필요한 공간, 생활공간과 인간과의 사이를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그들처럼 모든 것을 파괴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도시중간계급의 가족

도시는 안정한 농업사회의 가족주의적 체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가족체계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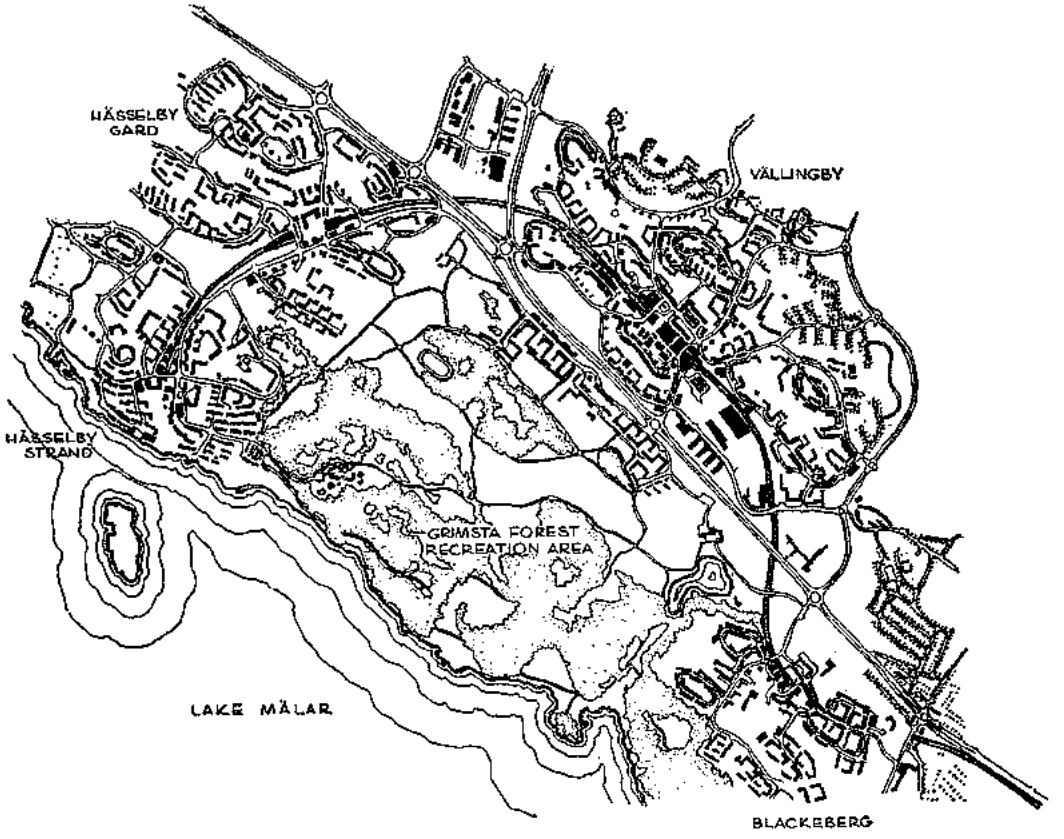
도시화는 가족의 규모와 같은 외적인 것 뿐만 아니라 가족생활의 본질적인 면에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적계가족의 기능과 규모를 감소시키는 현대사회의 경향은 어느 지역보다도 중간계급이 많고 도시화한 대도시에서 더 짙어졌다. 도시중간계급은 그 규모와 그 경제적 지배력때문에 현대도시의 다른 계급을 대표하는 가족형을 이룩하고 있고 다른 모든 가족들이 이 표준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다. 가족 단위는 최소공분모—부부와 자녀들로 축소되었고, 가족은 부부중심으로 되어 각 부부가 벽과 생활용구를 될 수 있는 한 사유하려는 것 처럼 분리된 생활공간이란 이상이 새로이 대두되게 되었다. 가족성원들의 개인주의는 한계를 극하고 있다. 오늘날 대도시주거에서 일어나는 가족문제의 대부분은 인간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가족조직에 근거한다.

이 새로운 가족조직은 주위의 사회질서와의 결합이 없어 더욱 그 구조가 약화되고 있다. 길, 이웃, 마을, 커뮤니티 그리고 도시에 이르는 도시사회질서와 괴리된 도시중간계급의 가족구조는 통합의 새로운 형태가 나타날 때까지 핵심기능의 혼미마저를 거듭할 것이다. 그것은 건축가가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 과연 어떠한 통합의 새로운 형태가 나타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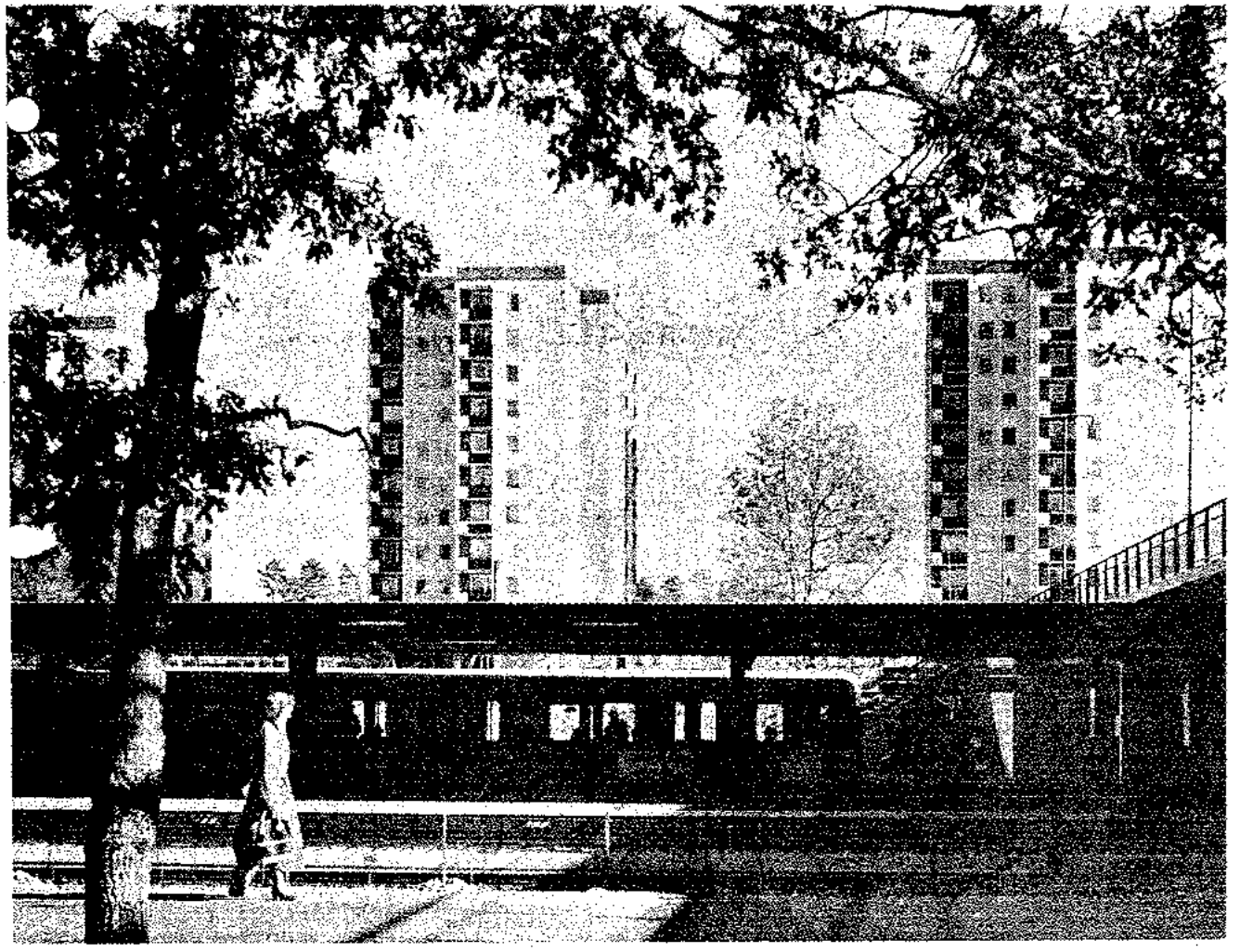
집합주거의 표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현학을 펼쳐도 역시 주거의 가장 중요한 점은 "집다운" 표현이다. "집답다"는 말은 물론 막연한 말이지만 결국 건축가의 의지는 막연한데서 일으켜지는 것이다. 고층 집합주거의 경우 "집답다"는 느낌은 피상적 경험에게나 쉬운 일이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고층 집합주거는 한 마을이다. "마을답고" "집다워야"하기 때문에 집합주거의 설계는 어려운 것이다. 게다가 그것은 일상생활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의 모체인 일상생활의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듯이 손쉽게(집합주택설계를 거저 먹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건축의 표현은 기능이나 상징과 밀접히 상관된다. 특히 형태는 상징을 표현해야 한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구호는 대중용이지 건축가에게 한 말은 아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그만큼 포괄적인 내용을 빠트리게 되지만 대중용으로는 그 방법밖에 없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말은 이제 평면은 기능을 따르고 입면은 상징을 따른다라는 것으로 분화시킬 필요가 있다.

고층 집합주거에서 그 생활의 양식은 결국 평면에서 표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상징 즉 "마을인 집들"은 입면에서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기능과 상징은 겹쳐지고 평면과 입면은 뒤섞인다. 그러나 건축을 말로 하려는 차제에 그 정도의 의미론적 혼동은 각오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집합주거의 기능은 무엇인가. 기능을 다시 생각해보자. 그것은 동선의 조직 혹은 방의 조작이라고 바꿔불러도 되는 그런 것일까. 쉽게 약속을 통해서 그것을 동선의 조직+방의 조직 이라고 표현하자. 이 경우 동선의 조직은 두 방식을 갖는다. 하나는 수직으로 세워진 마을의 동선 다른 하나는 그 마을 속의 집 내부의 동선이다. 방의 조직 역시 두 방식을 갖는다. 하나는 마을전체를 위한 방들, 여기에는 한 마을의 성립에 필요한 방들이 있다. 다른 하나는 단위주거내의 방들이다. 마을(집합주거)의 동선은 어프로치와 부지의 상황에서 시작하여 마을 내부의 길들(거기에 많은 마을의 방들이 부속하는)로 통하며 집 내부의 동선은 마을 내부의 길과 집의 입구가 닿는 곳에서 시작하여 창이 열려지는 데로 통한다. 결국 집합주거의 기능이란 동선의 조직과 방의 조직이 만드는 어떤 그래머를 말한다. 그렇다면 상징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물론 기능의 해석에서 바롯하기는 하지만 집합주거라는 복합명제에서 직접적으로 유래한다. 집합주거의 기능 그리고 그 기능이 갖는 사회 속에서의 위계 나아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집합주거의 어떤 의미들 속에서 상징은 성립한다. 그것은 결국 작가의 형이상학과 조형의지가 생각하는 것이며, 건축가의 전인적인 원천적인 감각의 논리가 형상하려는 의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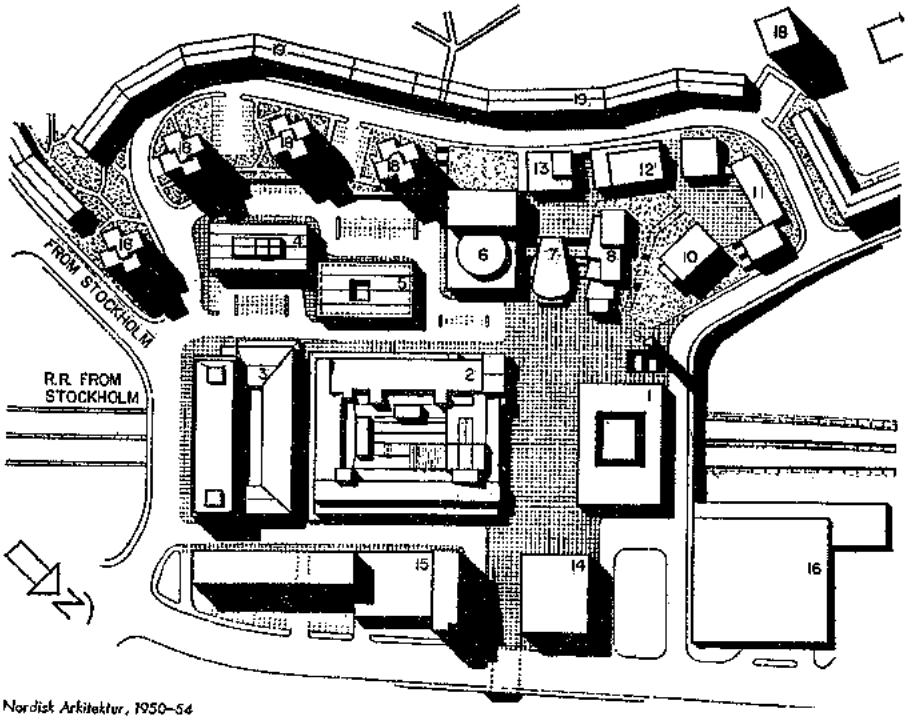


서부 스톡홀름의 뉴타운구역내의 새로운 주거단지 벨링비는 최근의 어떠 도시개발 계획보다 많은 가르침을 준다. 아름답고 상쾌한 예로서 벨링비는 세계를 뒤엎고 있는 교외지역이 어떻게하면 잘 계획될 마치 공원 같고 살만한 곳이 될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5년전까지만 해도 젖소들이 풀을 뜯고 콩이 푸르게 자라던 이곳이 지금은 거주자의 모든 생활과 필요에 어울려 있는 모든 길과 건물들이 들어선 23,000의 도시가 되어 있다. 벨링비는 스웨덴적인 천화적 건축과 도시와 상호관련이다. 다른 어떤 곳에 이 정도의 유쾌하고 풍성한 모습이 성취된 적이 있었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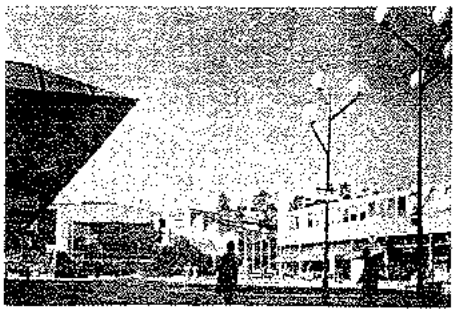
밸링비 계획은 도시생활의 장점을 모두 구비하고 있다 : 엄격한 랜스케이프의 보호; 어디서나 푸른 자연의 숨결이 스며있는 자연스러운 계획; 인도와 차도의 부드러운 분리; 집약된 수송체계, 주차장과 상업시설; 완전한 문화및 오락시설; 다양한 주거형식; 설비의 집중과 효율. 몇가지 부수적인 것들—특히 몇몇 건물들—에 대해서 비판할지도 모르나 그 기본개념과 방법은 확실히 뛰어난 것이다. 왜 그리고 어떻게 밸링비가 만들어졌는가? 수년전 스톡홀름의 확장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스벤 마켈리우스의 뛰어난 지도아래 도시계획국은 원리에 있어서 통상적인 기숙사촌과는 다른 도시의 미립체로서의 새로운 도시의 부분을 기획했다. 그들은 밸링비를 그 성격과 규모에 있어서 중요하고 실험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그 성격은 주거인구의 25%를 고용한 수 있는 변형된 상업 및 산업기구를 포함한 것으로 작정했다. 그 규모는 스칸디나비아의 어떤 것보다 크다. 사실 그 윤곽에 있어서 이 정도인 새로운 개발계획은 거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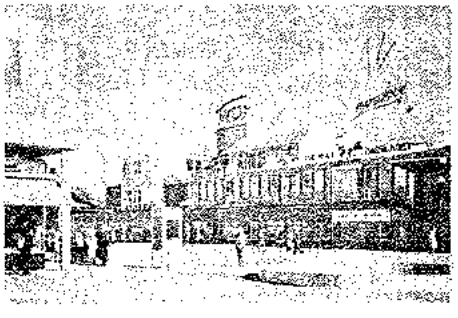
스톡홀름 중심부에서 9마일 떨어진 부지는 망쳐지지 않은 4평방마일의 농지를 포함한다. 자체의 인구 23,000외에 밸링비는 주위의 개발에 따른 60,000의 부대인구를 위한 상업, 오락 및 고용 시설로서 계획되었다. 이들은 이들 복합체의 남측 경계에 있는 그림스타 산림휴양지대와 밸라 호반으로 접속된다. 전체 계획은 스톡홀름 시청의 예견과 에지의 효과적인 과시로서는 물론 그 개념에 있어서도 위대한 것이다.



1 Rapid Transit Station
2 Department Store
3 Shops
4,5 Offices
6 Theater
7 Cinema
8 Meeting Rooms
9 Clock Tower
10 Church
11 Town Hall
12 Library
13 Youth Center
14 Shops (Projected)
15 Offices and Shops (Projected)
16 Garage (Sunken)
18 High Rise Apartments
19 Low Apart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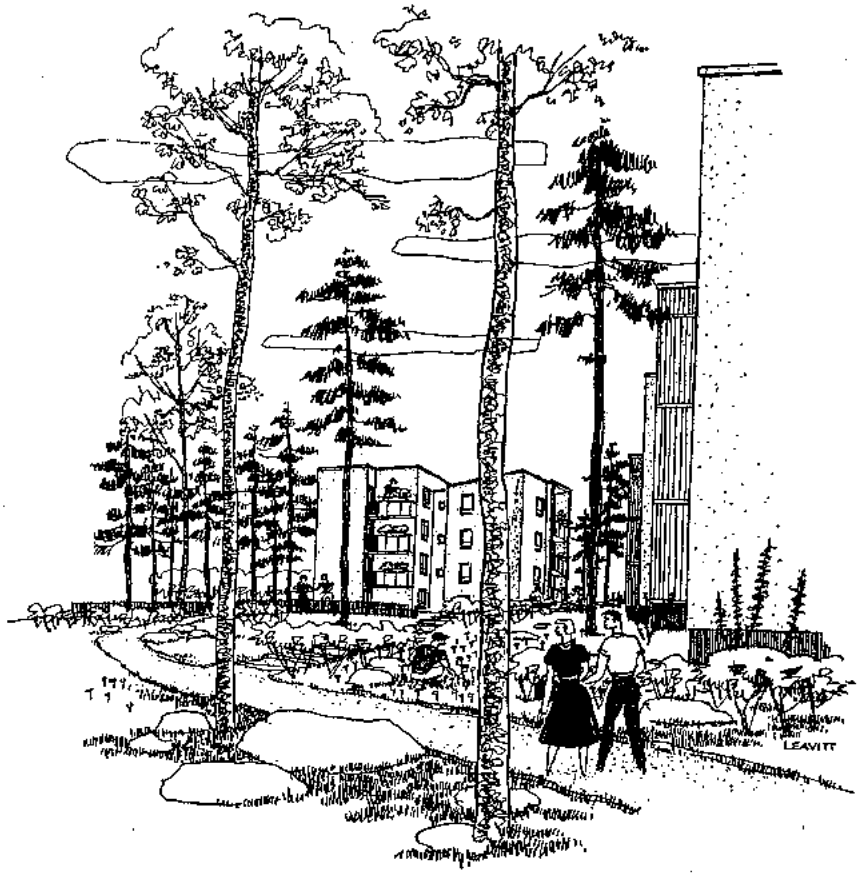
Nordisk Arkitektur, 195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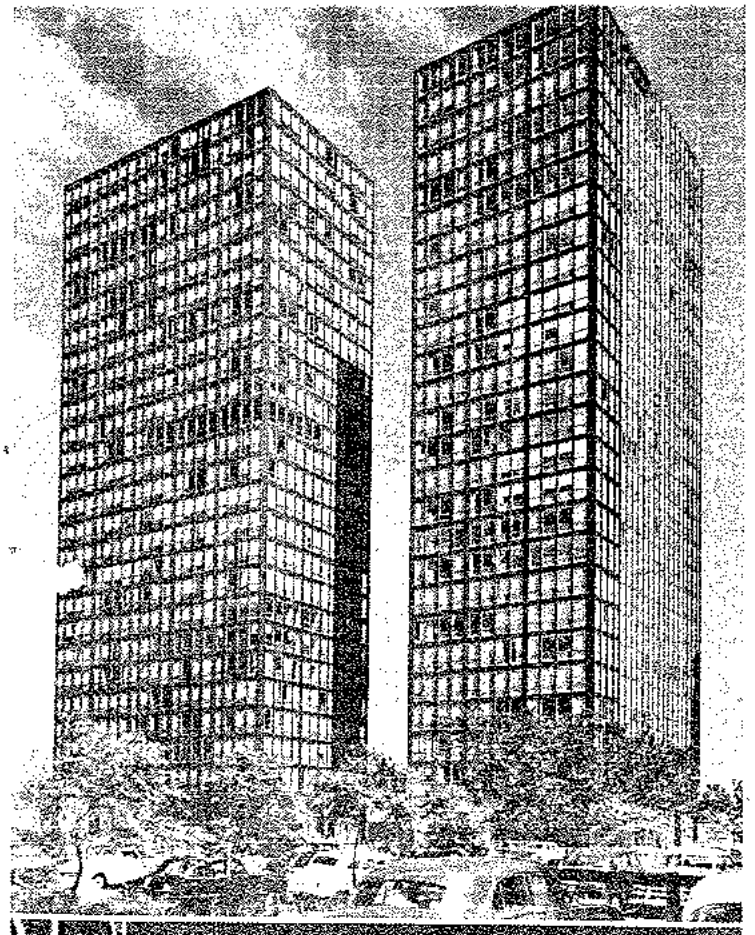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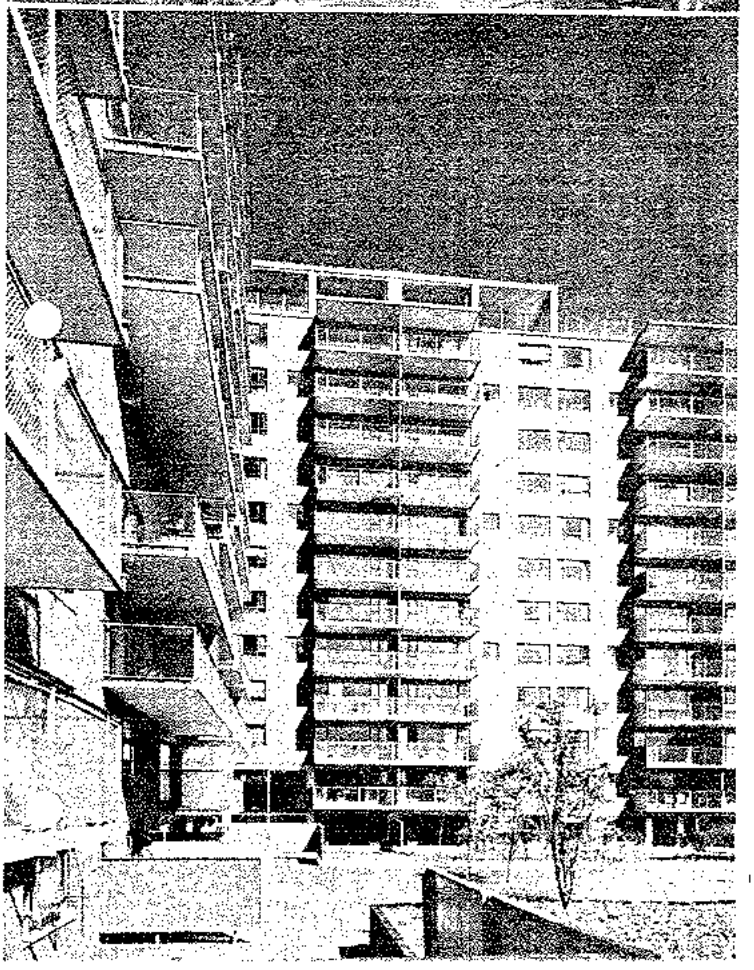
벨링비 / 중심부 CENTRUM 벨링비의 중심부는 전체의 세 커뮤니티 개발 인구인 80,000의 상업, 위락 및 문화시설을 갖고 있다. 그것은 고속교통 망위에 직접 건설되며 주차장으로 둘러싸인다. 어떤 자동차도 광장에 나서지 못한다. 여기는 사람들이 걸어다닌다. 공공건물(대부분은 박스트롬과 라이니우스가 설계했다)은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하여 수 쇼핑가로로 단이 져 내려온다. 연못, 분수, 화려한 모자이크 그리고 부드러운 경사로 등을 가진 가로는 그 공간 자체는 고형적인데도 무드가 있다. 중요한 큰 건물들이 추운 바람을 막아주지 않았으면 그 무드는 의심스러웠을지 모른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스칸디나비아 특유의 상업건물들이 갖고 있는 무미한 간판들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자극하고 충동하는 약간은 상기된 도시적 쾌활을 띠고 있다.

벨링비/고층집합주거 커뮤니티의 계획에 있어서 기본적인 결점의 하나는 centrum(중심부) 주위에 10~20층의 고층아파트를 집중시키는 것이었다. 중심부로부터 멀어질 수록 밀도와 건물 높이는 감소되어 간다. 늙은이들을 위한 특별아파트는 중심부부근에 있다. 어린애들이 있는 가족이나 자연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워크 업 아파트, 연립주택 그리고 단독주택들이 준비되어 있다. 벨링비의 흥미있는 모습은 얻을 수 있는 생활양식의 다양한 기회에 있다. 사람들은 20층의 펜트하우스로부터 조립된 개인 주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선택의 기회를 가진다. 물론 어느 경우에도 푸른 자연으로 감싸져 졌있다. (위의 건물은 건축가 클레밍씨의 설계다)



벨링비/연립주택 3～4층의 걸어오르는 주거가 주요한 건물 형식이나 그 형태는 다양하다. 그중 가장 좋은 표현은 위에 스케치와 평면이 나온 파울 헤드크비스트의 설계다. 그것은 공간적으로 잘 조정되고 자연과 깊이 관련된 주거다. 삼층연속연립주택(라멜라)은 벨링비의 보편적인 형식이다. 때때로는 잘 설계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엉성하기도 하다. 그러나 어쨌든 모두가 공통적으로 기본적인 것들—보호된 나무들, 가꾸어진 정원, 놀이터—은 건축에 집약되어 있다. 랜스케이핑은 준공되면서 동시에 완성된 것이어서 잡다한 취미가 뒤섞인 야한 데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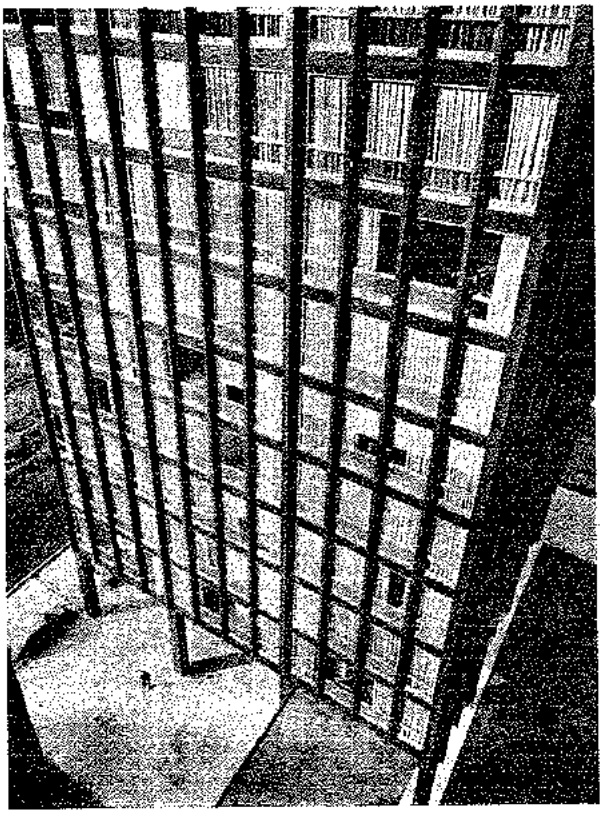
100년동안의 가장 중요한 건물들

100년 동안에 이루어진 50개의 가장 중요한 건물들의 리스트에 집합주택은 단 두개가 지명되어 있었다.

두 건물은 모두 60년대에 완성되었고 장대한 워터스케이프를 바라보고 있다. 이것 외에 둘의 기본 프로그램은 거의 유사성을 찾아볼 수 없다. 100메모리얼 드라이브 아파트먼트는 거기에 거주하게 될 사람들의 성격과 생활양식을 근거로 한 팀의 건축가들에 의해서 설계되었다.

860레이크 쇼오 드라이브 아파트먼트는 일반화된 과정과 건물자체의 재료에 항상 근거하는 한 작가에 의해서 설계되었다. 그 의지와 주어진 여건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만 이들 건물은 둘 다 모두 중요한 업적이다.

선정위원이었던 존 버처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훗날 860은 고전적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그것은 완전한 비례를 하며 밝게 서 있다. 그것은 현대건축이 발견한 기능주의의 모순을 초월한다. 그것은 그것이 갖게될 생활의 요구와 새로운 단위가 주장하는 허가를 부정한다. 860에 대한 의문은 이런 것이다. 이 어휘속에 더 무엇이 가미되겠는가? 우리가 그것에 한 만족할 완전한 장치를 줌으로써 그러한 건물에게 의무를 부과하기를 배울 때 잘 이해된 것은 아니지만 러펠러센터에서 그러한 의문은 더 타당하다. 입주자들이 전체적 현위를 희생하지 않고 자유를 갖도록 허용하도록 어떻게 건물을 질서화 하겠는가? 이것은 물론 우리 사회에서도 기본적인 문제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상황은 어느정도 까지는 상호질서보다는 개인적 혼돈을 선택할 것이다. 860은 우리에게 다시 그 문제를 환기시킨다. 그 미학적 우수성은 방편을 낳는다. 그것은 위대한 시가 그렇듯이 여러 관점에서 걸작이다.



레이크 쇼어 드라이브 아파트먼츠, 시카고, 1951, 미스 반 델 로에

레이크 쇼어 드라이브 아파트먼트는 아메리칸 사이즈의 정방형 블럭 위에 선 두 고층건물의 성공적인 미학적 공간연구로서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지층레벨의 연구와 부지로의 어프로치 그리고 부지자체의 모든 연구를 포함한다. 이것에 더하여 기준되는 불리적요구를 감싸는 철골 구조위의 얇은 벽구조라는 개념으로서 중요하다. 몇가지 실제의 관점에서 이 건물은 많은 중요한 예술작품이 그렇듯이 결점을 갖고 있다. 공사에 관련된 법규와 당국의 제한을 감안할 때 이 건물은 건축의 중요성에 대한 우선적공적을 대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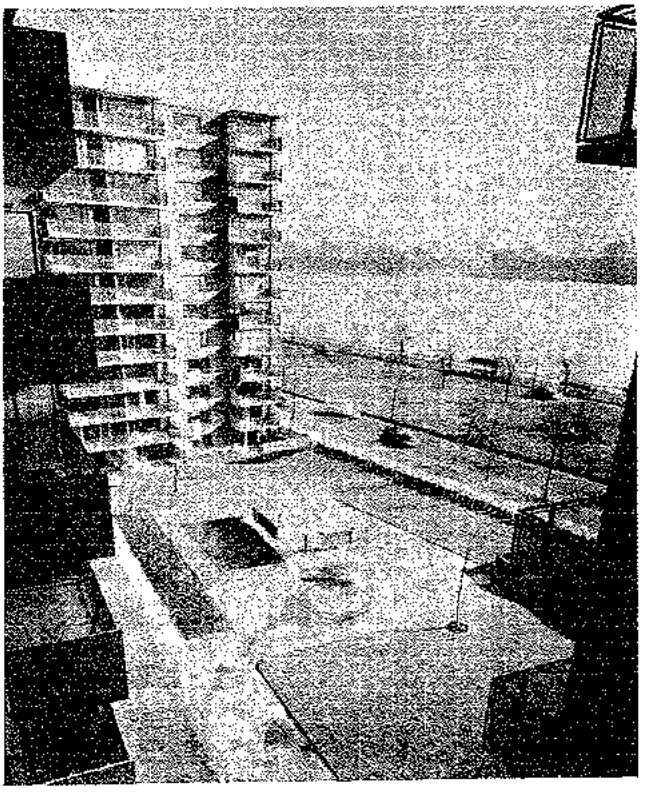
조지 프레드 캐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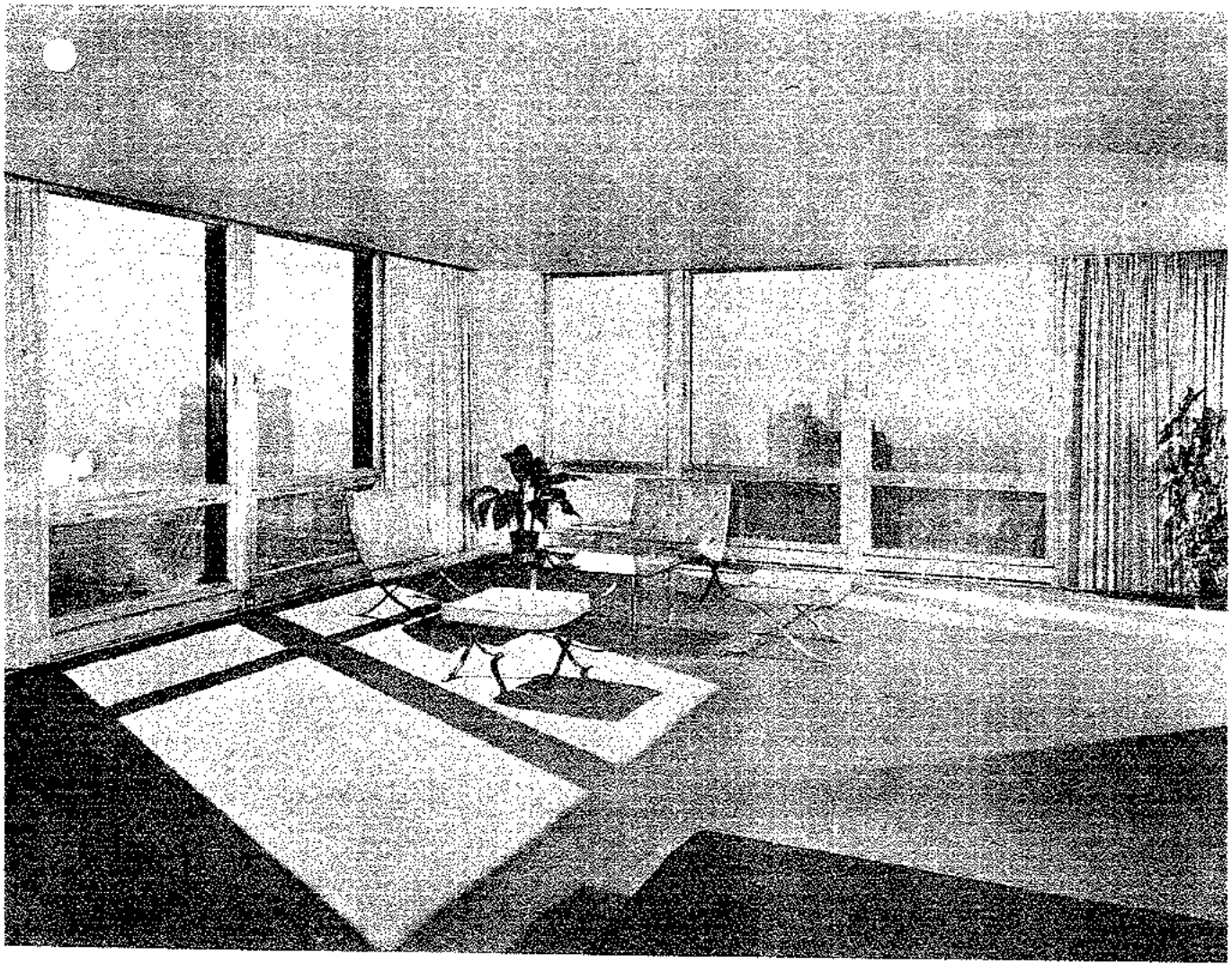
나는 미스에 대해서 공정한 입장을 취하기 힘든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때부터 그를 찬미해왔다. 레이크 쇼어 드라이브 아파트먼트는 일생에 걸친 관념의 영감에 가득찬 형성과정의 멋진 결론 같아보인다. 미스의 작품을 구분하는 것은 도덕적 힘이다. ; 그것은 단순한 형태적 추상이 아니다. 차츰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는 더욱 더 참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은 작품뒤에 선 진실한 충동인 작가라는 것을 알게 된다. **리처드 노이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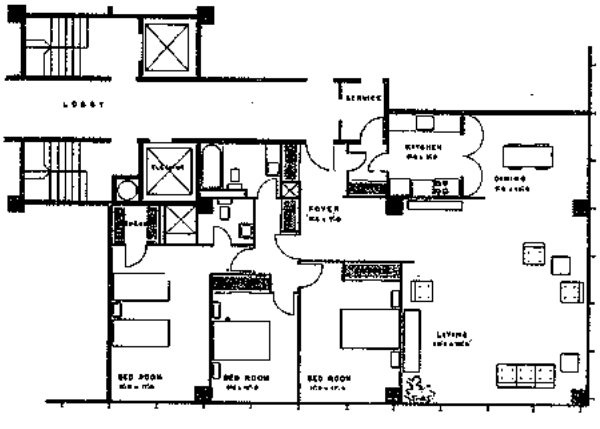
100메모리얼 드라이브 아파트먼츠, 케임브릿지, 1950 케네디, 코흐, 드마르, 랩슨, 브라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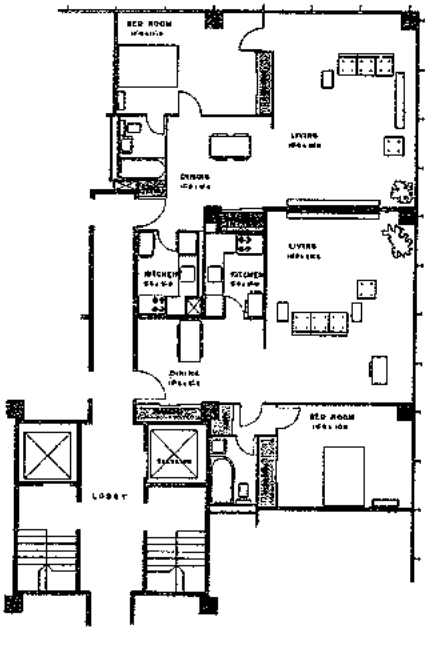
100메모리얼 드라이브는 거의 모든 관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는 탁월한 기준을 보여준다. 그것은 살 사람들을 위해서 설계되었으며 기쁘게 살만한 곳이 되어 있다. 이 건물은 그 부지가 갖인 주요한 보물, 전망을 가득 갖고 있다. 정교한 평면, 상상력에 넘친 재료와 맷스 그리고 오프닝 등등의 단순한 의장. — 이 모든 것들이 잘 집약된 전체를 이룩하고 있다. 그것은 클라이언트를 위한 성공적인 모험이다. 이 건물은 커뮤니티 외한 보물이며 좋은 건축의 한 아름다운 데몬스트레이션이다. 성공적인 모든 건축에서 그렇듯이 이 모든 공적은 건축가들과 눈을 뜰 수 있었고 이해심이 있었던 클라이언트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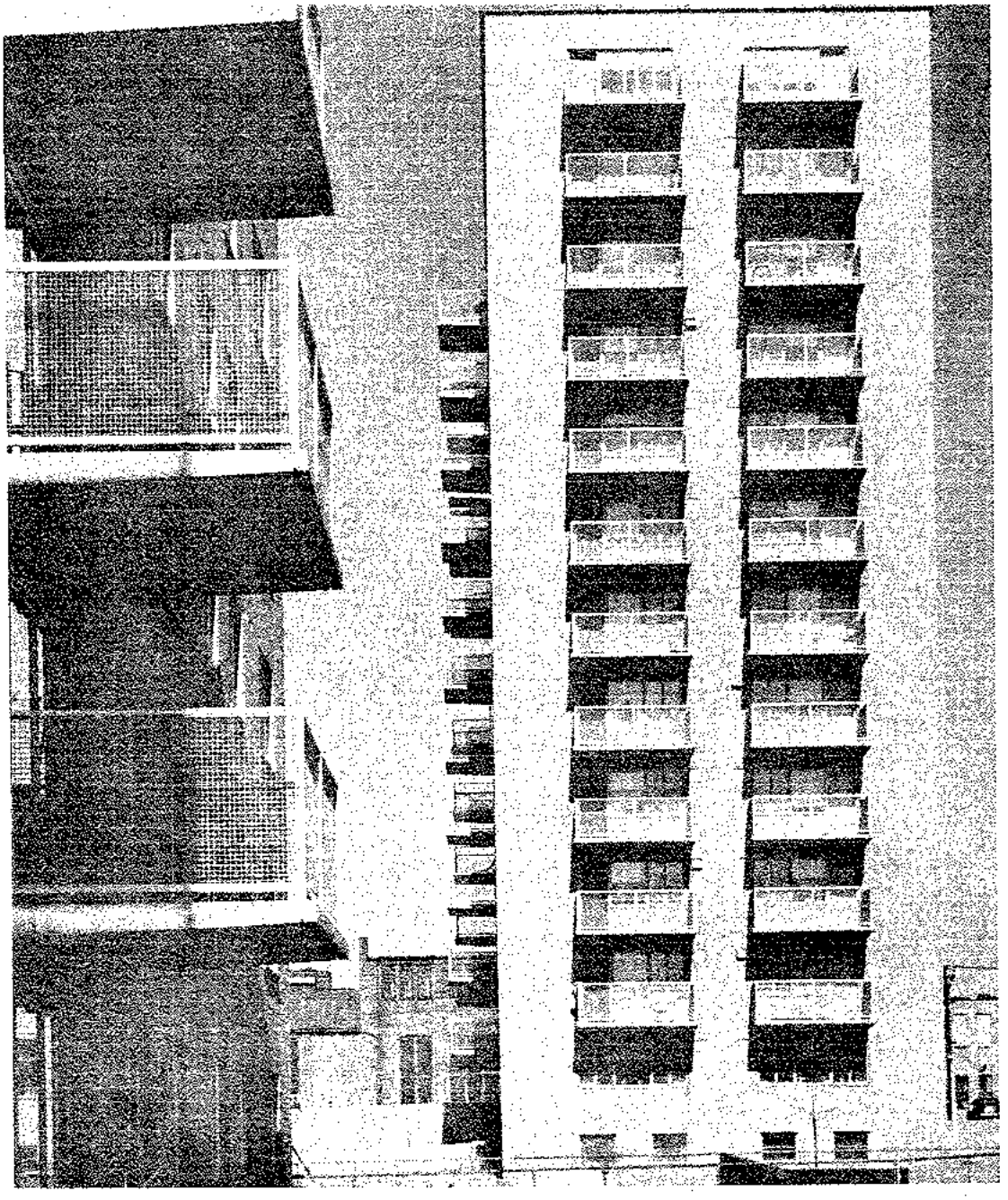
휴 스터빈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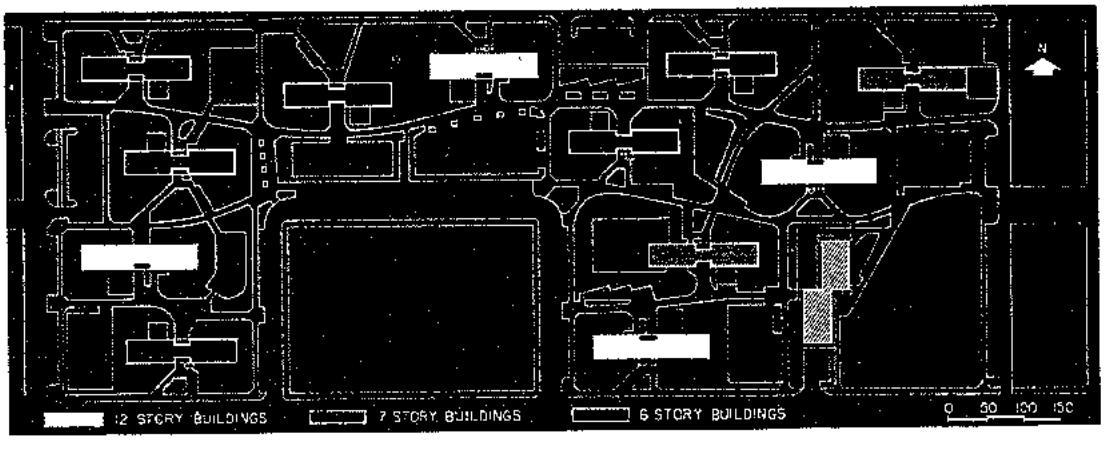





LOBBY
SERVICE
KITCHEN
DINING
FOYER
LIVING
BED ROOM
BED ROOM
BED ROOM


BED ROOM
LIVING
DINING
KITCHEN
BEDROOM
LIVING
DINING
BED ROOM
LOBBY




N
12 STORY BUILDINGS
7 STORY BUILDINGS
6 STORY BUILDINGS
0 50 100 150

존 제이 코란 아파트먼트

센트루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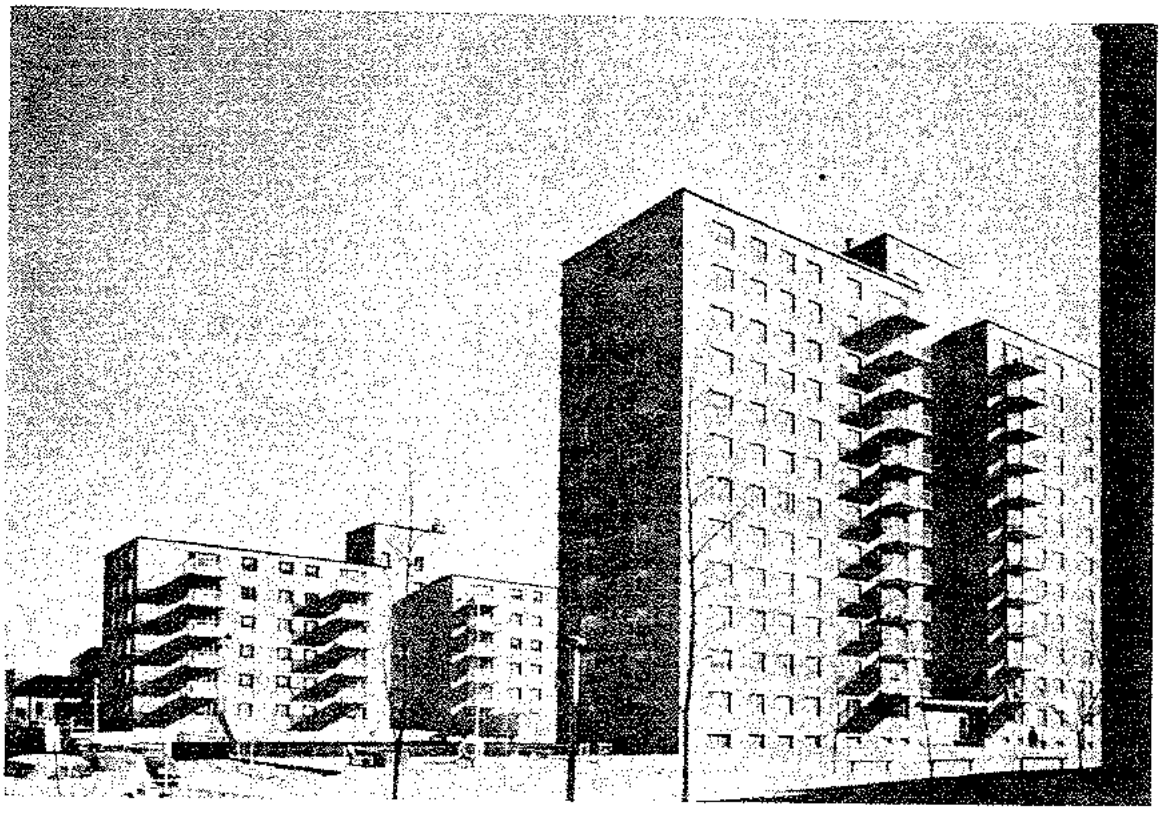
핼무드, 오바타, 카사바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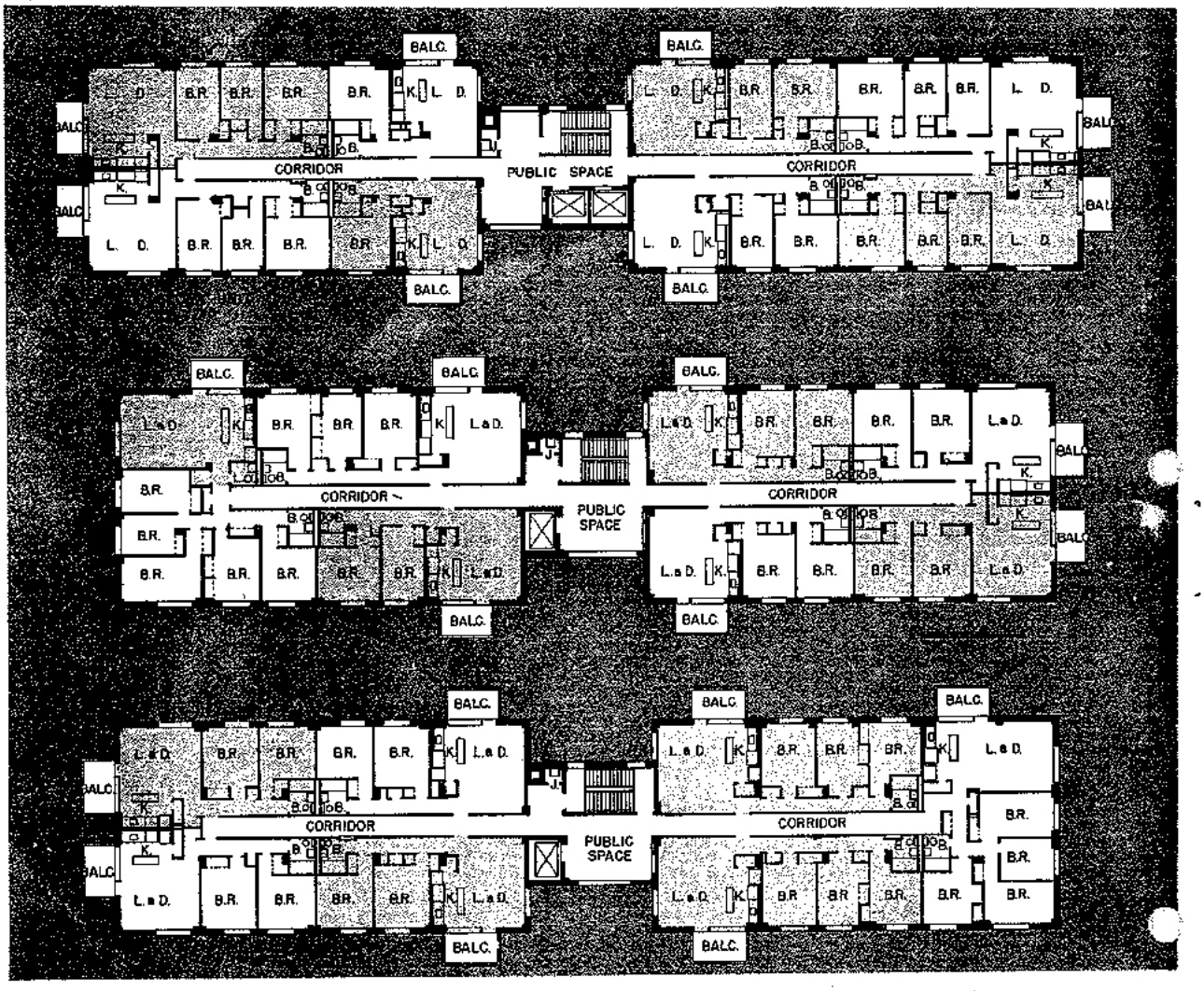
이 아파트는 상을 여러가지 받았다. 그만큼 객관적인 여러 장점을 갖고 있는 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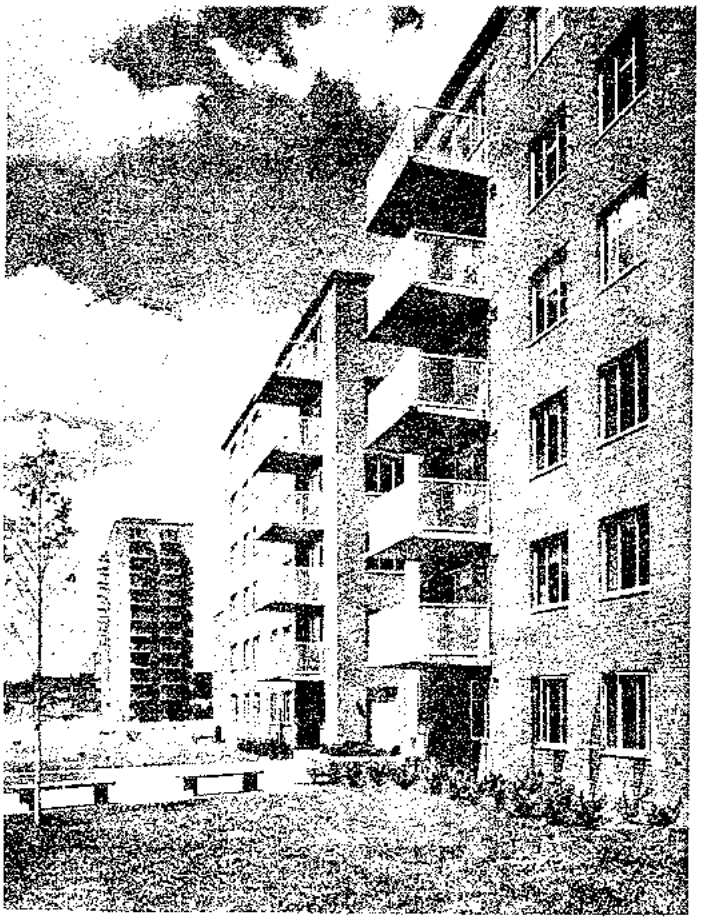
설계의 첫 아이디어는 사방으로 열린 부지를 주거지역답게 조합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공공주택공사의 경제적인 평면계획속에 상호이익을 추구했다. 이 프로젝트는 수입적이고 어린애들이 많은 저소득층을 위한 집합주택이다 건축가들은 그런 프로젝트들이 갖게되는 낙인을 분식하려고 애썼다. 그런 의지는 연대편성 같은 느낌을 제거하는데서 시작되었다.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건물들 사이의 공간은 한 단위들로서 세심하게 연구되었고 건물 높이를 서로 다르게 하며 디자인 디테일로서 입구는 독립되도록 하였고 발코니 도어에는 우고색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주거감각에의 강조를 그런 프로젝트들이 갖는 기관적 분위기를 감소시켰고 그것은 동시에 평면계획에 그치는 정적어프로치속에 디자인 어프로치를 합리화 시킨 것이다.

이 지역은 도시 중심부에서 여섯 블록 떨어진 불량 지구라 높아야 사야가 열린다. 건폐율은 11.3%이며 주거 밀도는 에이커당 44.3 가족(149인)이다. 옥외의 휴게 장소 놀이터 빨래터 등에서 지층과 지하실에서는 세탁실, 창고 그리고 놀이 기구 등이 있다.

기준 주거 단위의 실물대모형 전시를 통해서 입주자와 관계된 많은 사람의 좋은 의견이 최종 설계에 반영되었다. 그 결과 최대의 프라이버시를 가진 일자형 건물로서 센트루이스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여름 바람을 향해 방향지워진다. 각 아파트의 발코니는 각 집의 프론트 포치 되어있다.




BALC.
L. D.
B.R.
K.
CORRIDOR
PUBLIC SPACE
L.&D.
PUBLIC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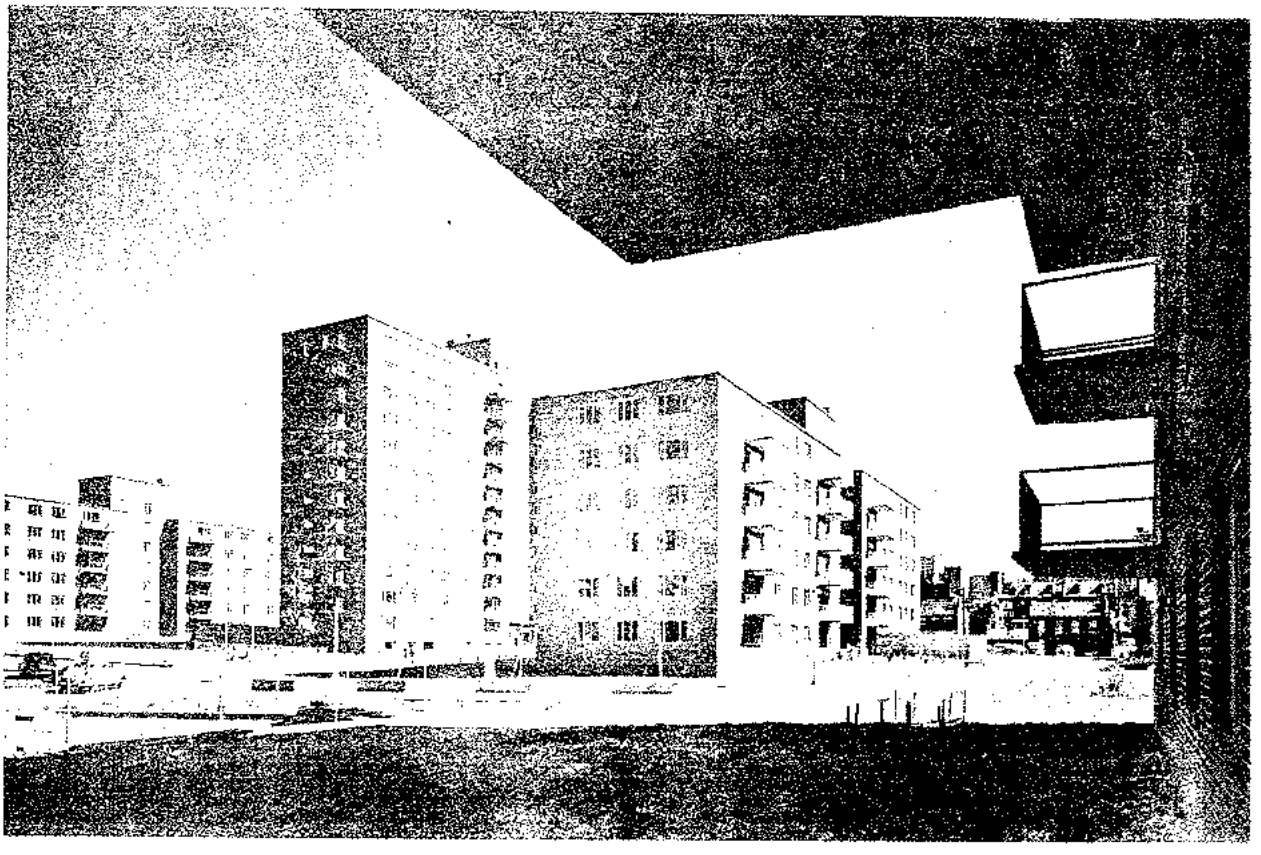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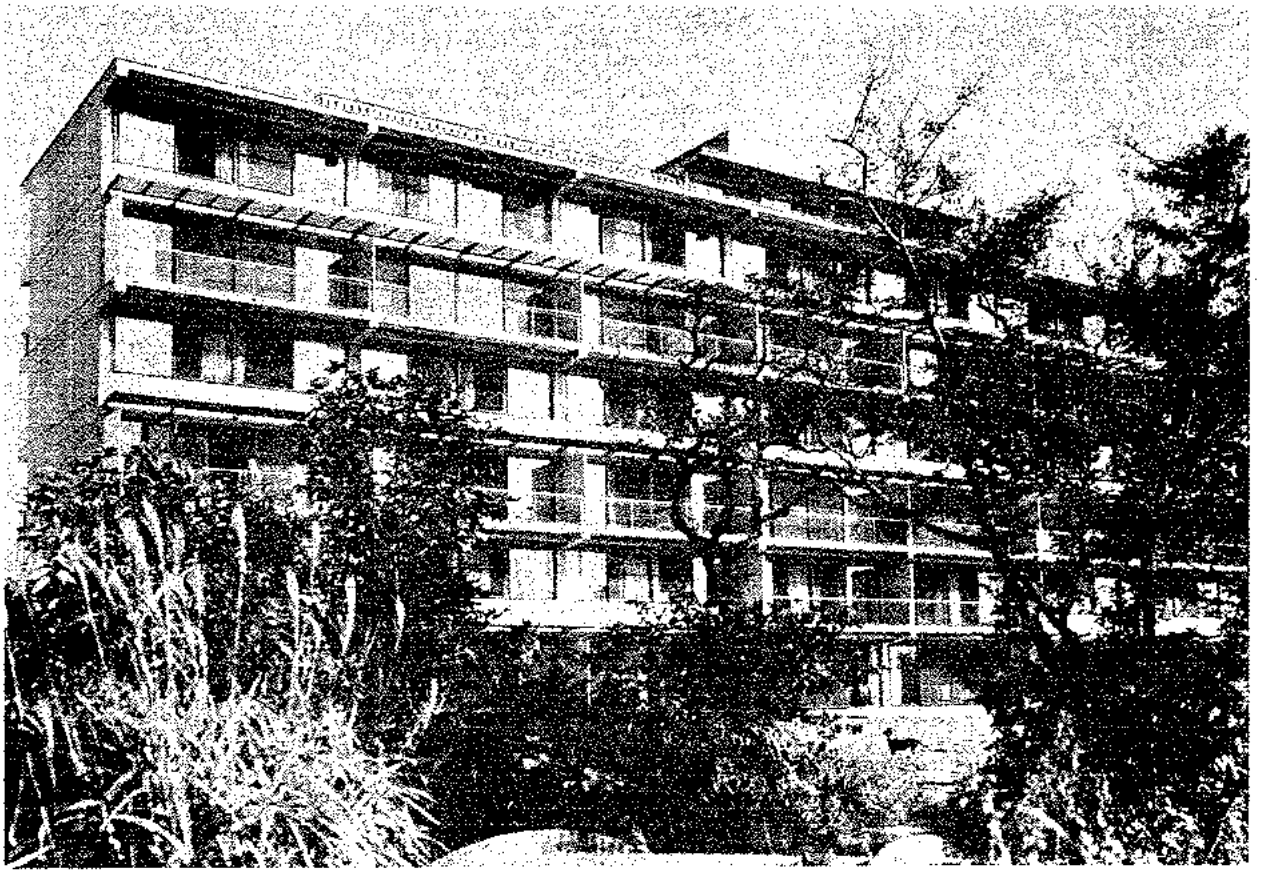
평균 주거 단위는 4.91室, 2.42침실을 포함한다. 입주금 상환은 장기다. 입주는 1950년 봄부터 받아들여졌다.

가격은 $ 4.65 per sq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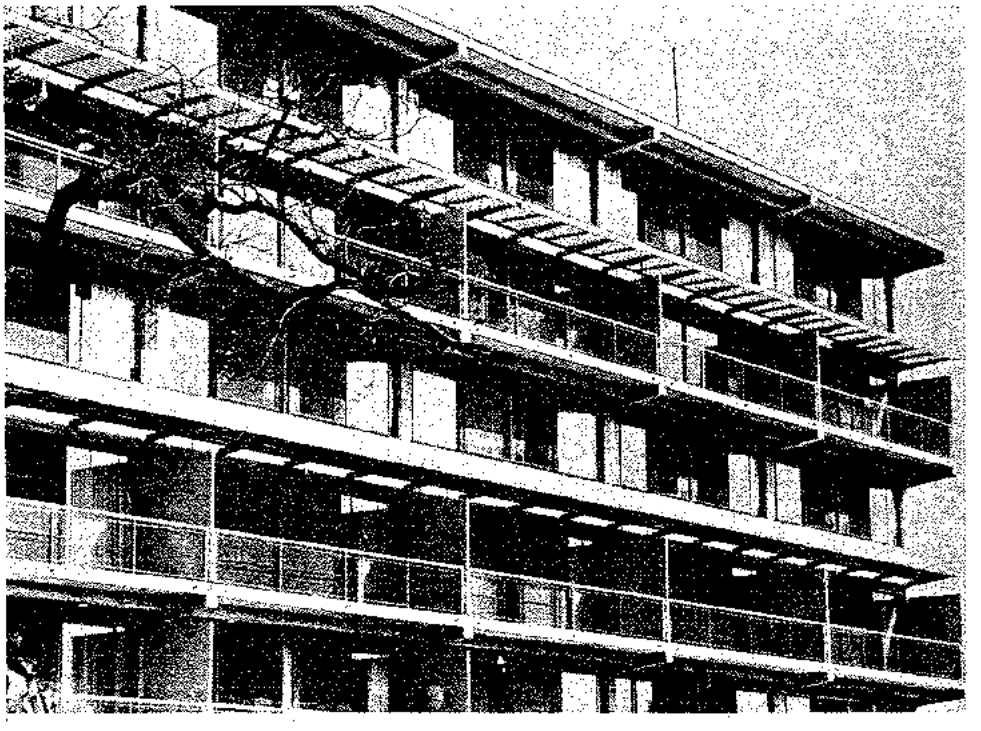
6, 7층 그리고 12층 높이의 세 기본 형이 704세대 3,070인을 수용한다 주거형식별 비례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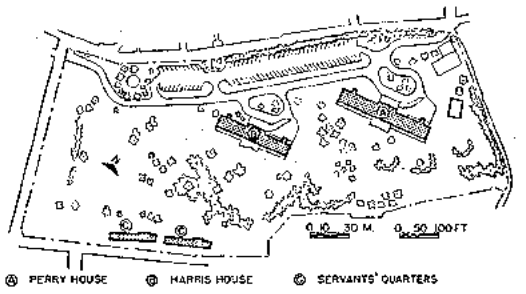
96…… 1 침실단위……13.65%
284…… 2 침실단위……40.30%
276…… 3 침실단위……39.30%
36…… 4 침실단위…… 5.13%
12…… 5 침실단위……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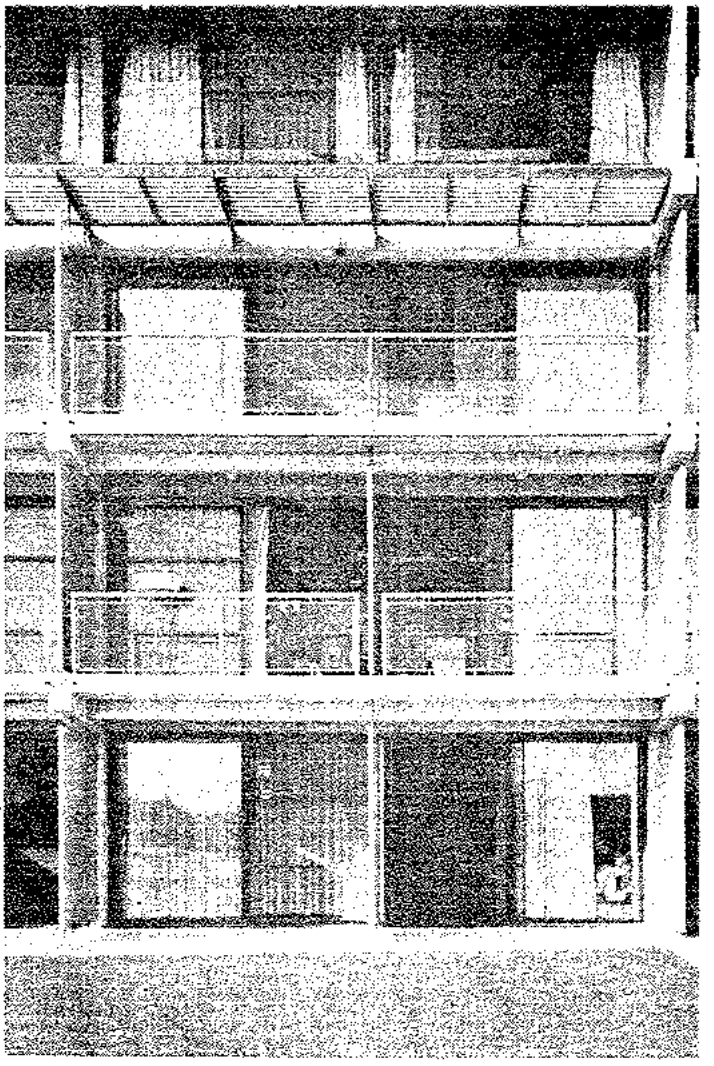




미국대사관 직원을 위한 주거,
동경, 일본
안토닌 레이몬드, 엘엘 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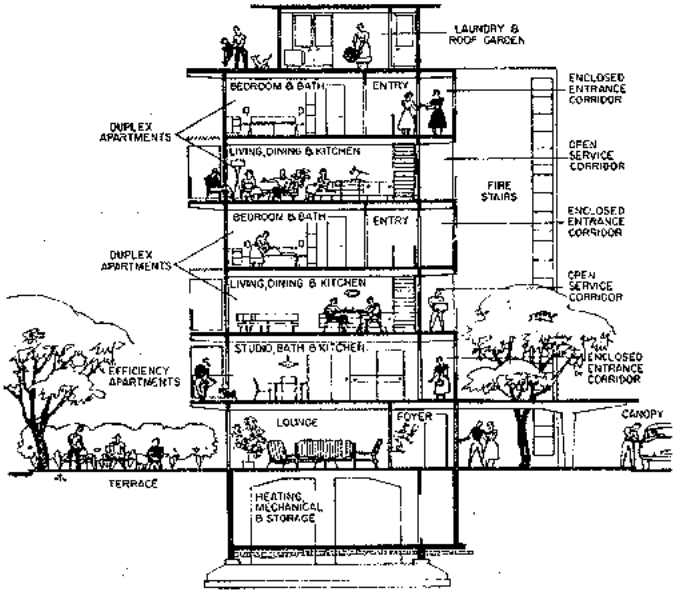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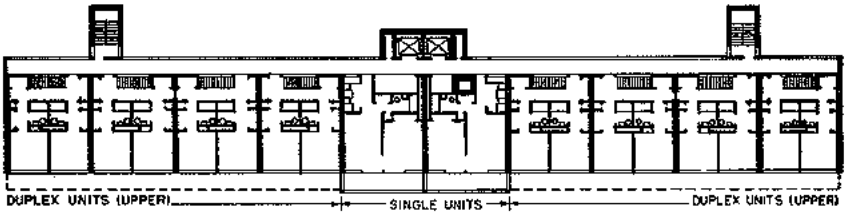


집합 주거라는 것은 한 마을이다. 그것은 그 이미지에서도 그렇지만 가능의 다양한 복합에 있어서도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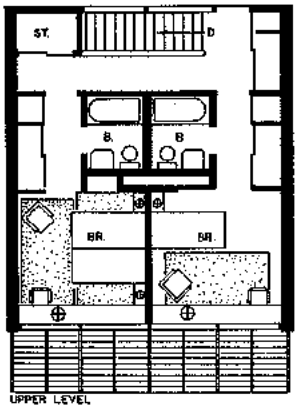
동일한 가족 구조로 이루어지는 마을이 있겠는가. 집합주거는 다양한 여러 가족의 얽힘을 매듭지워서는 안된다. 특히 이런 특수 주거에 있어서는 여러 생활의 함께 있어서 서로 다치지 않도록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서로 다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가 늘 하는 식의 '분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한 생활로서의 분계를 이루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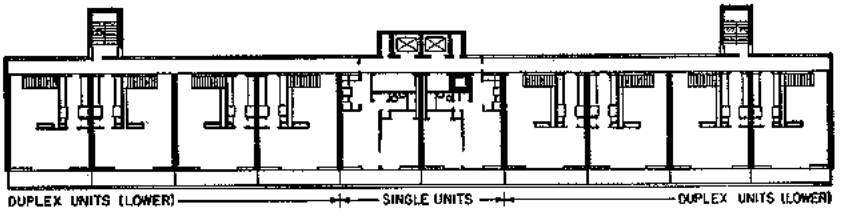
서로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한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한 생활로서의 분계를 이루는 것이 문제다. 그것은 각 생활권이 우선 제대로 되고 나서 가능한 일이다. 일본에 있는 집을 구태어 소개한 것은 참드물게 그러한 집합주거의 기본기가 분명하게 우루어져 있다고 보여졌기 때문이다. 인상이 집一마을 같다는 점도 물론 크게 중요했다. 마을 같다는 말은 집들이 서로 독립한 채 친화된다는 뜻이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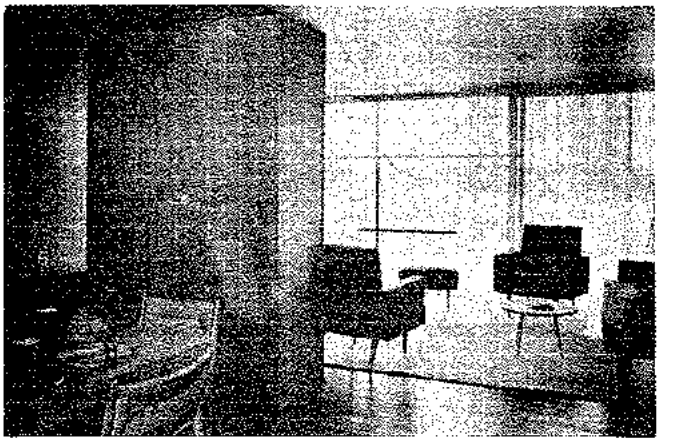


4 TH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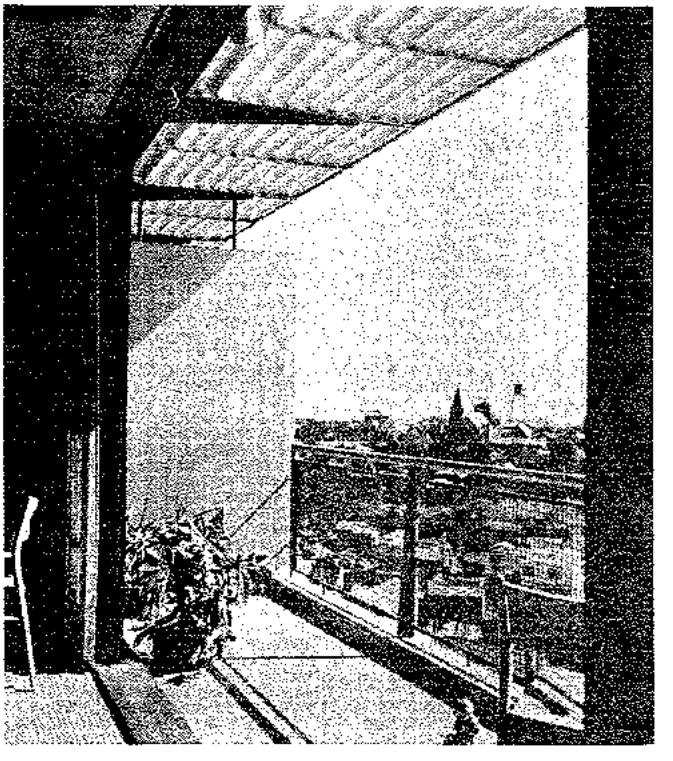
3 RD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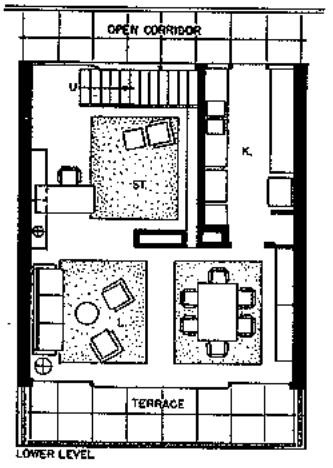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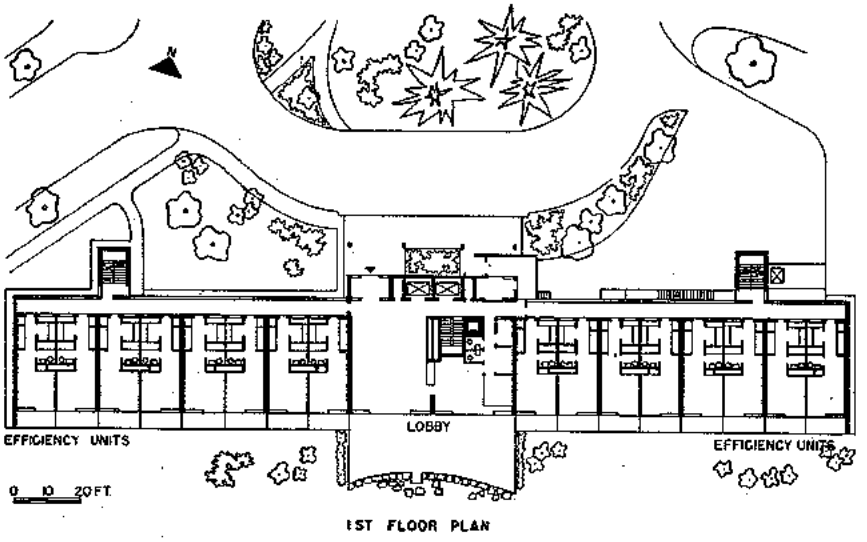
중복단위(duplex unit)

중복 단위는 3층~6층에서 가운데 부분의 일실단위를 제한 모두를 차지한다. 입주자들의 입구는 상부의 막힌 복도로부터 이어져 침실은 거실 부분을 거스리지 않게 되며 동시에 일할 사람과 입주자의 동선을 분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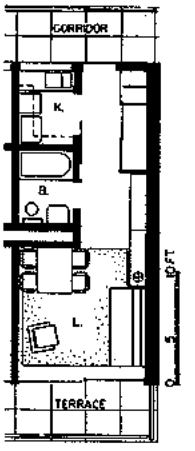
아랫부분의 열린 일꾼들의 복도는 입구와 부엌에 이르는 길과 단면 환기에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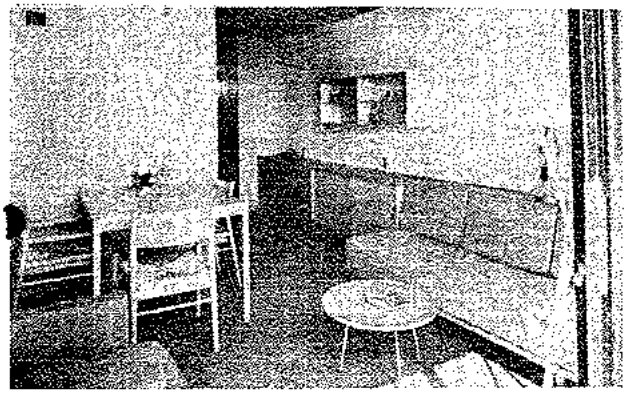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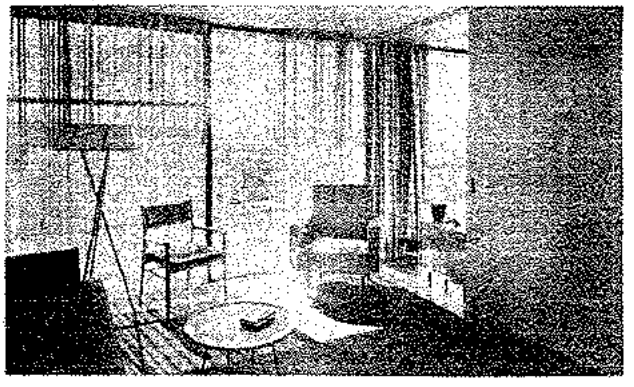




1ST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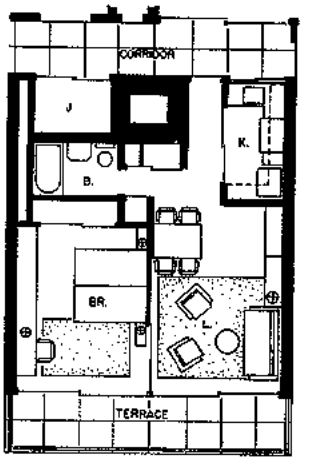
효율단위(efficiency unit)

1, 2층은 효율단위다. 독신자들을 위해서 계획된 이 단위는 living-sleeping room과 부엌과 욕실로 되어 있다.

사진에서 convertible bed unit가 보인다. 모든 가구는 건축가가 디자인 했다

일실단위(single bedroom un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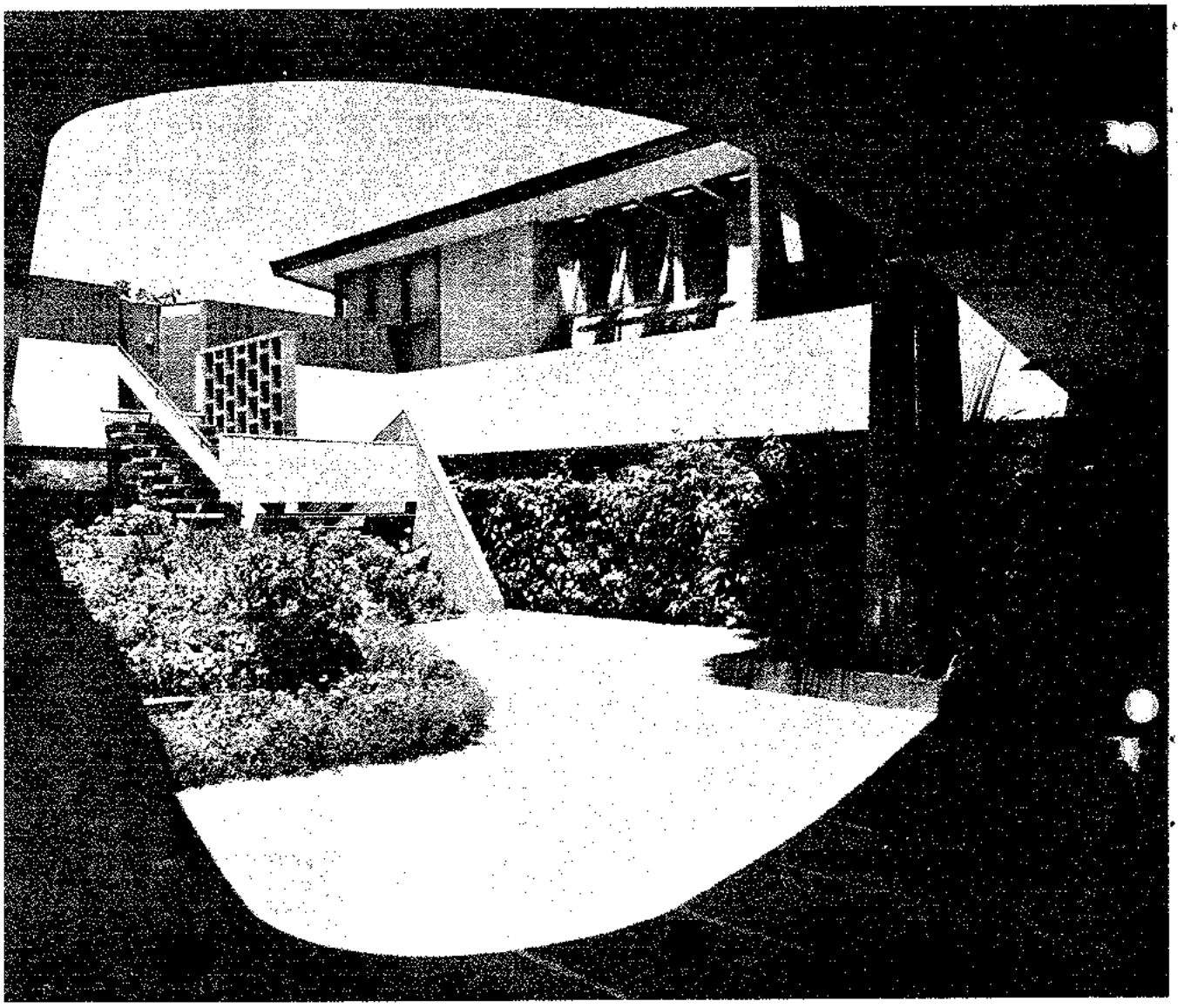
건물 중앙부의 두 베이에 일실 단위가 있다. 침실과 거실 사이의 미서기문은 낮의 개방과 밤의 프라이버시를 제공한다. 모든 아파트먼트의 벽마감은 대부분 베니야다.



벨 에어 가든 아파트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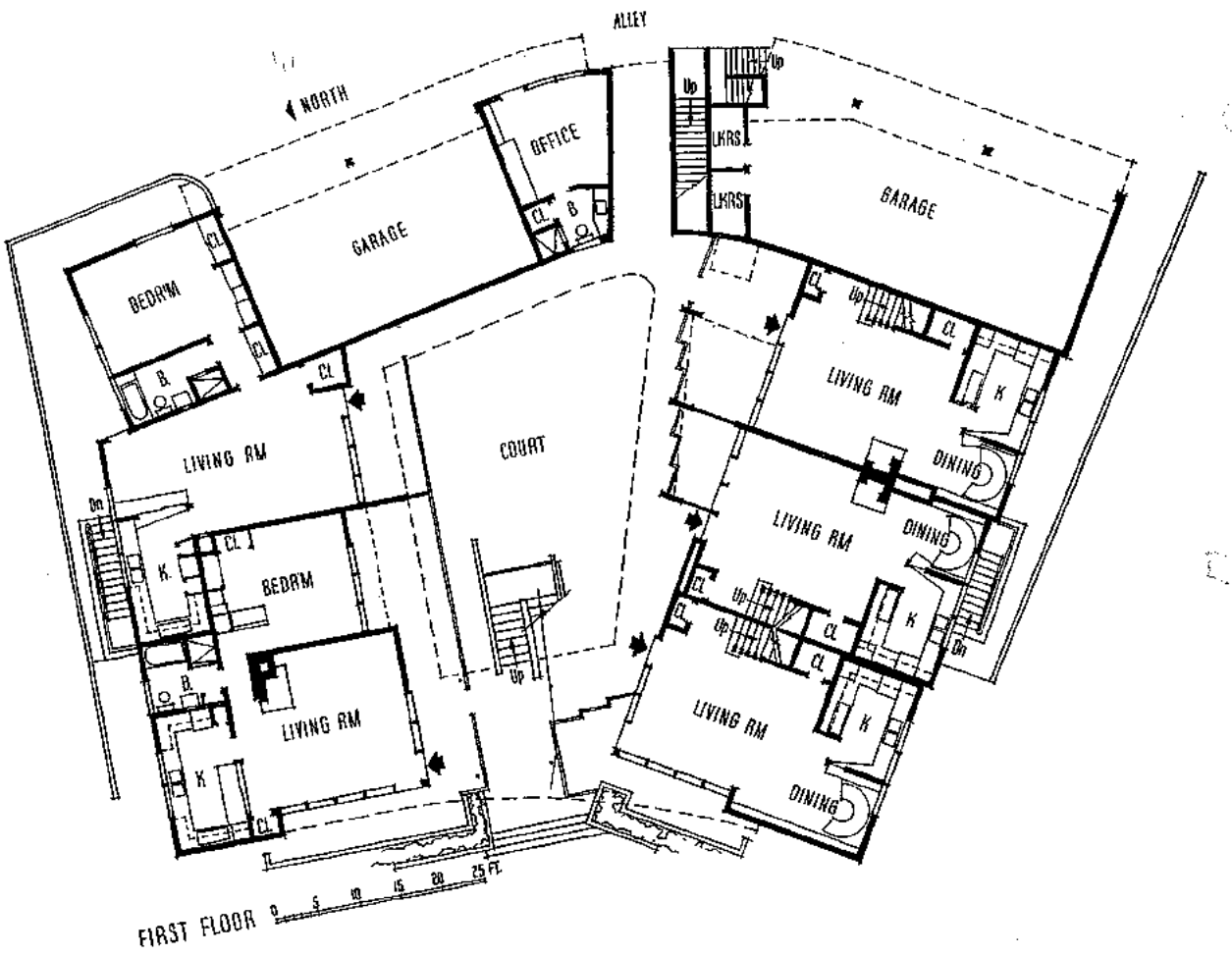
웨스트 로스 안젤러스 캘리포니아

퀸시 존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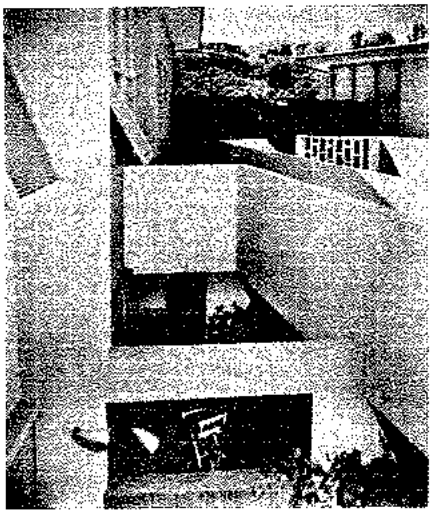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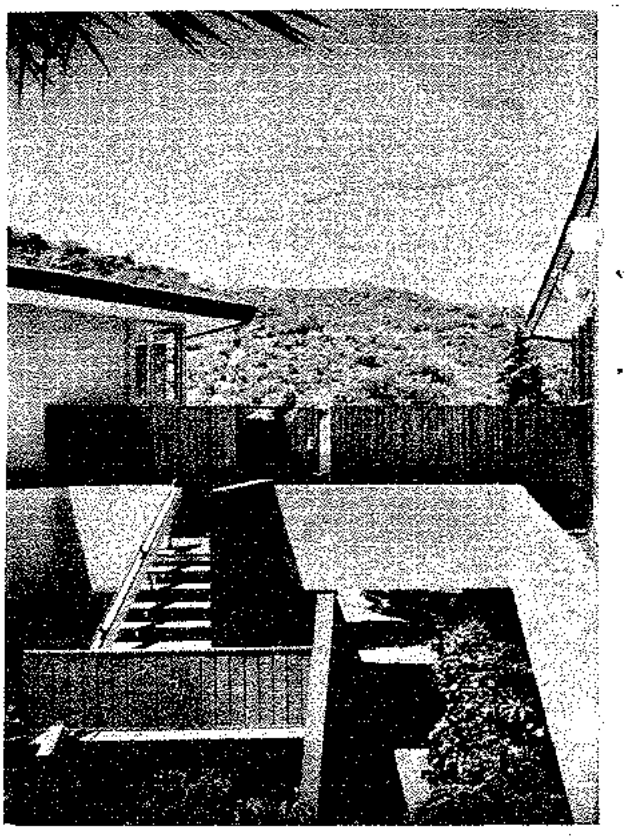
우리에게 대단히 암시적인 좋은 주거형식의예다. 여기서 이웃은 한 일상 생활의 기본 단위가 되어있다. 좁은 땅들에 비집고 들어 앉은 단독 주택의 천편일률적인 나열이나 혹은 혹은 질이 나쁜 여관 같은 집합주택의 와중에서 좌초되어 버린 우리들의 주거형식의 한 돌파구를 암시하고 있다. 영세화된 대지, 사라진 이웃을 새로운 주거의 합리로서 변화시키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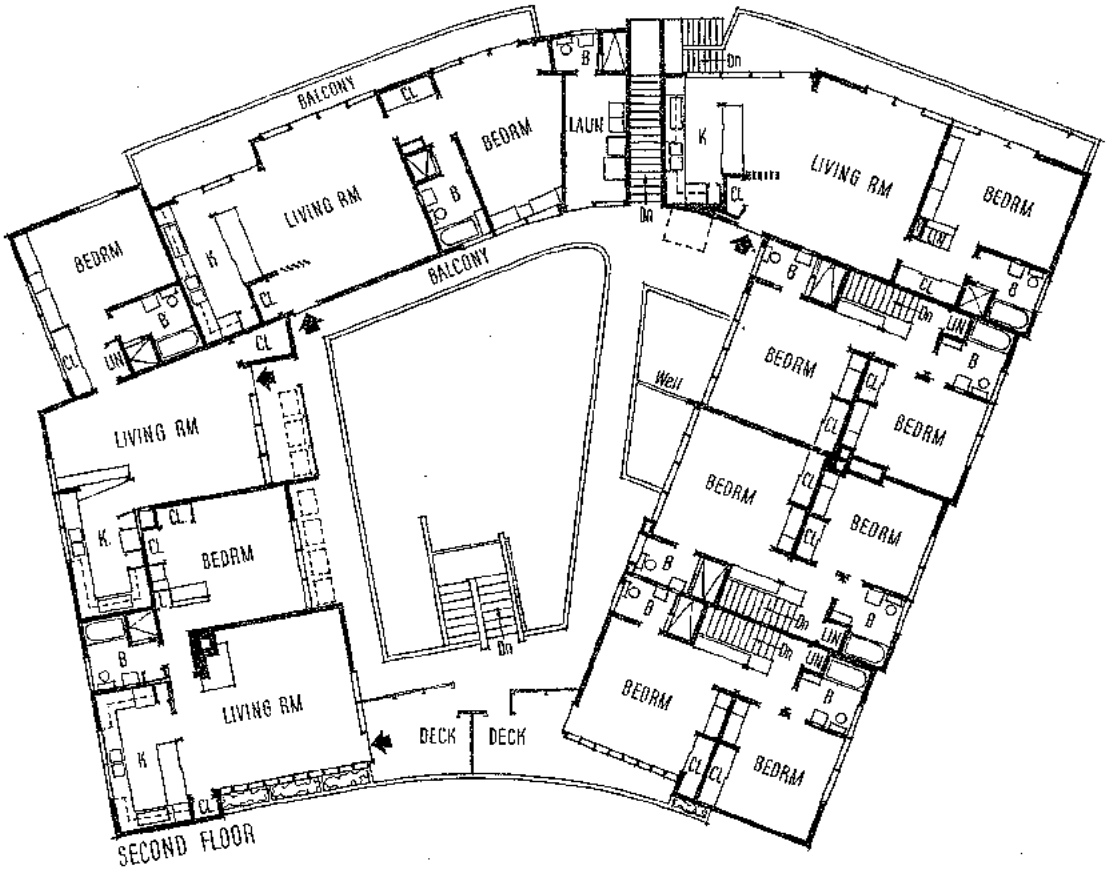
땅 주인은 처음 비교적 비싸고 적은 부지위에 고급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다. 투자효과와 기본계획의 여러 관점에 따른 분석과 연구를 거쳐 여섯개의 one-bedroom unit와 셋의 two-bedroom unit가 안전한 투자로 결정 되었다. 고울은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건축가는 여러가지 문제에 부닥쳤다. 주거의 감각, 게너지 그리고 각 unit에 따른 최소한의 사적인 외부 공간의 그것이다. 최종적인 해결은 제한된 부지의 범위내에 유쾌한 생활을 위한 여러 장점을 부합시킨 것이다. 공동정원 주위의 건물 중심부는 입구로 그리고 큰 그룹을 유지하는 공간 단위로 쓰여진다. 부가하여 각 unit 는 프라이버시를 위한 6ft 높이의 울이 있는 스크린 된 작은 테라스를 갖는다. 랜서캐이핑은 건축가가 모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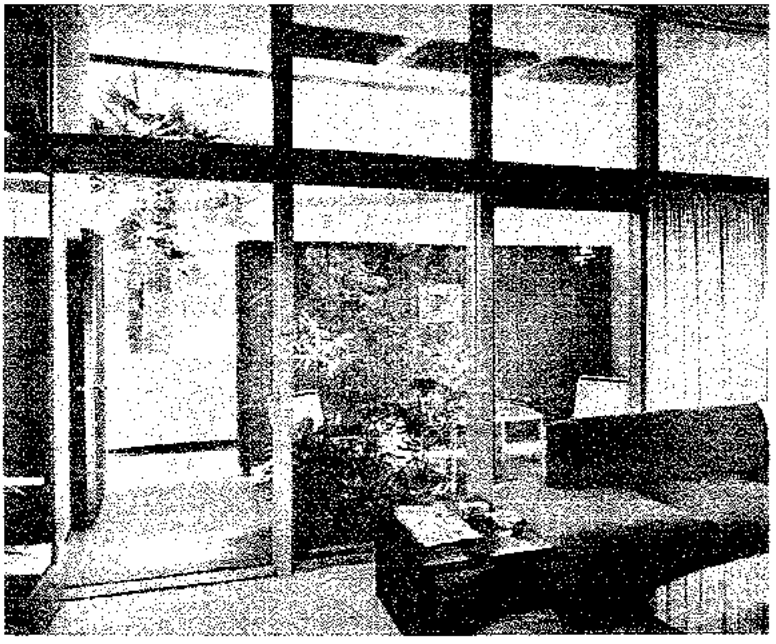

ALLEY
NORTH
OFFICE
GARAGE
BEDRM
CL
B
LIVING RM
COURT
Dn
K
BEDRM
LIVING RM
Up
LKRS
GARAGE
LIVING RM
DINING
LIVING RM
DINING
LIVING RM
DINING
0 5 10 15 20 25 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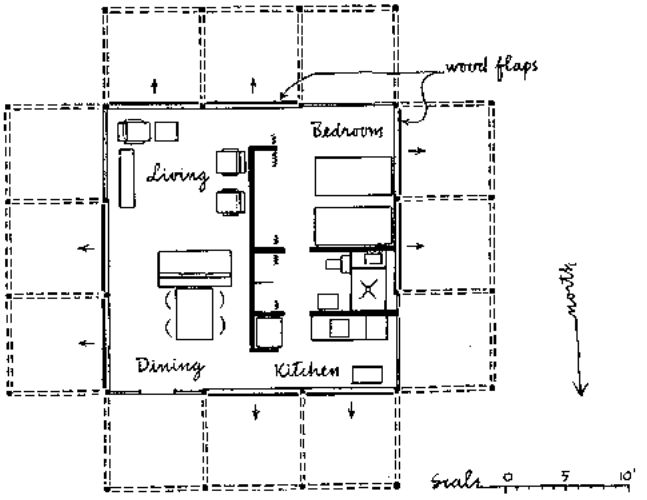
FIRST FLOOR






BALCONY
CL
BEDRM
LAUN
B
Dn
K
LIVING RM
BEDRM
LIVING RM
BEDRM
K
B
CL
LIN
BALCONY
CL
LIVING RM
K
CL
BEDRM
B
LIVING RM
K
CL
DECK
DECK
Dn
Well
BEDRM
BEDRM
BEDRM
BEDRM
BEDRM
BEDRM
SECOND FL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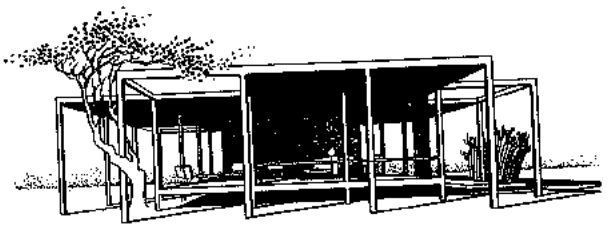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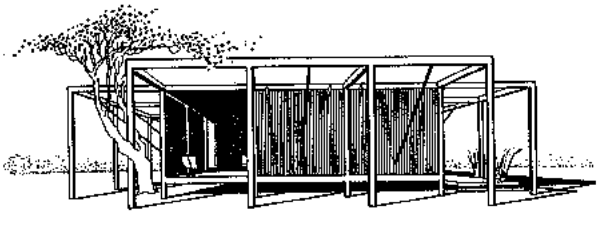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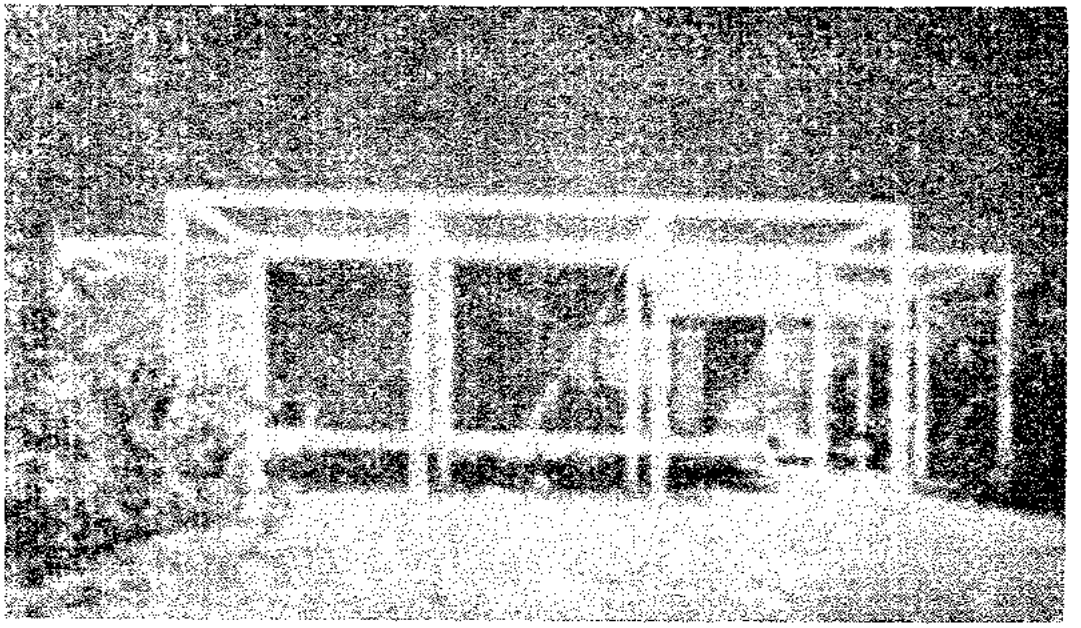
워커하우스

위 치 새니벌 아일랜드, 플로리다
건축가 폴 루돌프
임 자 워커박사부부

공사비: 650sq·ft at $ 16.10per sq·ft in 1953
재 료: 목재기둥과 린텔; 벽은 판유리와 위에 달린 처마역할도 하는 뚜껑. 뚜껑은 목재 후레임이며 메조니트로 칠해졌다. 전부 건식 재료다. **평 면**:
평 면: 어디로보다 완전히 단순한 정방형 움막집이다. 본채가 완성되면 손님용으로 쓰도록 계획되었다. 사방의 세벽은 모두 같은 목재판으로 구성되었다. 그중 하나는 고정유리판 혹은 입구문, 나머지 두 벽은 고정유리면과 밖의 평형된 나무 뚜껑으로 되어있다. 이 집이 쓰일 때 이 뚜껑들은 해막이로 들려 쓰여져 내부는 스크린이 있는 리빙패빌 리온이 된다. 안 쓸 때 뚜껑은 닫힌다. 정방형 안에는 있을 것은 다 있다. 거실, 식사실, 침실, 욕실 게다가 작은 부엌도 있다.
경제의 요인: 선으로의 운반을 고려해서 가벼운 재료가 쓰여졌다. 모듈러 방식이 낭비를 없애도록 쓰여졌다. 재료의 가짓 수가 최소한으로 제한되었다. 모든 부재는 규격화되었고 대부분이 같은 크기며 미리 만들어졌다.







실지공간의 가장 유용한 사용은 내부공간의 실질적인 확장이다. 외부공간의 사용은 물론 기후와 날씨에 좌우되지만 시각적인 확장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이런것은 유리벽의 사용, 벽을 바깥으로 뚫어내는 것, 천정을 처마선까지 같이 밀쳐내는 등등의 방법으로 성취할 수 있다. 이런 트릭은 현대건축의 정통적인 방법이다. 거실과 정원을 서로 티워 놓을 때 그 둘은 서로 뒤섞인다. 그것은 이질적인 공간의 뒤섞임이기도 하지만 그 두 이질적인 공간은 우선 자신의 영역밖의 가능성을 차고나가 새롭게 다시 열린다. 이 워커하우스는 그런 국부적인 테크니크를 집 전체에 도입해서 훌륭하게 성공한 집이다. 건축가 폴 루돌프는 이 조그만 집에서 가장 경제적인 평면형태인 정방형을 택했다. 정방형 내부는 최소한의 분할이 있고 사방으로 열려져있다. 이 집은 가장 중요한 현대건축 50개중에 선정되었고 미국에서 가장 좋은 집 20개 중에도 선정되었다. 여러가지 배울 점이 많은 집이다.

건축가 에드워드 디 스톤씨의 집

위 치 몬턱 포인트, 롱 아일런드, 뉴욕

건축가 에드워드 디 스톤

임 자 에드워드 디 스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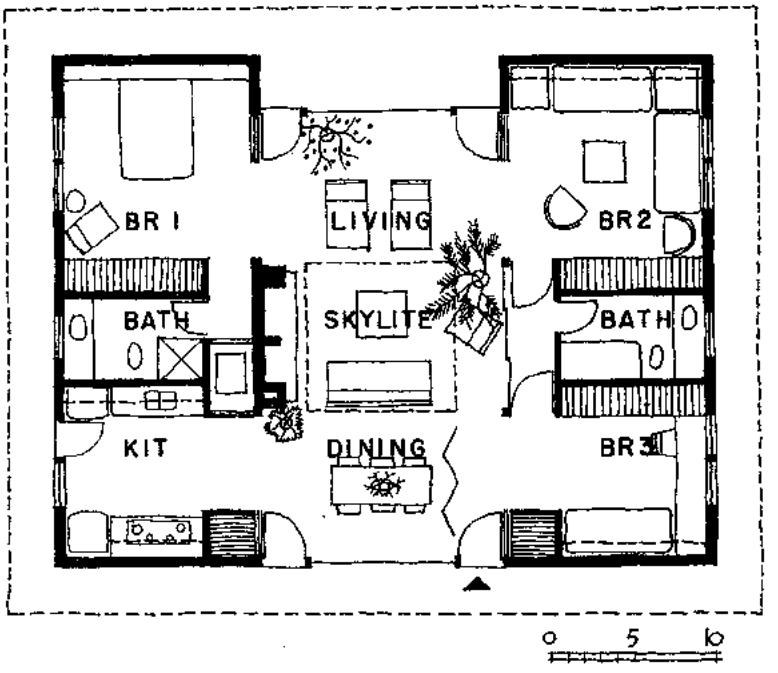
공사비 : 전적가격이 2만불이하였다. 1200sq·ft인데 sq·ft당 약 16달라가 들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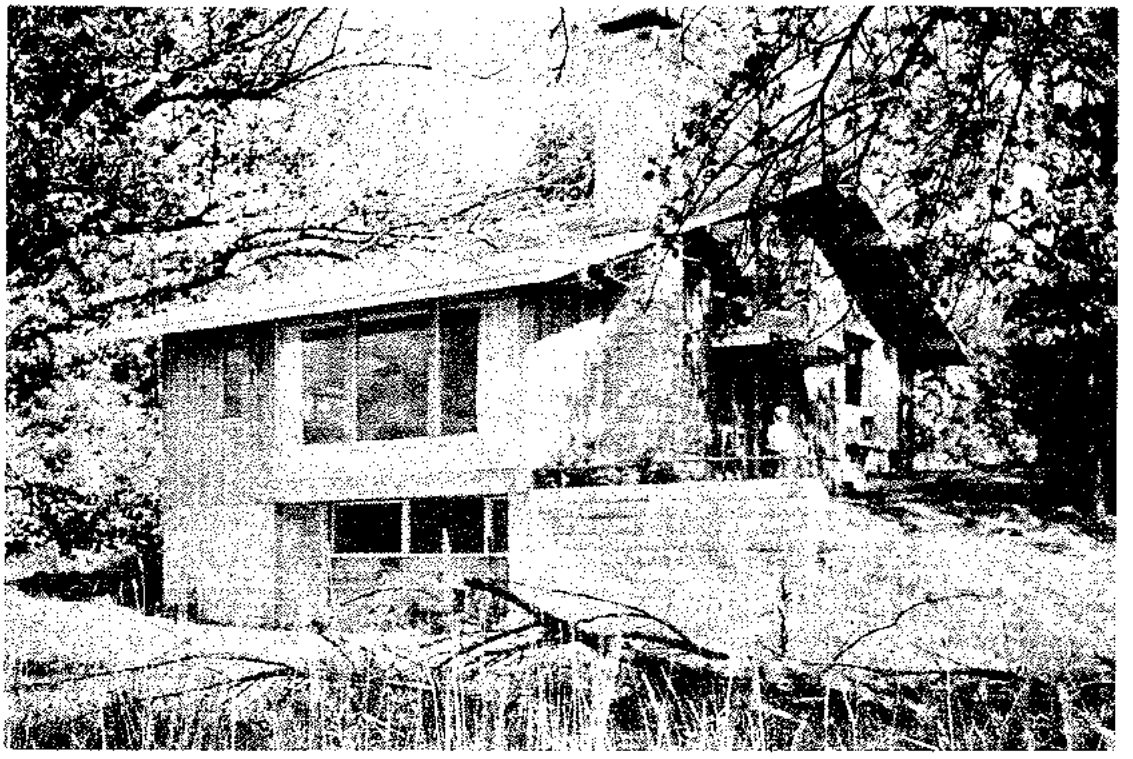
재 료 : 기둥과 빔 구조, 콩크리트 바닥에 삼나무를 입혔다., 2ft module, 플라스틱천창, 여름에는 대나무 블라인드를 밖에 세운다.

평 면 : 1,200sq·ft의 집에 큰 공간을 하나 갖기 위해서 건축가 에드워드 스톤은 거실과 식사실을 장방형평면의 가운데 두었다. 그 공간감은 경사지붕과 바닥에서 천정에 이르는 양측의 유리벽 그리고 큰방 중앙에 있는 플라스틱 천창에 의해서 고조된다. 이 중앙공간 좌우에 두 침실과 두 욕실 그리고 침실하나와 부엌이 마주 있다. 침실들은 욕실과 벽장으로 분리되어 프라이버시가 유지되어 있다. 벽 난로벽은 공간분할을 겸한 소리의 차단역할을 한다. 침실은 거실공간과 미서기문으로 차단된다.

경제요인 : 홀웨이와 많은 간벽의 제거

제한된 예산으로 된 대부분의 집들이 가능한 공간을 경제화하고 가질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상식이다. 결국 공간의 가장 유용한 사용을 계획하는 것이 건축의 기본이다. 영성하게 설계된 작은 집은 보기에도 멋적다. 한편 제한된 공간의 잘 계획된 상태는 살기에도 유쾌하다. 복도가 없고 사방으로 띠었으면서도 방들은 또 아늑한 이집은 그런 점에서 뛰어나다.
그러나 무엇보다 작은 공간을 크게 보이게 한 방법은 대단히 좋았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위해서 거울을 벽으로 달아 두 배로 깊이를 연장한다든가 어두운 색갈을 동원해서 벽이 뒤로처져 보이게 한다든가 하는 트릭을 먼저 생각하다. 그러한 방법은 제한된 감각에 호소하는 순전한 속임수다. 제한된 공간의 확대된 모습은 그 속에서 행동의 여유 생활의 여유를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 늙은 에드워드 스톤의 이 조그만 집은 그의 젊었던 시절의 화사한 고전적 입면보다 가치있고 좋은 건축의 모습을 보여준다.





브라운 하우스

위 치: 사우스 벌링턴, 버몬트
건축가: 랜포스 컴턴
입 자: 던컨 에프 브라운

공사비: $20,000 in 1951. 1440 sqft at $13.50 per sqft.

재 료: 목재가구. 널판과 4×10 빔시스템. 규격품 알미늄 미서기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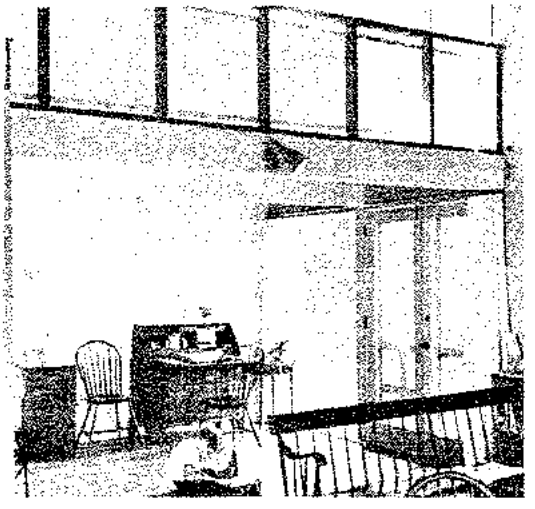
평 면: 두 작은 애들을 가진 던컨 브라운씨는 크고 공감이 있는 부부침실과 크고 시원한 거실을 원했는데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가 없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가는 터진 곳에 부부침실을 두었다. 이 널찍한 침실은 프라이버시가 요구될 때는 커튼으로 닫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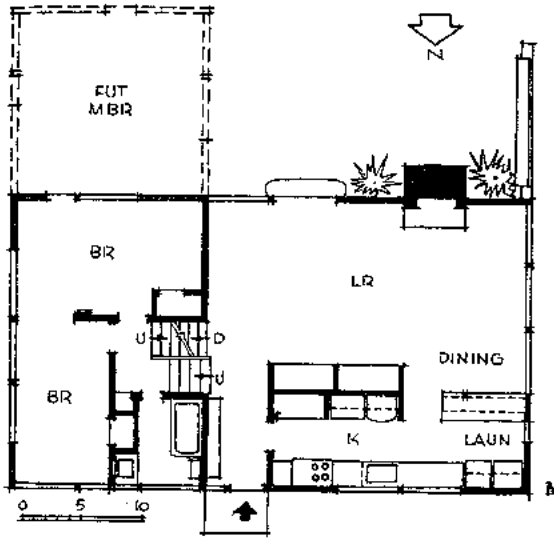
장차 부부침실이 새로 첨가되면 현재의 것은 손님방으로 사용된다. 브라운씨는 또 어린애들의 침실은 놀이방으로 열려지기를 원했으나 침실 둘을 겹쳐놓아 해결했다. 이 두 침실은 애들이 커지면 분할될 것이고 그때 그들은 독립된 각자의 방을 갖게 될 것이다.

경제요인: 널판과 빔 구조며 널판이 천정으로 그냥 쓰인다.

굴뚝은 칠한 콩크리트 블럭이다. 절약은 젊은 시절의 부부침실을 발코니 형식으로 만들어 후에 손님방으로 쓰게하고 어린애들의 침실이 놀이방으로도 쓰여지게 한 디자인 해결에서 대부분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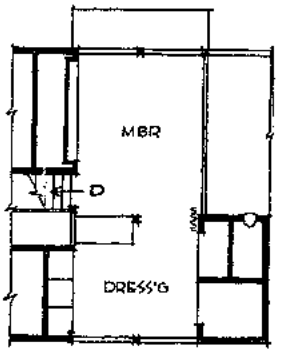
투자의방법: 더 절약하고 싶을 때는 시방서에서 몇 가지를 바꾸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위생설비를 개략만하고 수세실을 밴 아래층에 두고 마감을 모두 건식으로 하며 창호를 목재 그대로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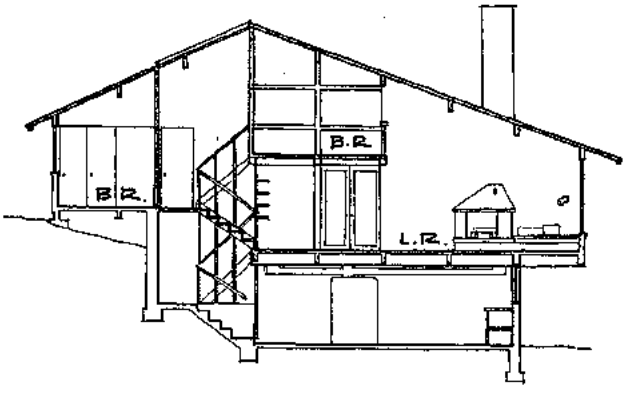


MAIN FLOOR

BEDROOM-BALCONY FLOOR



이집은 공간의 경제적 이용에 관해 매우 중요한 점을 보여준다. 단이 진 평면은 펼쳐진 평면보다 경제적이다. 단이 없는 집은 물론 여러가지 많은 매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비 경제적이기도 하다. 건축가 컴턴씨는 "뉴 잉글란드에서 펼쳐진 평면은 경제적이지 않다. 제한된 예산으로 공간감을 얻기 위해서는 단을 지우는 방법이 좋다. 추운 지방에서 단을 엇갈리게 하는 것은 경제적인 방법이다" 단면에서 보이듯이 엇갈린 단은 방의 배분에서도 좋은 해결을 제시한다 침실들과 거실 그리고 서비스 룸들이 서로 엇갈리면서 이루어져 불필요한 내부동선을 줄이면서도 각 방들이 거리감을 가져 펼쳐진 평면에서 얻기 힘든 공간감과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고 있다.



건축법규

건설부 건축과장 박우하

1. 법 일반

1. 법의 존재형식

법은 헌법을 최상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를 이룬다.

헌법—법률—대통령 령—부령—조례—규칙
명령 자치법령

헌법은 국가의 기본 조직과 활동의 근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법이다. 모든 법령은 이 헌법에 의거하여 제정되며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되며 대통령이 공포하는 법이다.

대통령 령(시행령)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이다.

부령(시행규칙)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 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행정 각부의 장이 발하는 명령이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자치단체가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규이다.

규칙(시행규칙)은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을 받은 범위 안에서 또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명령이다.

2. 법의 효력

법령은 관보로서 공포된다. 원칙적으로 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 하므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헌법 제49조 제7항). 위의 「특별한 규정」은 부칙에 규정된다. 법의 효력에 관한 원칙으로 다음과 같은것이 있다.

첫째 : 법률 불소급의 원칙.

둘째 : 신법은 구법을 개폐한다. (신법 시행 후에도 존속하게 되는 관계를 규칙 할때는 이를 경과 규정으로써 부칙에 규정 한다).

셋째 : 특별법은 일반법을 깨트린다.

3. 법의 해석

법을 적용시킬 때에는 법의 규정의 진의 내용을 확정해야 하는데 이를 해석이라 하며 다음 같이 대별한다.

유권해석 입법해석 : 용어정의
사법해석 : 판례
행정해석 : 주무부 장관
학리해석 문리해석
논리해석

유권 해석은 국가 또는 그 기관이 행한 해석으로서 공적 구속력을 가진다. 학리 해석은 법문 자체, 입법취지, 그 방법을 적용할 사물의 성질 등을 기초로하여 어학적 논리적 방법에 의하여 법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다.

4. 조문구성

법률의 내용을 보면 보통 조로 구분되어 규정된다. 각조에는 괄호속에 표제가 표시된다. 조의 내용이 복잡 할 때에는 이를 항으로 구분하되 항수가 그 이상이면 ① ② ③…의 항 번호를 붙인다. 조 또는 항에서 사항의 명칭등을 열기 할때에는 호로 구분하되 호는 1, 2, 3…(횡서인때) 또는 一, 二, 三…(종서인 때)의 호 번호를 붙인다. 호를 더 구분 할때는 (가) (나) (다) …로 구분한다. 하나의 조, 항 또 호 안에서 문장을 끊을 때가 있다. 이때 전자의 규정을 "전단(본문)" 후자의 규정을 "후단(단서)"이라고 부른다. 후단은 보통 또는 「다만」으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전단의 규정의 예외적 조건 또는 제한적 조건을 규정한다.

5. 법문 해석의 유의사항

법문에 쓰이는 일반적 용어로서 특히 유의 해야 할것은 다음과 같다.

이상, 이하, 이전, 이후, 넘은, 미만…… 수량적 또는 시간적으로 비교할 경우에 「이상, 이하, 이전, 이후」 등은 기산점을 포함하고 「넘은, 미만」 등은 기산점을 포함하지 않는다.

내, 안…… 시간을 표시 할때는 「내」로, 지역이나 면적을 표시할때에는 「안」으로 한다. (예 : 기간내, 범위안, 지역안)

또는, 이거나…… 2개 이상의 어구를 선택으로 연결 할때에 사용된다. 큰 선택적 연결에는 「또는」을 쓰고 작은 선택적 연결에는 「이거나」를 쓴다. 그리고…… 2개 이상의 어구를 병합적으로 연결할 때에 사용된다.

준용, 적용…… 유사 내용의 조문을 되풀이 하지않고 그 조문에 필요한 사항만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이 준용이다. 적용은 그규정의 본래의 목적을 변경하지 않고 실제사실에 운영되는 것이다.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는 병합적 지정에, 후자는 선택적 지정에 사용한다.

전2항, 제2항…… 전자는 해당항이 전의 2개항을, 후자는 제1항 다음의 제2항을 가르킨다.

헌법

제49조(법률의 제정, 공포,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법률의 발효)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전항의 기간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안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 하여야 한다.

전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 하므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Ⅱ. 건축법의 사명과 내용

1. 건축법 시행의 목적

본법은 우리나라 건축물의 질의 최저 기준을 정하며 국민의 생활, 보건, 위생 및 재산의 보호를 기하므로써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함이 목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건전한 도시의 발전과 아울러 건축물의 재해 방지에 본법 시행은 자못 그 의의가 큰 것이다.

2. 국민 생활과 건축법

국민 생활에 있어서 건축물의 이용도는 문화의 발전에 따라 기능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현저히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대인의 생활에 있어서도 농어촌등 산간 벽지에 있어서의 그들의 생활 양식이 성질상 주로 주간은 옥외 생활이 시간적으로 대부분을 점용하고 있으나 도시에 있어서의 도시민 생활 형태는 각양 각색이고 그 생활의 대부분은 주로 옥내에서 영위되고 있는 것이다.

옥내 생활이라 함은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건축물을 이용하는 생활인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물의 존재는 도시민 생활에 중심을 이루고 있 으며 건축물이 그들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즉 생활 방식과 업무 형태에 적합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 업무상의 능률, 위생상태(특히 정신위생) 각종 재해의 예방등에 적당한 건축물(구조)인가 등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현대 시민생활의 안전을 보지하기 위하여 제반 시설의 설치 관리에 대하여 규제하는 여러가지 법령이 제정되고 있으나 시민 생활의 일상업무의 대부분이 영위되고 있는 것은 건축물이므로 공공적 견지에서도 경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하에서 적당한 범위내에 최저 한도의 규제를 위한 법규가위한 법규가 필요함은 물론 적극적인 조장, 보호의 규제가 요구됨은 현대 생활에 있어서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여건하에 건축물은 건축물에 대한 최저 한도의 규제와 적극적인 조장,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있는 것으로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바에 건축법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3. 건축 행정의 주관

현하 우리 나라의 건축 행정의 주관은 건설부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되는 건축사 및 건설행정 주택행정 기타 건설조장 정책을 관장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직할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실제 건축에 관한 행정 사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건설부 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 것이다.

(주) 건축법의 운용 및 지도감독은 건설부 주택 도시국 건축과 건축계에서 취급 담당하고 있음.

4. 법제 현역

5·16 혁명 이전 즉 건축법이 제정 공포되기 전에는 제령 제18호(1930. 6. 20 조선 시가지 계획령)에 의하여 건축 및 도시계획 행정이 운영되어 왔는데 5·16 혁명 이후 구법령 정비사업에 의거 종래 조선 시가지 계획령에 규정된 건축 부문과 도시계획 부문을 분리하여 각각 건축법(법률 제984호 1962. 1. 20.)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 령 제 650호, 1962. 4. 10) 동법 시행규칙(건설부령 제11호 1962. 5. 4)로 도시 계획법은 법률 제 983호(1962. 1. 20) 동법 시행령(대통령 령 제 625호 1962. 4. 3) 동법 시행규칙(건설부령 제 14호 1962. 6. 7)로 각각 제정 공포되어 구 법령을 정비하였고 그후 법 운영의 결과 미비된 점을 개정 하였읍니다.

건축법은 1963. 6. 8. 자로 법률 제1356호로 제1차, 1967. 3. 30일자로 법률 제 1942호로 제2차, 1970. 1. 1일 자로 법률 제 2,186호로 제3차 개정을 하였고 동법 시행령은 1964. 5. 21 일자 대통령 령 제 1809호, 1965. 4. 20일자 대통령 령 제 2107호, 1968. 2. 17일자 대통령 령 제 3374호, 1970. 3. 26 일자 대통령 령 제4803호로 각각 제4차에 걸쳐서 개정을 하였다.

질의·응답

질의 : 외국인 저작 설계 도서의 도서 등록 절차에 대한 질의

(지도 223－ 298호)

외국기관 발주 용역설계 또는 외국인이 저작한 설계 도서에 있어 그 나라 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 여부만 확인되면 우리나라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사법 제19조에 의하여 절차 이행 대리를 행하여 왔는 바 이는 편법의 방법이라 사료 되옵기 앞으로 외국의 발주 설계 도서가 많을 것으로 보아 절차에 있어서 보다 세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여 질의 하오니 법적인 유권 해석을 바랍니다.

응답(건설부) :

외국인 건축사가 저작한 설계 도서를 건축사법 제19조 2항의 규정으로 절차 이행 대리를 할 수 없음.

질의 : 1, 2급 건축사 합작 및 동업 가부 문제

(지도 223－ 262호)

1급 건축사만이 할 수 있는 설계 업무를 1급 건축사의 책임하에 2급 건축사와 같이 '합작'으로 설계 도서를 작성할 수 있는 지의 여부.

ㄴ. 1, 2급 건축사가 합동 사무소를 설치하여 동업을 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응답(건설부)

ㄱ. 1급 건축사의 책임하에 2급 건축사와 같이 설계도서를 작성함은 합작이 아니라 2급 건축사가 1급 건축사에 고용된 형식이며

ㄴ. 합동사무실에 의한 1, 2급 건축사의 동업은 기업 경영면에서는 가능한 것이나 전항과 같이 도서 작성상의 합작이나 1, 2급이 동등한 자격 행사는 불가능한 것임.

주택설계작품현상모집

모집요령, 취지

정부의 주택시책에 호응하여 국민의 주택에 대한 계몽과 생활근대화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참신하고 실용있는 일반서민주택설계 작품을 모집함.

1, 내 용 : 가, 농어촌주택 1가구 6인의 독립 또는 연립주택 가급적 20가구— 30가구의 단지계획도 가함. 나, 도시주택 1가구 5인의 단독주택

2, 조 건 : 가, 대지조건임의 나, 건축면적은 가족수 참작 다, 구조는 합리적이고 실용있는 국산자료로함 라, 응모수 제한없음

3, 도 면 : 가, 배치도(평면도겸한) 축적 1 : 50 나, 입면도 2면 주단면도 1면 축적 1 : 50 다, 투시도 축적 임의 라, 설명문은 도면에 간단히 기입함 마, 도면의 모든 표시는 먹으로하고 한글을 사용함 (채색임의) 바, 도면규격은 60cm×90cm보 같은 규격 3mm 합판에 부착만으로함

4, 응모마감 : 1970년 10월 30일 18시까지

5, 입선자발표 : 서울일간신문지상 및 개별통지 1970년 11월 20일

6, 상 금 : 특선작 2명 각 100,000원과 상장 입선작 15명 각 20,000원과 상장 응모자 전원에 기념품 증정

7, 기 타 : 가, 입선작은 주택설계도집을 발간함과 동시 일반공개 전시함 나, 입선작의 모든 권리는 본협회에 귀속함 다, 기타 상세한 것은 본협회 및 본협회 각 시도지부에 문의 하시기 바람

8, 보 낼 곳 :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1가25 정양빌딩

대한건축사협회 전화㉒ 2617 ㉘ 9802

1970년 9월 일

대한건축사협회

제 209 호

감 사 장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귀 협회는 지역사회개발 및 공사감리제도 시행에 솔선수범하여 업무를 성실히 이행 하였고 건축행정 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적이 다대함으로 이에 감사장을 드립니다

서기1970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장 양 택

협회기사 · 회원동정

제25회 이사회 (임시)

(1970. 9 · 1. 본회회의실)

결의 사항

○경남 지부 회비 납부 체납건은 8.19 제24회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지부 감사로 하여금 지부 경리 사무를 감사케하고 체납된 회비를 8월 31일까지 납부치 않을 경우 도서 등록을 부산지부로 이관 조치키로 한 바 회비가 납부되어 왔으므로 행정적인 문제는 일단락 짓기로 하다.

○김 진천 총무이사직 사퇴를 수리하고 후임 선임을 회장에게 일임한다.

제26회 이사회(정기)

결의사항 (1970. 9. 18. 본회회의실)

○1970년도 정기총회 개최 일자를 10월 17일 오전 10시로 예정하다.

○197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사무처에서 편성하여 기획위원회, 지부장회를 거쳐 이사회에 상정하되 그 상정 일정은 사무처에서 일임키로 하다.

○경기도 지부장 김 응연 및 동 전지부장 심 의권 회원을 김 동진 회원 2중등록 험의 관계로 윤리 위원회에 제소키로 하다.

제4회 윤리 위원회

(1970. 9. 8. 본회회의실)

○경남지부소속 김 상훈 회원 보수 할인 행위로 권고 처분하다.

○강원도지부소속 배 기웅 회원 회비체납 관계로 견책 처분하다.

○경기도지부소속 김 동진 회원 2중등록 행위 협의로 윤리 위원회에 출두하여 의견 진술하다.

건축사 사무소 등록 취소 해제 (70. 9. 10)

신현직 (청구 건축설계사무소)
성북구삼선동 5가 298－3

신입회원

김철회 (삼덕건축 연구소)
서울마포구마포동 156－1 32－9776

이기석 (이기석 건축설계사무소)
대전시 대흥동 480

사무소 이전

이종엽 (로얄건축 연구소)
동대문구휘경동 293－53 96－3902

신명수 (구미 건축연구소)
종로구청진동 300 75－7703

모세용 (모 건축연구소)
종로구청진동 300 75－7702

김남수 (구미 건축설계사무소)
종로구청진동 300 75－7703

문용희 (삼기 건축 연구소)
성동구무학동 47－2 53－5781

김수남 (성진 건축 연구소)
영등포구대방동 265 69－9852

사무소 폐업

건축사 이희태 (서울)

건축사 채수현 (인천)
극동 건축 설계 사무소

상호변경

강두석 (주식회사 대한건설기술공단 강두석 연구실) 前선건축

강진삼 (주식회사 대한건설기술공단 강진삼 연구실) 前태양건설

민병운 (주식회사 대한건설기술공단 민병운 연구실) 前신아건축

신형범 (주식회사 대한건설기술공단 신형범 연구실) 前경전종합

정남조 (주식회사 대한건설기술공단 정남조 연구실) 前경남건축

중구 다동 113. 28－2942. 22－0646.

■ 발행소 / 대한건축사협회 / 서울특별시 용지로 1가 25번지 정양빌딩 601호실 / 전화 28－9802 · 22－2617 ■ 발행인 겸 편집인 / 강명구 ■ 인쇄처 / 대한공론사 ■ 등록일자 1967년 3월 23일 ■ 등록변경 / 1970년 1월 8일 ■ 등록번호 / (제다－1251) ■ 인쇄 / 1970년 9월 24일 ■ 발행 / 1970년 9월 25일 ■ 월간 ■ 진체구좌 / 한은무교지점 1955호

부드러운 달빛을!!

밝기를 마음대로 할수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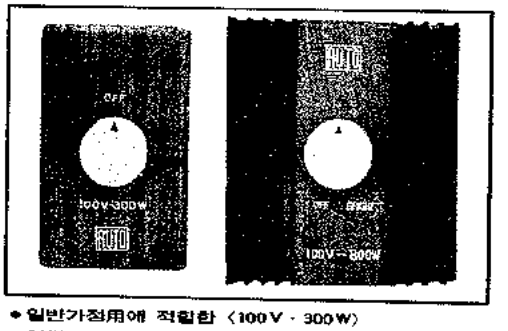
이것은 실내조명의 오랜 꿈이었읍니다.
Autolite 調光器는 이꿈을 실현하였읍니다.

■ Autolite 調光器는

전등의 밝기를 마음대로 조절할수 있는 전자장치로서 외국에서는 Light Dimmer란 상품명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일반 실내조명·무대조명·호텔객실·병실·연회장 조명 등에 사용됩니다.

■ Autolite 調光器를 사용하면

보조등의 설치가 불필요 해지며 전력비를 절약할수 있는 경제적인 利点도 있읍니다.



- 일반가정用에 적합한 〈100V · 300W〉
- 연회장 조명에는 〈100V · 800W〉

※ 특수한 규격의 제품은 주문에 의하여 생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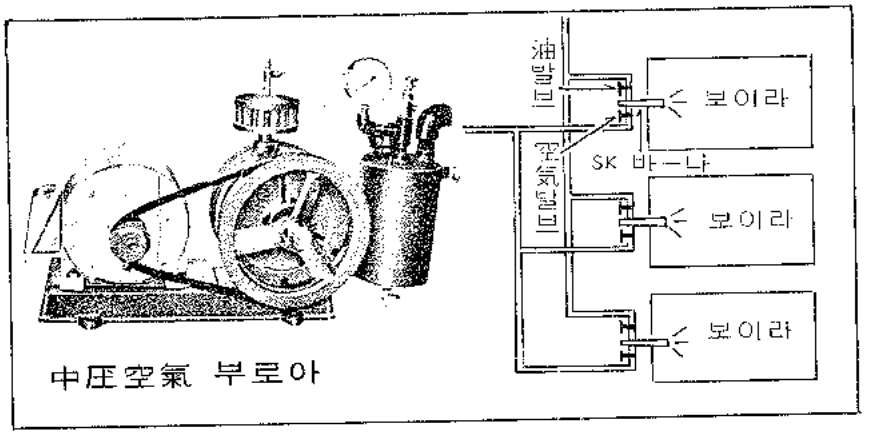
調光器 AUTOLITE

AUTO 오토電子工業株式会社
서울시 중구 산림동 245 ㉖1630

방카C油 燃燒機의 王者!

SK오일바-나

(東浜)



中圧空氣 부로아

日本新三立興業CO. 製

特 徵

① 1台의 부로와로 数個의 보이라에 同時에 使用할 수 있으므로 他에 比하여 価格面에서 싸게 된다.

② 無故障 完全 燃燒로 使用이 簡便하다.

③ 停電時 蒸氣로 對替 使用할 수 있다.

Rotaly Bur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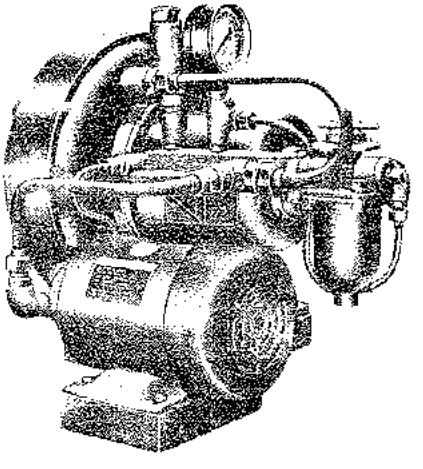
重油와 空気의 加減이 自由로 되고 특히 重油와 空気가 完全히 混合되기 때문에 中性焰, 還元焰, 酸化焰은 自由로이 얻을 수 있으며 또한 燃燒機 自体에 附着된 air nozzee의 交換에 依하여 炉構造에 適応한 火焰을 만들수가 있다.
燃燒空의 混度가 自由로이 調節되며 始動 消火가 簡短하여 消費가 없다.
其他 各種 오일바-나 具備 施工都散賣

用 途

① 高層 빌딩用

② 重工業用

③ 特히 繊維工業의 濕度調節 兼用으로 最適



SK 오일바-나 韓國總代理店

株式会社 安陽社

서울 世運商街 가棟 가列 138号

TEL. 74-3535・72-1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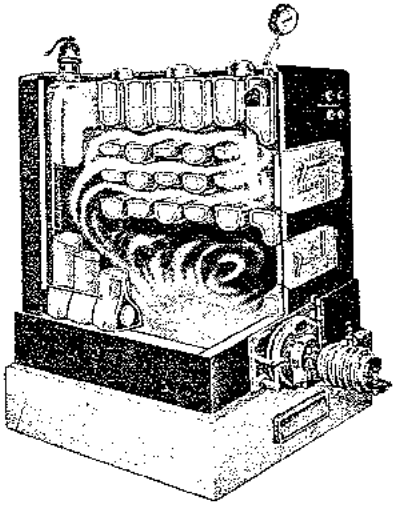
韓国발명특허(第2792호)
미 국발명특허(U. S PAT No. 3410252)
카나다발명특허(카나다 No. 811463)

—*—동진의 DZ보이라는 쎅손을 지꾸자꾸로 조립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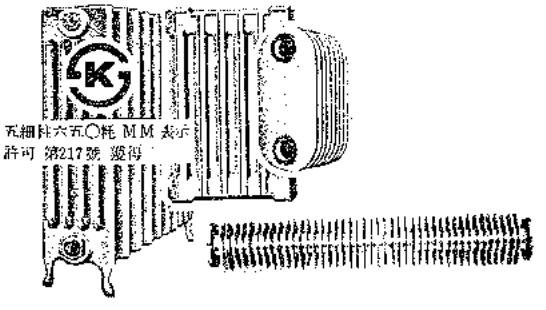
화상면적을 20%로 증가 시켰읍니다 따라서 전열면적이 30% 증가되어 연료가 절약되며 열공급이 빠르므로 경제적이며 실용적인 제품입니다.

(대통령상 수상품)

東震ZZ型보이라



東震의 製品은 完全한
品質管理로 安心하고
使用할 수 있읍니다.



◆製 品 案 內◆

㊐ 低壓섹소날 보이라
㊐ 高壓 보이라
㊐ 各種 放熱器
㊐ 콘덴세이숀 펌푸
㊐ 回轉式 蒸汽釜
㊐ 眞空暖房펌푸
㊐ 콘벡타
㊐ 電気호이스트 크레인
㊐ 住宅用 温水보이라
㊐ 로—타리 오일바나

東震鑄物製作所

본사: 서울特別市 龍山区 元暁路1街43 TEL. (交) 42－2221～5番
부산지사: 釜山直轄市 中区 東光洞1街 1番地 電話: 4－8284

미국특허 #505-863

새로운 건축자재의 혁신!

구미 각국에서 각광중인 內, 外裝,

표벽재료 드디어 한국에 出現!

DECOR-CEM

(덱콜-쎔)을 소개합니다

덱콜쎔시공 광경

어떠한 빌딩과 아무리 古屋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금이 가지 않으며 다양한 색채로 매끈한 혹은 거친 디자인으로 새롭게 완전방수 표벽화 합니다.

※ 防水, 방화, 방음, 凍結, 結氷, 恒久性을 보장하며 쉽게 청소됩니다.

미국에서 建築業으로 전통과 기술을 자랑하는 ILLINOIS Rockford에 있는 U. S. DECOR-Cem inc와 동남아 특약과 기술제휴.

本 社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가 20의 5
(성산빌딩 203호)
TEL. (54) 7569

工 場 : 서울 용산구 한남동 504의 1

전시장 : 서울 동대문 신평화상가 2층
TEL. (54) 7111-5 (16번)

美덱콜-쎔韓國支社

KOREA DECOR-CEM INC.